한마홍교 00-3-180

2000년 약물남용예방 지도교사 연수

2000. 8

주최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후원 교육부

2000년 약물남용예방지도교사 연수 일정

첫째날

08:30 ~ 09:00 등 록
09:00 ~ 10:00 마약류 관리현황과 추진방안
이상렬(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과장)
10:00 ~ 11:00 마약류 사범의 동향과 대책
차동언검사, 강여찬검사, 심재천검사
11:00 ~ 12:00 학생 약물남용 예방 지도교사의 역할과 자세
정하배(교육부 학교정책과 장학관)
12:00 ~ 13:00 중 식
13:00 ~ 15:30 가치관 명료화 과정
김세호(이인자 상담심리연구소 지도자)
15:30 ~ 17:00 외국의 효과적인 약물예방활동
김용석(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7:00 ~ 18:00 학교예방활동의 사례
윤현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실장)

둘째날

08:30 ~ 12:30 소시오 드라마(Socio Drama)의 이해와 실제
박희석(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실 전임상담원)
12:30 ~ 13:30 중 식
13:30 ~ 18:00 감수성 개발훈련
박희석(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실 전임상담원)
18:00 ~ 18:30 수료식

목 차

◈ 마약류 관리현황과 추진방안 …… 7

◈ 마약류 사범의 동향과 대책……23

◈ 학생 약물남용 예방 지도교사의 역할과 자세 …… 61

◈ 가치관 명료화 과정 …… 67

◈ 외국의 효과적인 약물예방활동 …… 85

◈ 학교예방활동의 사례 …… 97

◈ 소시오 드라마(Soico Drama)의 이해와 실제…… 111

◈ 감수성 개발훈련 ……123

마약류 관리현황과 추진방안

이상렬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과장

痲藥類 管理現況과 推進方向

◆ 目　　次 ◆

Ⅰ. 머리말

Ⅱ. 醫療用 痲藥類의 種類 등

1. 痲藥
2. 向精神性醫藥品
3. 大麻

Ⅲ. 痲藥類管理 推進內容

1. 痲藥類 取扱業所 流通 指導 點檢
2. 醫療用 痲藥類의 品質管理
3. 靑少年 濫用 一般醫藥品 嚴正管理

Ⅳ. 痲藥類中毒者 豫防, 治療方案

1. 新種 痲藥類 不法 流通
2. 對國民 弘報 啓蒙敎育
3. 痲藥類中毒者 治療保護
4. 國際協力

Ⅴ. 맺음말

Ⅰ. 머 리 말

마약류는 藥物 使用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사용 약물의 量이 증가함과 동시에 禁斷現象 등이 나타나고 그 被害가 개인에 限定되지 아니하여 社會에도 해를 끼치는 藥物로 정의되고 있다.

政府의 마약류 관리체계를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 마약류퇴치의 대국민 홍보·계몽 교육, 마약류 중독자의 治療·再活 등의 업무를 하며,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에서 痲藥事犯 團束 및 密賣組織 檢擧를 담당하고 있다.

마약류를 관리하기 위한 法令으로는 기존의 痲藥法,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 大麻管理法이 통합·제정되어 2000. 7. 1.자로 시행된 痲藥類管理에관한法律, 痲藥類不法去來防止에 관한 特例法, 痲藥類中毒者治療保護規定 등이 있고 약물남용과 관련된 법규는 靑少年保護法, 有害化學物質管理法, 未成年者保護法 등이 있으며 국제적인 마약류 관련 규약은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과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협약」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마약류의 공급과 수요를 차단하는 두가지 방안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약류 퇴치의 홍보·계몽 교육의 강화, 의료용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통제, 품질향상을 위한 시중 유통 마약류의 수거·검정,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그리고 국제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 증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Ⅱ. 醫療用 麻藥類의 種類

1. 麻藥

마약이라 함은 앵속 · 아편 · 코카엽 및 아편에서 抽出되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천연마약과 염산페치딘, 메사돈과 같은 化學的 합성품으로 구분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제되고 있는 마약 성분의 종류는 약 100여종에 이르고 있다.

마약은 주로 암환자 등에 강력한 진통제로서 필요 불가결한 의약품인 동시에 남용될 경우 依存性에 의한 중독으로 人體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 등의 재배를 금지하고 있으며, 中毒性이 매우 심한 디아세틸몰핀(헤로인)의 취급이 일체 금지되고 있다.

마약의 生産·輸入·調劑·消費는 UN의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에 의해 國際的으로 동일하게 통제되어 있으며, 국제마약관리국(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이 이를 관장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INCB 승인하에 마약 원료를 전량 수입하여 小分 또는 製劑의 공정을 거쳐 합법적인 의료용 마약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수술시 진통이나 마취 또는 암환자의 진통에 사용되고 있다.

의료용마약 허가품목

마 약 명	제 형	효 능
인산코데인	정제 및 소분	진통 진해 해소
염산몰핀	주 사	각종 통증의 진통
염산페치딘	주 사	각종 통증의 진통, 마취전 투약
황산몰핀	서 방 정	각종 통증의 진통
구연산펜타닐	주 사	마취유도, 마취유지, 단시간의 진통
펜타닐	패 취	만성 통증의 진통

※ 주석산수소디히드로코데인은 한외마약의 제제에 사용되며, 감기의 증상 완화를 위하여 鎭海·去痰에 사용됨.

마약취급자 현황

(1999. 12. 현재)

구 분 \ 취급자	계	제제업자	소분업자	한외마약 제제업자	수입업자	학술연구자
업 소 별	144	23	4	29	10	78
품 목 별	155	103	4	44	4	-

연도별 원료마약 사용현황

(단위:kg)

구 분 \ 연도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염산코카인	1	3	0	1	0	0
인산코데인	57	100	106	98	69.23	146.36
주석산수소디히드로코데인	1,456	1,100	1,997.96	2,595	918	2,097
염산몰핀	5	7	17	39	10	2
염산페치딘	150	180	108	143	54	131
황산몰핀	77	110	82	62	70	72
구연산펜타닐(g)	68	625	222.8	309	156	309
펜타닐(g)	-	258	1,016.975	1,157	631	1,911.29

2. 向精神性醫藥品

마약을 제외하고 習慣性이 있는 의약품을 규제하기 위하여 1970년에 「習慣性醫藥品管理法」을 제정하여 시행했다.

또한 습관성은 있으나 中樞神經系에 작용하여 남용될 경우 인체에 현저한 폐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규제하기 위하여「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폐지하고 1979년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2000년에는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등 3법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제하고 있는 물질은 160여종이 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주로 幻覺, 覺醒, 睡眠 및 神經安靜 작용을 나타내는 물질로서 다음과 같다.

○ 幻覺 작용을 가지는 물질(법 제2조제4호가목)은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
○ 覺醒 작용을 가지는 물질(법 제2조제4호나목)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제한적으로 의료용을 사용됨.

○ 수면 또는 마취 작용을 가지는 물질(법 제2조제4호다목), 현재 생산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신경안정제(법 제2조제4호라목)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의료용으로 사용됨.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판매시에는 반드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 중 불법적인 사용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물질은 메스암페타민(필로폰)으로서, 이는 각성작용이 있으며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으로 인체에 현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의 불법제조 및 거래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메스암페타민의 불법제조를 근절함과 아울러 이 물질의 전구물질인 염산에페드린 등 향정신성의약품 불법제조에 자주 이용되는 화학물질 22종을 통제·관리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1993년말에 개정하여 1994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0년 7월 1자로 시행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놀에페드린(Norephedrine)을 추가하여 23종을 통제·관리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 현황

(1999. 12. 현재)

취급자 / 구 분	계	제조업자	원료사용자	수출입업자	학술연구자
업 소 수	370	70	36	41	223
품 목 수	305	302	-	3	-

3. 大 麻

대마라 함은 大麻草와 그 樹脂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을 말하며 "마리화나"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삼베 제조용으로 많이 재배하여 왔으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대마재배량은 감소하였지만 아직 일부 농가에서는 소량을 재배하고 있다.

1970년대 대마초가 幻覺劑로서 일부 청소년, 학생, 연예인에게 파급되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醫療用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대마의 체계적 관리와 대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1976년 습관성의약품관리법에서 대마만을 분리하여 대마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2000년 7월 1자로 마약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마 수확기에는 현지에서 대마엽 유출 방지와 야생대마 제거 등 대마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대마재배자들에게 지도·계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Ⅲ. 麻藥管理 推進內容

1. 마약류취급업소 유통 지도 점검

의료용 마약류의 適正管理와 不法 流出로 인한 오·남용 豫防을 위하여 마약류(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마약류 수급대장의 비치·기록 및 보존 여부
○ 장부상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일치 여부
○ 일반의약품과의 구분 및 저장시설의 적정성 여부
○ 판매 제한 대상자에 대한 판매 및 판매허용량에 대한 이행 여부

아울러 마약류 제조 원료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불법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 원료가 되는 염산에페드린 취급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 醫療用 麻藥類의 品質管理

麻藥 小分 및 製劑 品目은 생산 완료 즉시 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사전 檢定을 실시한 후 적합품에 한하여 마약봉함증지를 첨부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외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조업소에서 자가품질관리하여 적합 판정된 후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거, 검정하여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

3. 靑少年 濫用 一般醫藥品 嚴正 管理

청소년들이 남용하는 일반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진해거담제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제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1회 판매 許容量을 설정하고 판매기록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2000. 7. 1자로 의약분업실시로 모든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되도록 조치하였다.

鎭痛劑인 염산날부핀 제제는 오·남용으로 인해 병·의원에서만 취급하도록 제한하였으나 최근 유흥가 등의 오·남용이 사회문제화 되어 심각함에 따라 금년중으로 향정신성의약품(4군)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Ⅳ. 麻藥類 豫防, 治療方案

우리나라는 비교적 마약 안전지대로 통하였으나, 무역장벽의 완화, 마약가격의 저렴화, 국제 마약상들의 집중공세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마약 위험수위를 눈앞에 두고 있다.

마약류의 폐해는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하고 결국은 파멸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이는 특정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사회·국가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우리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재적 마약소비자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개발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1. 新種 麻藥類 不法 流通

최근 검찰의 단속결과에 따르면 야바, 카트, 엑스타시 등 신종 마약들이 국내에 밀반입되어 불법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바는 태국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청소년층과 격무에 시달리는 회사원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복용이 간편한 이들 신종마약이나 “살빼는 약”으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을 손대는 일이 없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① 야바

야바는 메스암페타민에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을 섞어 제조한 신종 마약으로, 태국 북부와 태국-미얀마 국경지대의 소수민족이 밀조·유통시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바는 일반의약품과 같이 정제 또는 캡슐 형태로 되어 있으며 1정(약 0.2그람)당 가격이 3,000~5,000원선으로 저렴하여 누구든지 손쉽게 구입·투약할 위험성이 크다. 또한 야바는 각성효과가 뛰어나고 복용시 공격성 및 피해 망상증이 발생하는 등 중독성이 강하다고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② GHB

1990년 이래, GHB(gamma-hydroxybutyrate)는 미국에서 쾌감증, 진정효과와 근육강화 효과로 미국에서 남용되고 있다. Rohypnol과 clonazepam과 함께 GHB는 전 도시의 성학대와 관련되어 있다. GHB의 남용으로 혼수상태와 발작이 발생하며 메스암페타민과 함께 사용될 때 발작의 위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과 같은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하면 구역질과 호흡곤란을 겪을 수 있다.

③ 카트

카트는 태국, 예멘 등지에서 경작되는 식물로 제조한 '씹는' 마약으로 히로뽕과 같은 극도의 환각증세와 편집증세를 유발하지만 미국에서도 최근에야 마약류에 포함된 신종

마약이다.

④ ATS

ATS란 '암페타민류 환각제'를 통칭하는 것으로 필로폰으로 더 잘 알려진 백색가루 형태의 메스암페타민, 주사기로 주입하는 액체상태의 스피드, 미세 결정체로 흡입용인 아이스 등을 말한다. ATS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양귀비나 코카나무, 대마초 등 원료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대규모 농장이 필요없다. 인공적으로 화학물질을 합성하여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도 주로 선진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생산장소가 바뀌면서 이들 마약류의 유통루트도 기존의 '개도국 - 선진국'에서 '선진국 - 선진국'의 형태로 변하고 있다.

⑤ 엑스터시

한국에서는 "도리도리"로, 미국에서는 "아담","엑스터시"또는 엑스티시"로 불리는 MDMA는 환각성과 암페타민과 같은 특성을 지닌 합성 향정신성 약이다. 화학적 구조(3-4 메틸렌디옥시메스암페타민)는 두 개의 다른 합성 약물인 MDA와 메스암페타민과 비슷하다. 한국에서는 메스암페타민 보다 가격이 싸면서 환각작용은 3배나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1정당 4만-15만원정도로 시중에 유통된다고 한다.

⑥ 일명 “살빼는 약” 유통

중국, 태국 등에서 밀반입되는 “살빼는 약”이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플루라민, 디아제팜 등을 제제한 약물로 “안비납동편”, “분기납명편”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들의 성분인 펜플루라민, 디아제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라목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2. 對國民 弘報·啓蒙 敎育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마약류의 공급과 유통을 억제하는 한편 수요를 감소시키는 예방활동이 병행되어야 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는 홍보·계몽 교육 사업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포스터, 표어, 리플렛 등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遊興接客業所, 宿泊業所, 電子娛樂室, 海水浴場 등에 배포하고 전국 주요도시의 밀집지역에서 마약퇴치 가두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세계마약퇴치의 날(매년 6월 26일)을 기념하여 마약퇴치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99년도에는 축구선수 이동국을 마약퇴치홍보대사로 위촉, 모델로 하여 마약류퇴치 및 중독자 무료치료사업에 대한 대형와이드칼라광고를 서울역 등 3개 기차역에 설치하였고 지하철 1~4호선, 분당선 등에 차내광고를 실시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H.O.T를 마약퇴치홍보대사로 위촉,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주요 지하철내에 대형와이드칼라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와 양호교사들에게 약물남용 및 마약류퇴치를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부터는 교원연수과정으로 집중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醫師, 藥師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에게 의료목적외로 마약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痲藥類 中毒者 治療保護

가. 痲藥類 投藥事犯 발생추세

우리나라의 마약류 오·남용은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예인, 기지촌 등 유흥업종사자 등 특수계층에 국한되어 발생하였으며 1985년의 1,190명을 기점으로 1990년에는 4,222명으로 무려 355%가 증가했다.

'99년 우리나라의 마약류 단속사범수가 10,589명으로 처음 만명이 넘어 섰으며, 이는 98년에 비해 26.8% , 5년 전인 96년에 비해 무려 132%나 증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마약범죄계수(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수)가 23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420), 태국(222), 영국(161), 말레이시아(66) 등에 비하면 낮지만 증가추세로 볼 때 방심할 때는 아니다.

또한 최근에 마약류 남용이 근로자, 농어민, 심지어 가정주부와 학생까지 번지고 있고 연령층도 점차 10대와 20대로 低年齡化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항구도시나 기지촌에서 도시, 농촌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마약류 오·남용의 경우, 1960년대까

지는 앵속·아편 등의 마약이, 1970년대에는 미군기지촌 주변에서 시작된 대마초 흡연이, 1980년대는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각성제인 메스암페타민(히로뽕) 투약사범이 主流를 이루고 있다.

마약류 사범, 투약사범 및 치료보호 현황

(단위: 명)

연도 / 마약류	'94	'95	'96	'97	'98	'99
마약사범	4,555	5,418	6,189	6,947	8,350	10,589
투약사범	1,926	2,651	3,213	4,045	5,777	7,321
치료보호	74(3.8%)	184(6.9%)	44(1.4%)	43(1.2%)	122(1.5%)	176(1.7%)

나. 增加 原因

最近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오·남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첫째, 국민소

득향상에 편승한 유흥접객업소의 범람과 무분별한 퇴폐 향락 추구 경향과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갈등과 불안 등 현실도피 성향이 팽배하고 둘째, 히로뽕 등 마약류의 효능과 위해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일시적 호기심이나 유혹에 쉽게 넘어가며 셋째,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출·입국의 자유로 마약류의 밀반입이 증가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사례로는 ▲술 깨는 약(술집, 요정), ▲머리가 맑아지는 약(학생) ▲ 살을 빼는 약(주부), ▲힘이 나는 약(청장년층) ▲신경통 치료약(농어촌 주민), ▲피로회복제(야간근무자, 운전기사) ▲사무능률향상, 스트레스 풀기, 기분전환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 麻藥類 中毒者 治療 保護

1) 治療保護의 法的 根據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40조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등이 있다

2) 中毒者의 判別檢査 및 치료보호

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市·道知事는 마약류 중독여부를 판별하고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마약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은 6월이내, 판별검사 기간은 1월이내 이다.

마약류중독자의 入院은 檢事가 시·도지사에게 중독자를 통보하거나, 또는 중독자 본인, 배우자 등이 시·도지사에게 입원을 신청하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별검사 또는 입원 조치하여 치료보호를 하고 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는 전국 23개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하고 있으며 마약류중독자의 전문적인 치료·재활을 위하여 국립부곡정신병원에 부설하여 마약류중독 진료소를 200병상 규모로 1997년 12월 12일 개원하였다.

라.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活性化 必要性

중독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犯罪者이면서 의학적으로 치료받아야 할 患者이며 치료가 우선인지, 처벌이 우선인지 여부는 각국의 사회적, 문화적, 법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치료보다 형사처벌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 중독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통한 마약수요억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함께 치료 및 재활훈련을 활용하여 마약중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바람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지정기관별 치료현황

(2000. 4. 현재)

구분 / 시·도	병 원 명	지정병상수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계	23개 의료기관	428	178	81	88	131	74	184	44	43	122	176
국 립	국립서울정신병원	7	8	3	1	8	10	7			4	10
	국립부곡정신병원 부설 마약류중독진료소	200							1	1	37	68
	국립나주정신병원	10										1
서 울	서울시립은평병원	10	9	4	10	9	5	5	1	3	21	6
부 산	부산의료원	20	71	39	30	38	24	5	4	34	46	53
	의료법인 대남병원	30										
대 구	대구의료원	3	70	33	44	69	35	167	35	4	7	4
인 천	인천병원	2	1			6					2	3
	은혜병원	10							2			
광 주	광주시립정신병원	5										3
	전남대학교병원	-	(해	제	'99.	9.	20.)				1	1
대 전	대전신생정신병원	20	17		1							
울산	큰빛병원	4										1
경 기	의정부의료원	8								1	5	6
	계요병원	20										
	용인정신병원	10							1		18	18
강 원	춘천의료원	10										
충 북	청주의료원	10	1			1						2
충 남	홍성의료원	6		1	1							
전 북	군산의료원	10			1							
전 남	목포의료원	10										
경 북	포항의료원	3										
경 남	진주의료원	10	1	1								
	마산성모병원	-	(해	제	2000	2.	28.)					
제 주	제주의료원	10										

4. 국제협력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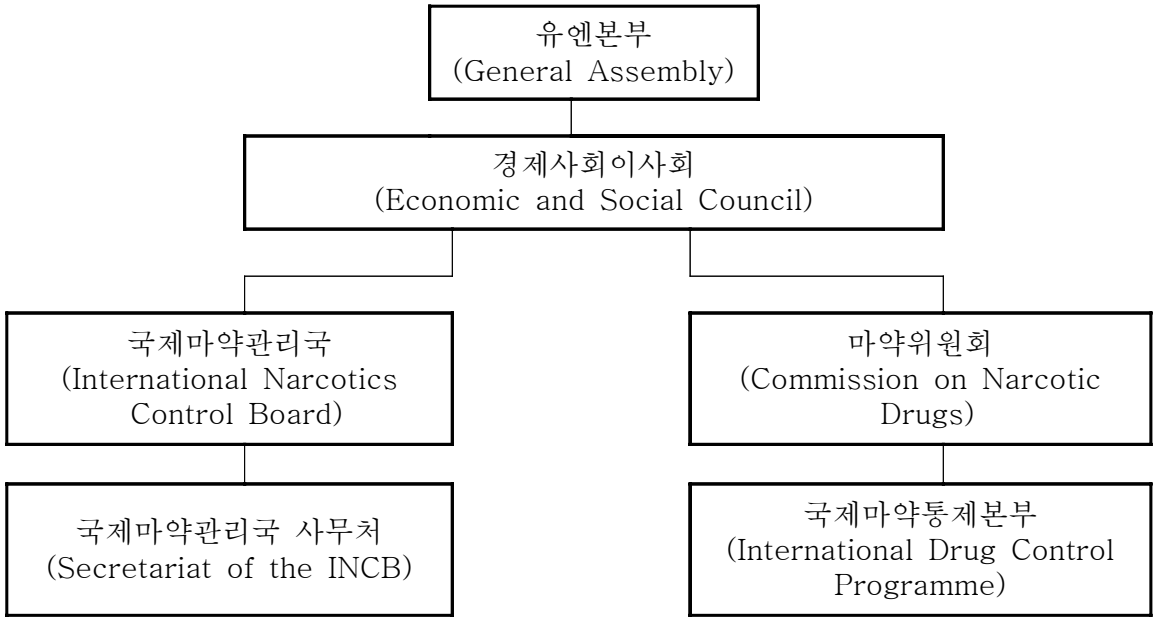
마약류 관리는 국제연합의「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과 또한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에 의거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 산하 마약위원회에서 국제적인 마약의 통제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책의 구체적 시행은 국제마약통제본부(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me)에서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는 마약의 불법제조와 거래에 관한 감시·감독을 위해 국제간 또는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1993년 서울에서 제17차 아시아·태평양지역 마약법 집행 기관장회의(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y Meeting)를 유치하여 호주를 비롯한 35개 회원국가와 국제마약통제계획(UNDCP) 등 7개 국제기구에서 총 118명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범세계적인 국제협력사업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시켰다.

또한 우리나라는 1991년 경제사회이사회 소속 마약위원회 이사국으로 3번째 피선(1992-1995년)되어 국위 선양 및 마약류사범 근절을 위한 국제적 통제정책 수립에 기여한 바 있으며, 1994년도에 개최된 제38차 마약위원회 회의에서는 비엔나 주재 우리나라 대사가 의장으로 피선되어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바 있다.

그리고 민간부문에서도 음악 가족인 정트리오가 초대 국제친선마약대사로 임명되어 전세계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콘서트를 개최하여 국제적으로 마약류 남용 방지를 위한 당위성을 전파하고 공연행사의 이익금을 국제마약퇴치기금으로 기부하여 마약에 대한 국제협력에 적극 기여하였다.

마약류 관련 국제기구 협력관계



Ⅴ. 맺음말

"白色의 恐怖가루"라고 하는 마약의 수렁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은 마약에 대해 무지한 사람 뿐만이 아니라 고학력층이고 富裕層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亡國的 毒素인 마약류의 퇴치와 약물남용 예방은 정부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거나 행정조치와 사법적인 제도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국민의 건전한 생활자세와 함께 학계, 전문가, 언론인, 보건의료단체, 사회종교단체 등이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과 함께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단속과 유해약물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서는 藥物取扱者의 自律規制, 市民團體의 監視活動과 국민의 全幅的인 支持와 協助가 있어야 한다.

마약퇴치와 약물남용 예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 ㅇ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마약퇴치 기금을 조성하여 전문인력 양성, 홍보자료개발, 해외정보 교류
- ㅇ또한 마약류 제조, 밀매 등 사범은 엄벌하되 투약사범중 단순투약자나 초범인 경우에는 재활과 사회복귀 차원에서 치료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
- ㅇ장기적인 마약퇴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분야의 대학과 보건대학원에 마약퇴치 및 약물남용 방지 전공학과를 신설 운영
- ㅇ초·중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의 교직과목에 마약을 포함한 약

물남용 예방과목을 이수토록 하고 각급 학교 수업시간에 약물남용 예방교육시간을 배당

○모든 공무원의 직무교육 과정에 마약 및 약물남용 방지 과목을 신설 이수 의무화

○확고한 자아 정체감이 미완성된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은 부모의 무관심에서 비롯되므로 부모·자녀간의 격의없는 대화로 상호 이해를 깊게 하여 이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 형성 유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부탄가스, 성인용비디오 등을 판매하는 업주들은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방식과 “내가 안판다고 해결되나”라는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고 청소년의 밝은 미래가 업주들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함과 아울러 기성세대들이 청소년 유해환경을 추방하자는 사회분위기와 국민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이뤄 나가야 하며,

○청소년들의 행동양식이 TV프로그램에 좌우되는 현실이므로 TV방송사는 건전하고 유익한 청소년용 프로그램을 방영

○마약과 약물남용의 일차적 책임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과음 등의 음주 퇴폐 문화 환경 개선

○마약퇴치사업과 약물남용 예방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사업목표)의 정확한 설정과 정기적인 사업평가

마약과 약물남용자의 경우, 대개 60%이상이 범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마약문제는 건강한 복지사회 건설의 장애요인일 뿐만아니라 실업과 인력의 손실 및 이의 예방과 치료에 따른 비용 증가로 사회 전체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대처해야할 과제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나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계와 전문가들은 사회정화 차원에서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여 건전한 국민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우리사회를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마약류 사범의 동향과 대책

차 동 언

춘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Ⅰ. 들어가는 말

최근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은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여 있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근본적인 마약근절대책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실현으로 9월로 예정된 대검 마약부장 및 서울지검 마약부장 직제의 신설 및 각 일선 검찰청 단위에서 마약과 신설 등 차근차근 추진이 되고 있다.

Ⅱ. 한국의 마약류범죄 현황

1. 마약류범죄 개요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은 50 ~ 60년대에는 아편과 메사돈이, 70년대에는 대마초가 주종을 이루었다가 80년대에 이르러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사범이 급증하면서 지금까지 중심 마약류로 남용되고 있다.

60년대 말부터 밀제조 되어 주로 외국으로 수출되던 메스암페타민은 정부당국의 강력한 단속으로 밀수출 루트가 거의 와해되자 국내시장으로 그 판로를 돌려 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국내 유통이 급증하면서 많은 중독자가 양산되었고 이로 인한 환각범죄까지 빈발하여 큰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마약수사권을 검찰로 이체하여 일원화된 강력한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하여 경찰, 세관 등 법집행기관과 함께 철저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에서는 대국민 홍보, 계몽, 교육 및 치료·재활업무를 담당하고, 외교통상부는 마약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협력관련업무를, 국가정보원은 마약관련 국제정보업무를 담당하여 적극 대처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메스암페타민 밀제조사범 등 공급조직을 거의 와해시키고 유통물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킴으로서 국내적으로는 마약류중독자나 이들에 의한 환각범죄의 발생도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어 일반 국민들은 마약류문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까지 상황이 개선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마약류 밀제조국가라는 오명을 벗음과 동시에 마약류퇴치에 성공한 모범국가라는 평판을 얻는 실적을 거양하였다.

2. 마약류사범 단속실적

90년부터 99년까지 최근 10년간 단속한 마약류사범 수는 총 59,144명으로 이전 10년간(80년부터 89년까지) 단속사범 수 17,437명에 비해 무려 239.2% 급증하였다.

마약류별로는 주종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 즉 향정사범의 최근 10년간 단속자 수사 31,546명으로 이전 10년간 보다 223.0% 증가하였으며, 대마사범은 205.2% 증가하였다.

마약류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기간 / 죄명별	('90~'99) 최근 10년간	('80~'89) 이전 10년간	증 감(%)
합 계	59,144	17,437	+239.2
마 약	13,066	2,907	+349.5
대 마	14,532	4,762	+205.2
향 정	31,546	9,768	+223.0

마약류사범 단속자 수가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마약류사범의 지역적·계층적 확산에 따른 자연적 요인도 일부 있으나, 마약류사범의 은밀화·비노출 범죄화·지능화·점조직화 속성에 비추어 검찰을 비롯한 경찰·세관 등 단속기관의 헌신적인 퇴치의지를 바탕으로 폭넓은 정보수집과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단속활동, 특히 마약류 공급 및 수요조직 상·하선 전반에 걸친 집요한 공범 추적수사 및 성공적인 위장거래수사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단속된 사범 숫자가 양적으로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양호한 상태로 개선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즉, 메스암페타민 밀제조사범은 검찰의 공급조직 위주의 강력한 단속활동 결과 거의 와해되었으며, 96년도에 이어 97년도에도 밀제조 사례가 각 2건이 적발되었으나 제조규모는 이전에 비해 현저히 축소되었고, 98년도에는 밀제조 사례가 전무하였다가 99년도에 다시 2건이 적발되었다.

또한, 밀매사범의 경우 거래규모도 위축되어 이전보다 소규모화 되었을 뿐 아니라, 불법사용사범의 경우 이전과 달리 중증 상습 중독자가 크게 감소하여 80년대와 같이 환각상태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까지 개선되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하겠다.

3. 마약류별 실태

(1) 메스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은 우리나라의 중심 마약류로 자리잡고 있으며, 유통물량의 거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의 밀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공급선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한편, 주 원료물질인 염산에페드린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아 전량 외국으로부터의 밀반입에 의존하였으나 최근 메스암페타민 밀제조가 거의 근절됨에 따라 염산에페드린 밀반입 사례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정부당국의 강력한 억제정책으로 조직폭력이 마약류유통에 개입하지 못한 점, 청소년들을 마약류남용이나 불법거래로부터 차단해 온 점, 마약류 암거래가격의 고가격 유지 및 국내·외 공조 등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마약류상황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는데 성공해 왔다고 할 수 있다.

98년도 이후 검찰에 적발된 메스암페타민 원료인 염산에페드린의 밀수입 총량은 2,749㎏, 메스암페타민 밀제조 총량은 1,087㎏에 이르고 있으며, 92년도이래 염산에페드린의 국내 밀반입량 및 압수량은 매년 약 100㎏ 내지 350㎏상당이었으나, 96년도에는 70㎏으로 현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메스암페타민 및 원료물질 압수현황

단위 : ㎏

구분 / 연도	메스암페타민		염산에페드린
	완제품	반제품	
'95	12.98	2.12	200.00
'96	33.25	8.40	52.20
'97	24.87	29.60	29.95
'98	28.31	0	0
'99	29.23	0.16	2.07

97년도까지는 매년 염산에페드린 밀반입 및 메스암페타민 밀제조사범이 적발되었으나, 98년도에는 최초로 적발건수가 전무하였다가 99년도에는 다시 메스암페타민 밀제조사범이 적발되었다. 이는 국내에서 원료물질 구입이 어렵고 또 적발 시 처단형이 높아 국내에서의 밀제조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완제품을 직접 밀반입하는 것이 보

다 용이하고 안전하다는 공급사범들의 일시적 인식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공급사범들은 국내에서 밀제조망을 구축한 뒤 장소를 옮겨가면서 최단시간 내 소량의 메스암페타민을 밀제조하는 수법으로 꾸준히 밀제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향정사범은 전체 마약류사범의 70.6%를 차지하고 있어 메스암페타민이 주종 마약류임을 반영하고 있다.

(2) 대 마

우리나라에 있어 대마사범은 대마초가 주류이며 역사적으로는 메스암페타민 등 주종 마약류의 대체 마약으로 남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의한 해쉬쉬 등 대마사범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마사범은 그동안 증가와 감소세를 반복하다가 99년도에는 전년대비 36.2% 대폭 증가하여 전체 마약류사범의 20.7%를 점유하고 있으며, 섬유생산용 합법적 대마재배의 일부 유출과 일부 자생 대마의 흡연사범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다.

대마사범 단속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95	'96	'97	'98	'99
단속인원	1,516	1,272	1,301	1,606	2,187
비율(%)	(+ 1.1)	(-16.1)	(+ 2.3)	(+ 23.4)	(+ 36.2)

대마 압수 현황

구분 \ 연도		'95	'96	'97	'98	'99
압수량	대마(주)	16,997	47,465	31,501	3,815	10,705
	대마초(kg)	165	44	60	33	39

95년도 이전에는 대마초 밀반입사범의 경우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10~20g 정도 소량 밀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후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96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이 대마초 3.1㎏을 밀반입하고, 98년도에 역시 나이지리아인에 의한 대마초 3㎏ 및 이란인에 의한 해쉬쉬 700g 밀반입, 99년도에 독일인이 대마초 30㎏ 및 해쉬쉬 1㎏ 밀반입, 파키스탄인과 태국인에 의한 해쉬쉬 2㎏ 밀반입 등 전반적으로 밀반입 규모가 단순 흡연목적지에서 대규모 영리목적 매매로 뚜렷한 전환 현상을 보이고 있다.

(3) 생아편

우리나라는 50 ~ 60년대에 생아편의 남용이 큰 사회문제화 되었다가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거의 사라졌으나, 80년대 말부터 한·중 교류의 증가에 따라 중국 교포들에 의한 한약재 반입을 위장한 생아편 밀반입이 주류를 이루었다.

98년도 이후에는 내국인에 의한 생아편 밀반입사례가 3건 발생하여 2.3㎏이 압수되기도 하였다.

생아편 압수현황

단위 : ㎏

연 도	'95	'96	'97	'98	'99
압수량	7.14	0.57	6.80	1.04	3.06

마약사범 단속현황

단위 : 명

연도 / 구분	'95	'96	'97	'98	'99
단속인원	1,135	1,235	1,201	892	923
증감(%)	(-13.6)	(+8.8)	(-2.8)	(-25.7)	(+3.5)

국내 앵속재배사범은 주로 농촌이나 산간, 도서지역에서 비상 상비약 등의 목적으로

소규모 재배되고 있으며, 그동안 정부당국의 지속적인 홍보·계몽 및 단속활동으로 최근에는 동 사범이 크게 감소함과 동시에 밀경규모도 현저히 축소되고 있다.

(4) 헤로인

70년대 초기에는 매년 적지 않은 양의 헤로인이 압수되고 상당수의 국내 사용자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내 사용사범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밀반입사례 대부분은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이용하는 것이었다.

즉 91년도 3.19㎏, 92년도 22㎏ 등 그 동안에는 태국 등 동남아에서 소비지인 북미 등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중간 경유지로 이용될 뿐이었으나, 91년도 이후 간간히 국내 판로 개척 목적으로 헤로인이 밀반입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헤로인 운반은 91년에는 주로 나이지리아인을 이용하였고, 92년에는 종래의 나이지리아인 대신 홍콩인 등 동양인을 이용하다가 94 ~ 97년 사이에는 황금의 삼각지대 마약 밀매조직인 쿤사조직과 연결된 내외국인들에 의한 대량 밀반입 사례가 4건 적발되었다. 또한 98년에는 태국 마약밀매조직이 주한외교관사의 외국인 가정부와 공모, 태국으로부터 대량의 헤로인을 우편물로 위장하여 한국으로 밀반입한 뒤 이를 다시 미국으로 밀반출한 사례가 적발되었고 99년에는 국내 무역상이 중국 조선족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히로뽕과 함께 소량의 헤로인을 중국에서 밀반입한 사례가 적발되었기도 하였다.

헤로인 압수현황

단위 : ㎏

연도	'98	'96	'97	'98	'99
압수량	3.6	1.8	0.6	2.1	0.3

헤로인은 그 동안 태국으로부터 주로 밀반입 되었으나, 최근에는 카자흐스탄·파키스탄 등의 국가로부터도 밀반입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중국으로부터도 밀반입되어 밀반입루트가 점차 국제화·다변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5) 코카인

코카인이 국내에 처음 들어온 것은 86년도 경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90년도 초 처음으로 코카인사범이 검거되었다.

코카인 압수량은 91년도 2건(7명) 0.14㎏, 92년도 5건(9명) 13.3㎏, 93년도 4건(6명) 23.17㎏으로 급증하였으나, 94년도에는 3건(3명) 0.19㎏으로 일시 감소하였으며, 96년도 4건(5명) 0.77㎏, 97년도 3건(3명) 11.22㎏, 98년도 5건(10명) 2.08㎏, 99년도 3건(7명) 2.25㎏으로 다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카인사범 단속 및 압수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95	'96	'97	'98	'99
단속인원	1	5	3	10	7
압수량(㎏)	(0)	(0.77)	(11.22)	(2.08)	(2.25)

코카인은 한국을 경유지로 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남미 교포 등이 자신 사용목적 또는 국내시장 개척 목적으로 휴대·밀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4. 마약류 암거래 가격

마약류 암거래 가격은 마약류상황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공급물량의 증가는 암거래가격의 하락과 판매경쟁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일반인들이 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마약류 사용계층이 확산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90년대 들어 국산 메스암페타민의 제조근절과 외국산 메스암페타민 밀반입의 증가라는 새로운 경향 중 예의주시 하여야 할 부분이 바로 암거래 가격의 추이라 할 수 있다.

메스암페타민의 g당 소매가격은 89년도 15만원대에서 그 동안 꾸준히 상승하여 93년도 말에는 250만원대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94년도부터 220만원대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95년도에도 이어져 전년대비 13.6% 하락한 190만원대 수준으로 거래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가격 하락으로 99년도에는 58만원대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암거래 가격하락 추세와 최근의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내 밀매사범들의 판로확충 노력이 한결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마약류 판매

방식이 “특정 소수”의 단골고객 상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고객 상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은 98년 1월 IMF로 인한 국가적 경제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이러한 예상동향을 분석하고 특히, 메스암페타민 1회분(0.03g) 가격이 2~3만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에 유의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단속활동 강화 등 철저히 대응하여 왔다.

메스암페타민 암거래 가격 추이

단위 : 만원

연도 / 가격	’95	’96	’97	’98	’99
도매(kg당)	35,000	25,000	17,000	11,000	9,000
소매(g당)	190	157	136	104	58
0.03g 1회투약분	15	12	11	10	11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 메스암페타민 암거래가격을 완만한 하락 내지 보합세로 유지시키는데 성공하였고, 특히 1회분 암거래가격을 8~10만원대의 고가로 묶음으로서 마약류 불법남용 확산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5. 중점 대처가 필요한 예상동향

(1) 불법체류 외국인의 마약류범죄 개입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본국 마약조직과 연계, 마약류범죄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마약류범죄 개입을 초기에 제압하지 못할 경우 상당수 외국의 예에서 보듯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본국과 우리나라 마약조직과 연계되어 폭넓은 활동을 벌일 경우 국내 마약상황은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

(2) 조직폭력의 마약류거래 개입

우리나라의 조직폭력은 전통적으로 마약류거래를 자금원으로 삼지 않는 관행을 지녀왔는데, 이는 수십년간에 걸쳐 검찰을 비롯한 정부 유관기관의 철저하고도 강력한 억제정책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조직은 조직의 유지·운영상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최대한도의 이익확보가 조직의 목적이므로 우리나라의 조직폭력도 마약류시장에 개입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국의 마약조직이 침투하거나 국내 폭력조직과 연계할 경우 그 위험성은 극히 심각하여 통상적인 치안력만으로는 정면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미성년자의 마약류 사용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마약류범죄 현황은 외국에 비교하면 아주 양호한 상태인 바, 미성년자의 마약류사범은 94년도 134명에서 99년도에는 50명으로 62.7%나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물질주의 및 향락·퇴폐풍조 심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한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상실과 IMF 경제난으로 인한 가정파탄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의 가출과 비행이 계속 증가하고, 또한 이들을 이용한 윤락이나 유흥업소 경영 등 불법영업이 확산되고 있어, 미성년자들의 마약류 사용 및 판매종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일 청소년들에 의한 마약류범죄가 계속 확산될 경우, 이는 곧 그 사회나 국가 전체가 마약류로 병들어 있다는 심각한 징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마약류 사범에 대한 대책

1. 마약류 사범에 대한 대책 개관

마약류 사범에 대한 검찰의 대책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각 유관부처가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마약류 퇴치정책을 골간으로 하되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동향을 감안,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종합하여 최종 목표와 4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기본구도는,

① 마약류 공급 강력 차단

② 마약류 수요 철저 감축

③ 범국민적 협조체제 구축

④ 국제적 협력체제 강화 등

4대 목표의 유기적이고도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마약류 없는 사회건설」및「국제적 마약퇴치·협력 모범국가」라는 최종 목표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립되는 이 대책은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이자 장기적, 단계적 대책으로서 마약류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조화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마약류 퇴치업무에 종사하는 관련부처는 이 대책과 관련하여 치밀하고도 효율적인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철저히 시행함으로서 대책의 실천에 앞장섬과 동시에 공공의 경각심을 일깨워 범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주민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대책 목표

본 대책은 범국가적인 장기적, 종합적 대책으로서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사회를 마약류없는 건강한 사회, 마약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회, 마약류퇴치에 성공한 모범적인 국가를 기필코 이룩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대책목표로 첫째, 마약류 공급 강력차단 둘째, 마약류 수요 철저감축 셋째, 범국민적 협조체제 구축 넷째, 국제적 공조 협력체제 강화를 설정하였다.

대책목표 1. 마약류 공급 강력차단

마약류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양대 대책목표는 공급차단과 수요감축이라 하겠다. 그 중에서도 마약류 밀제조, 불법유통 등 공급을 국제적 범죄조직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각국 정부는 마약류 공급차단에 고도의 관심을 기울이고 우선적 정책목표 중 하나로 삼아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한 강력한 척결노력에서 성공을 거둔 값진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이행방안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서 마약류 공급을 강력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책목표 2. 마약류 수요 철저 감축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마약류퇴치를 위해서는 마약류 공급차단 못지않게 마약류에 대한 수요를 철저히 감축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마약류 수요억제정책에 주력하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을 통한 건

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마약류남용을 차단하는데 전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마약류에 대한 범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국민적인 관심과 신고정신을 제고하는 등 자발적인 주민협조체제 구축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대책목표 3. 마약류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 제고

마약류퇴치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마약류의 해악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진정한 관심과 올바른 이해를 갖는 동시에 주변의 마약류사범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신고정신을 갖추는 등 범국민적인 협조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부기관·사회단체·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마약류퇴치운동을 범국민적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책목표 4. 국제적 정보교환·공조 등 협력체제 강화

마약류문제는 이미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국가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는 깊은 인식하에 보다 긴밀한 국제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대처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국가간 신속한 정보교환과 폭넓은 수사공조를 포함한 적극적인 지역간 협력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결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유엔마약통제본부 등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협력과 기여를 통해 마약퇴치를 위한 모범적인 협력국가로서의 우리 정부의 의지와 활동상황을 적극 홍보한다.

5. 단계별 추진목표

목표 이행을 통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시한별, 단계별 추진목표는, 아래와 같이 3단계를 설정하였다.

1단계 : 마약류사범 철저 제압단계

2002년까지는 대책목표 및 세부이행방안에 관련된 법적장치, 관련 프로그램 마련을 완료·시행함으로써 마약류사범을 3,000명 이내로 감소시키는 한편, 밀제조 행위의 완전근절, 밀수·밀매행위의 현저한 감소, 수요확산의 위축과 조직폭력의 마약류 개입 완전차단 및 청소년의 마약류남용 완전근절을 이룩한다.

2단계 : 마약류 초안전지대 달성단계

2005년까지는 마약류사범을 1,000명 이내로 억제하는 한편, 밀수·밀매 완전 근절접근, 수요감축의 현저한 성과거양 및 치료·재활제도의 극대화를 이룩한다.

3단계 : 마약류없는 사회 완성단계

2008년까지는, 마약류퇴치에 완전 성공한 국가로서의 위상을 견지하고, 국제적 자문과 지원활동을 통해 마약류 없는 지구촌 건설에 적극 기여한다.

Ⅳ. 종합적 추진방안

대책목표 1. 마약류 공급 강력차단

(1) 마약류공급사범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법집행

세부추진방안
○ 마약류 전문수사역량 강화 ○ 마약류 밀제조·밀매 등 유통행위 철저 근절 ○ 공·항만 감시체제 강화로 마약류 밀수차단 ○ 對한국 마약류 밀수출 국가와의 공조 강화 ○ 국내 유관기관간 공조 강화 ○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한 엄벌주의 정책 견지 및 재범차단 ○ 불법이익 등 몰수·추징 철저 이행으로 경제적 기반박탈

검찰, 경찰, 세관 등 단속기관에서는 수사체제를 강화, 재정비하여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전문적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전문 수사인력 양성과 첨단 추적수사장비 확보, 정보전산화 및 과학적인 감정·감식기법 개발 등을 통해 과학적 수사역량을 강화시켜 나간다.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국제공·항만에 설치된「검찰 마약수사분실」과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의 운영을 강화하고 유통조직 전반에 걸친 집요하고 철저한 정부수집과 추적수사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국내 밀제조와 밀매행위를 근절

한다. 또한 마약류 제조, 밀수 전과자 등에 대하여는 출입국을 포함한 철저한 동태감시를 통해 재범을 강력 차단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법적인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통제로 불법전용을 방지하는데 주력하며, 국가정보원은 국제적인 마약류범죄정보 특히 對한국 마약류 밀수출 관련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여 이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적극 지원한다.

지난 10년간 매월 1회 대검찰청 주관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마약류퇴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유관기관간 긴밀한 정보교환, 수사공조와 마약류 동향분석과 함께 범정부적인 마약퇴치 관련 의견조율 및 정책조율기능을 활성화한다.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하여는 중형을 구형하고 중형선고를 유도하는 한편, 교정당국과 협의하여 기시행 중인 마약류사범의 가석방대상 제외제도를 견지하는 등 엄벌주의 정책을 고수한다.

마약류범죄로 취득하거나 은닉한 불법이익을 철저히 추적하여 몰수·추징함으로서 마약류사범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고 재범의지를 강력히 억제한다. 이를 위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광범위한 보전절차를 적극 활용한다.

(2) 조직폭력의 마약류 거래개입 철저차단

세부추진방안
○ 조직폭력에 대한 동태감시 및 정보수집활동 강화 ○ 조직폭력의 마약류 유통개입 철저차단 ○ 조직폭력 수사시 마약류범죄 관련여부 철저 수사 ○ 외국 범죄조직과의 연계차단 강화 ○ 엄벌정책 견지 및 재범차단 ○ 자금원 차단 및 철저한 자금세탁행위 단속

조직폭력이 계속하여 마약류 거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기도를 초기에 분쇄할 수 있도록 철저한 동태감시와 강력한 단속 및 일벌백계식 엄벌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특히 검찰의 「마약전담수사반」과 「조직폭력전담수사반」의 유기적인 공조와 함께 경찰의 조직폭력배에 대한 일대일 동태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조직폭력이 전국적인 조직으로 강화되기 전에 전반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다양한 자금원을 철저히 봉쇄함으로써 조직폭력의 전면적 와해에 주력하는 한편, 총기류 소지 및 유통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조직폭력이 총기로 무장하거나 총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강력하게 억제한다.

마약류범죄에 개입할 우려가 있는 조직폭력배의 입출국 동향 및 외국 범죄조직원과의 접촉 등 연계기도에 대하여 철저한 정보수집 과 단속활동 및 국제공조활동을 전개한다.

조직폭력배 수사시 마약류범죄 관련여부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병행하고 조직폭력배의 마약류범죄에 대하여는 통상의 경우보다 엄벌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한편,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가석방 대상에서 계속 제외함으로써 재범방지에 전력한다.

대책목표 2. 마약류 수요 철저 감축

(1) 청소년 상대 마약류 침투 방지

세부추진방안
○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의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교육활동강화 ○ 언론계, 체육계, 연예계 및 유흥업계와의 협조로 청소년들의 마약류불법사용 방지 적극 홍보 ○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소년범 수용시설에서의 예방 및 재범방지교육 강화 ○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류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엄단

청소년의 마약류남용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가정적,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며 종국에는 국가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이들의 마약류 남용은 상당수 친구의 권유 등 사소한 동기, 마약류 폐해에 대한 무지 및 건전한 가정의 파괴, 기성세대의 무관심과 방치 등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정부 유관부처에서는 올바른 학교·사회교육 및 홍보·계몽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게 하는 한편 청소년들에 의한 청소년 약물남용방지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이들의 실천의식을 고취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예방·홍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시행하고, 전문상담가 및 교육자 양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청소년에게 영향력 있는 언론계, 체육계, 연예계와 협조하여 마약류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마약류 취약지대인 유흥업소 업주들로 하여금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퇴치 예방·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하는 한편,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소년범 수용시설에서의 마약류 오·남용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강화한다.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교부하거나 사용을 권유 또는 강요하는 사범에 대하여는 성인을 상대로 한 마약류사범보다 가중 처벌하는 엄단정책을 견지한다.

이 경우에도 마약류를 사용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전과관계, 범행동기,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급적 형사처벌 대신 치료·재활 등에 중점을 두고 탄력적인 사법처리를 한다.

(2) 범정부적, 종합적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정책 추진

세부추진방안
○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 등 개발, 시행 ○ 본드, 신나 등 유해화학물질사범 특히 청소년사범에 대한 국가적 치료·치료·재활 제도 시행 ○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탄력적인 사법처리 ○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및 치료보호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사회복귀 지원, 중증 상습중독자는 치료감호 엄정 적용 ○ 교정시설에서의 마약류 남용예방 및 재범방지교육 강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에서는 관련 전문가들과 협조하여 마약류 중독자 전문 치료·재활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발 등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주로 남용하고 있는 본드, 신나, 부탄가스 등 유해환각물질 사용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치료·재활장치를 조속히 갖추도록 적극 추진하며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상담활동을 적극 장려·지원한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는 환자로서의 측면과 범죄자로서의 측면을 함께 고려한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처벌보다는 치료·재활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유보 내지는 면제하고 치료를 우선하도록 탄력적인 사법처리를 한다.

이 경우 불입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및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중독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중증 상습 중독자는 치료감호를 엄정 적용한다.

교정시설에서도 교육형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재소자들을 상대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범방지 특별교육을 강화한다.

대책목표 3. 마약류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 제고

(1) 마약류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제고

세부추진방안
○ 민간 사회단체, 사회 지도층 및 언론의 마약류 퇴치운동 장려, 지원 및 활성화 유도 ○ 마약류를 거부하는 사회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적극 단속

민간부문이 중심이 되는 예방, 홍보·계몽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마약류퇴치운동본부를 비롯한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지도층 인사 및 언론기관이 적극 동참하여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장려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물질만능, 향락·퇴폐풍조와 이를 조장하는 불법 유

흥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정화운동을 펼쳐 나간다.

(2) 범국민적 신고·협조체제 구축

세부추진방안
○ 주민자진신고 등 자율협조체제 구축 강화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제도 및 철저한 신변보장책 시행

마약류사범 신고·상담전화 및 마약류사범 신고자 보상금제도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여 주민자진신고·체제를 강화한다.

매년 6월 한달간 실시하는 “마약류 불법 사용자 자수기간” 운영을 활성화하며, 마약류 중독자 본인은 물론, 가족·보호자·교사·의료인 등의 대리신고를 적극 장려하는 한편, 자수자 및 자진 입원치료자들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대책목표 4. 국제적 정보교환·공조 등 협력체제 강화

(1) 국제공조 등 협력체제 구축

세부추진방안
○ 외국 유관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 등 국제협력체제 구축 강화 ○ ADLOMICO 운영 내실화 등 지역간협력활동(sub-regional-cooperation) 강화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이 국내유통 마약류의 중심이 되고 있는 국제적 마약류 유통의 경유지화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공·항만의 효율적 감시 및 단속활동과 더불어 관련국가, 관련기관과 긴밀한 국제공조체계를 갖추어 신속한 정보교환 및 폭넓은 공조수사 등 협력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시된다.

따라서, 미국의 마약청과 세관, 중국의 공안과 세관, 일본의 경찰, 세관 및 해상보안청 그리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러시아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지역간 협력체제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

대검찰청이 89년에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ADLOMICO 국제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지역간 협력체제를 굳건히 함과 동시에 국제적 마약류 불법유통 퇴치에 가일층 노력해 나간다.

(2) 국제협약·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활동 강화 및 홍보

세부추진방안
○ '88유엔마약협약 등 국제마약관련 협약, 국제기구 결의안 등 철저 준수 ○ 유엔마약통제본부(UNDCP) 등 국제마약기구와의 공조강화 및 활동지원 ○ 유엔마약위원회(UNCND) 등 국제회의 적극 참여 및 기여 ○ 우리나라의 마약류 퇴치활동과 국제협력의지를 적극 홍보

'88유엔마약협약을 비롯한 국제마약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아울러 유엔마약위원회 회원국으로서 동 협약과 국제기구의 각종 결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유엔마약통제본부 등 국제기구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협력하며 유관국가간 범죄인도조약,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등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체결을 통한 국제협력체제 구축을 강화한다.

유엔마약위원회, 아·태지역마약범집행기관장회의 등 국제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적극 기여해 나감으로서 우리 정부의 마약퇴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노력을 재천명한다.

이를 통해 마약류퇴치에 성공한 모범적인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계속 제고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다.

Ⅴ. 결어

본 대책은 정부기관·시민단체·언론 등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마약류퇴치를 위해 노력해 온 소중한 경험과 방안들을 기초로 향후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할 예상동향을 감안하여 우리사회를 마약류 없는 건강한 사회로 만들고 나아가 마약류 없는 지구를 이룩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과 책무를 다하기 위한 기본 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청사진을 막 완성한 단계에 불과하며 지금부터는 이 청사진을 기초로「마약류퇴치에 완전히 성공한 나라」라는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건축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의 헌신적이고 굳은 의지와 노력, 우수한 품질의 건축자재와 건축기술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완성될 건축물에서 살아나갈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라 하겠다.

우리 국민 모두가 벽돌 한 조각, 못 한 개씩 마련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건축과정에 참여한다면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건물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하게 될 것이며 이는 21세기 인류사에 빛나는 구조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마약류 사범의 동향과 대책

강 여 찬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1. 개요

○국내 마약류사범은 50-60년대에는 아편이, 70년대에는 대마초, 80년대 이후에는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이 주종을 이룸

○87년 이전까지는 연간 1,000여명 전후에 불과하던 히로뽕사범이 88년에 이르러 무려 3,320명까지 급증한 한편,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살인, 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됨

○정부에서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89. 2. 13. 대검찰청에 마약과를 신설, 강력한 단속 및 예방·홍보활동 전개

○그 결과 히로뽕 밀제조사범 등 공급조직을 거의 근절시키고 국내 유통물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킴으로서 국내적으로는 중증 마약류중독자 및 이로 인한 강력환각범죄의 발생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국으로부터 마약류 밀반입이 지속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마약류 불법유통은 여전히 마약범죄조직이 장악한 채 국경과 법제도를 초월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활동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으므로 방심할 경우 우리나라는 국제 마약류 유통시장의 목표가 되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음

2. 단속실적

○90년부터 99년까지 단속한 마약류사범 수는 총 59,144명으로 이전 10년간(80년부터 89년까지) 단속사범수 17,437명에 비해 무려 239.2% 급증

○마약류사범 단속자 수가 급증한 이유는 마약류사범의 지역적·계층적 확산에 따른 자연적 요인도 일부 있으나, 마약류사범의 은밀화·비노출 범죄화·지능화·점조직화 속성에 비추어 검찰을 비롯한 단속기관의 헌신적인 퇴치의지를 바탕으로 폭넓은 정보수집과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단속활동, 특히 마약류공급 및 수요조직 상·하선 전반에 걸친 집요한 공범 추적수사 및 성공적인 위장거래수사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단속된 사범 숫자가 양적으로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질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히로뽕 밀제조사범은 검찰의 고급조직 위주의 강력한 단속결과 거의 와해되었으며, 96년에 이어 97년에도 밀제조 사례가 각 2건 적발되었으나 제조규모는 이전에 비해 현저히 축소되었고, 98년에는 전무하였다가, 99년에 다시 2건이 적발됨

3. 마약류별 실태

(1) 히로뽕

○우리나라의 중심 마약류임(전체 마약류사범의 70% 차지)

○ 89년 이후 검찰에 적발된 히로뽕 원료인 염산에페드린 밀수입 총량은 2,749.8kg, 히로뽕 밀제조 총량은 1,087kg에 이르고 있으며, 92년 이래 염산에페드린의 국내 밀반입량 및 압수량은 매년 약 100kg 내지 350kg 상당이었으나 96년에는 70kg으로 현저한 감소추세를 보임

(2) 대마

○히로뽕 등 주종 마약류의 대체 마약으로 남용되어 옴

○대마사범은 그동안 증가와 감소세를 반복하다가 99년에 전년대비 36.2% 대폭 증가하여 전체 마약류 사범의 20.7%를 점유하고 있고, 섬유생산용 합법적 대마재배의 일부 유출과 일부 자생 대마의 흡연사범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음

○최근 외국에서 밀반입한 해쉬쉬 등 대마사범도 증가하는 실정임

(3) 생아편

○50-60년대에 생아편의 남용이 큰 사회문제화 되었다가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거의 사라졌으나, 80년대말부터 한·중 교류의 증가에 따라 중국 교포들에 의한 한약재 반입을 위장한 생아편 밀반입이 주류를 이룸

○98년 이후에는 내국인에 의한 생아편 밀반입 사례가 3건 발생하여 2.3kg 압수

○국내 앵속(양귀비)재배사범은 주로 농촌이나 산간 지역에서 상비약 등의 목적으로 소규모 재배되고 있으나 단속, 계몽활동으로 최근 동 사범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임

(4) 헤로인

○70년대 초기에는 매년 적지 않은 양의 헤로인이 압수되고 상당수 국내 사용자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내 사용사범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밀반입사례 대부분은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이용하는 것임

○그동안 태국으로부터 주로 밀반입되었으나, 최근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등으로부터도 밀반입되고 있으며, 98년에는 중국으로부터도 밀반입되어 루트가 점차 국

제화·다변화되는 현상을 보임

(5) 코카인

○ 공식적으로 90년에 처음으로 코카인사범이 검거됨

○ 코카인 압수량은 91년 2건, 0.14kg이었다가 98년 5건, 2.08kg, 99년 3건, 2.25kg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임

4. 마약류 암거래 가격

○ 히로뽕의 g당 소매가격은 89년에 15만원대에서 그 동안 꾸준히 상승하여 93년도 말에는 250만원대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94년부터 220만원대로 하락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95년에도 이어져 전년대비 13.6% 하락한 190만원대 수준으로 거래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가격하락으로 99년에는 58만원대까지 하락하였음

○ 마약류 암거래 가격하락 추세와 최근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내 밀매사범들의 판로확충 노력이 한결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마약류 판매방식이 특정 소수의 단골고객 상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고객 상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중점 대처가 필요한 예상동향

(1) 불법체류 외국인의 마약류범죄 개입

○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국내 불법 외국인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본국 마약조직과 연계, 마약류범죄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초기에 제압할 필요성 있음

(2) 조직폭력의 마약류거래 개입

○ 우리나라 조직폭력은 전통적으로 마약류거래를 자금원으로 삼지 않는 관행을 지녀왔으나 최근 조직의 유지, 운영상 많은 자금이 필요하므로 우리나라 조직폭력도 마약류시장에 개입할 개연성 있음

(3) 미성년자의 마약류 사용

○ 우리나라 미성년자 마약류범죄 현황은 외국과 비교하면 아주 양호한 상태인 바, 미성년자 마약류사범은 94년 134명에서 99년에는 50명으로 62.7%나 대폭 감소하였음

○그러나 최근 물질주의 및 향락, 퇴폐풍조 심화, 입시위주 교육제도로 인한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상실 등으로 미성년자들의 가출과 비행이 계속 증가하고, 또한 이들을 이용한 윤락이나 유흥업소 경영 등 불법영업이 확산되고 있어, 미성년자들의 마약류 사용 및 판매종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6. 대책

(1) 마약류 공급 강력차단

○마약류 전문수사역량 강화
○마약류 밀제조, 밀매 등 유통행위 근절
○공·항만 감시체제 강화로 마약류 밀수 차단
○대한국 마약류 밀수출국가와의 공조강화
○국내 유관기관간의 공조강화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한 엄벌주의 정책 견지 및 재범 차단
○불법이익 등 몰수·추징 철저로 경제적 기반 박탈
○조직폭력의 마약류 유통개입

(2) 마약류 수요 철저 감축

○청소년 상대 마약류 침투방지
-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한국마약류퇴치운동본부 등의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교육활동 강화
- 언론계, 체육계, 연예계 및 유흥업계와의 협조로 청소년들의 마약류 불법사용 방지 적극 홍보
-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소년범 수용시설에서의 예방 및 재범방지교육 강화
-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류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엄단

○범정부적, 종합적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정책 추진

(3) 마약류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제고

○마약류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범국민적 신고·협조체제 구축

(4) 국제적 정보교환·공조 등 협력체제 강화

○국제공조 등 협력체제 구축
○국제협약·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활동 강화 및 홍보

마약류 사범의 동향과 대책

심 재 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Ⅰ. 머리말

◦ 99년 국내 마약류 사범은 10,589명이 검거되어, 최초로 1만명을 돌파.
5년전인 94년과 비교할 때 95.4%나 증가된 수치로서, 매년 18.3%의 평균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마약사범류사범이 이렇게 증가한 원인은,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효과적인 단속활동에도 기인한다고 하겠으나, 마약류의 시세하락으로 인한 저변의 확대, 수사기관의 처벌만능 위주의 단속정책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임.

◦ 이러한 점에서 검찰 등 유관기관은 「마약없는 사회건설」을 위하여 처벌위주의 단속방식을 지양하고, 예방, 단속, 치료, 재활을 병행하여 가는 종합정책으로 전환시행하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됨.

Ⅱ. 마약류사범의 현황

1. 국내적 현황

1) 개괄적 현황

◦ 99년도 우리나라의 마약지수(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의 수)는 23을 기록.
- 이는 98년도 미국의 576, 영국의 220, 태국의 161, 말레이시아의 69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중국의 18, 일본의 14와 비교할 때에는 비교적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사용자까지 처벌하는 반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단순사용자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마약지수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상황이 아님.

◦ 유엔마약인권위원회(UNCND) 등에서는 우리나라를 '성공한 마약안전지대'라고까지 평가한 바 있음.

◦ 그러나 마약류범죄의 국제화 추세,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위와 같은 국내 마약류사범의 증가로 인한 그 수요 증대 등으로 인해 국내 마약류 확산가능성은 상존.

2) 마약류의 종류별 현황분석

종류 / 년도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계
1997	1,201 (17.3%)	1,301 (18.7%)	4,445 (63.9%)	6,947 (100%)
1998	892 (10.7%)	1,606 (19.2%)	5,852 (70.1%)	8,350 (100%)
1999	923 (8.7%)	2,187 (20.7%)	7,479 (70.6%)	10,589 (100%)

◦ 향정사범의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
- 이는 메스암페타민의 가격하락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메스암페타민의 거래 시세 변화 (1회 사용분 0.03그램 소매가격 기준)

년도 / 지역	1996. 12	1997. 12	1998. 12	2000. 5
서 울	10만원	15만원	9만원	8만원
부 산	15만원	13만원	8만원	7만원

3) 범죄유형별 현황분석

◦ 99년도 현재 밀수사범 110명, 밀매사범 1,127명 사용사범 7,321명으로, 단속인원의 69.1%가 단순사용사범임.
◦ 그러나 공급사범도 11.7%의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음.

4) 마약류사범의 직업별 현황분석

직업 / 년도	무직	상업	향락 업종	단순 노동	사무직	제조업	운전업	주부	연예인
1997	2,424	598	623	367	269	151	113	54	21
1998	3,467	726	728	298	268	142	125	55	38
1999	4,370	823	1,015	232	381	158	192	87	48

◦ 무직과 향락업종종사자의 점유비율이 늘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사무직, 주부, 상업 등의 점유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5) 마약류사범의 연령별 현황 분석

연령 / 년도	15-19	20-29	30-39	40-49	50-59	60이상	미상	계
1997	67 (1.0%)	1,533 (22.1%)	2,507 (36.1%)	1,238 (17.8%)	500 (5.9%)	813 (11.7%)	289 (4.1%)	6,947 (100%)
1998	77 (0.9%)	1,936 (23.2%)	3,270 (39.2%)	1,667 (19.9%)	516 (6.2%)	509 (6.1%)	375 (4.5%)	8,350 (100%)
1999	50 (0.5%)	2,032 (19.2%)	4,260 (40.2%)	2,466 (23.3%)	622 (7.2%)	662 (6.2%)	497 (4.7%)	10,589 (100%)

◦ 10대, 20대의 점유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 특히 15세 미만의 마약사범은 아직 1명도 발견된 바 없음.

6) 압수된 마약류 현황분석

◦ 99년도 마약류 압수물 내용을 분석하면, 메스암페타민 29,234g, 해쉬쉬 1,963g, 대마초 3,269g, 생아편 3,065g, 코카인 2,251g, 헤로인 343g 등으로 구성됨.
◦ 아직까지는 메스암페타민이 사용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거래가격도 하락추세임.
◦ 그러나 최근에는 야바(98년 태국 여행객이 처음 반입), 엑스터시(99년 국내 여행객이 태국에서 처음 반입), LSD 등 비교적 저렴하고 경구투약 방식의 사용이 간편한 신종마약이 급증하고 있어, 사용이 불편한 주사방식의 메스암페타민이 밀려날 가능성도 있음.

7) 재범 현황 분석

재범 / 년도	전체 사범	재범 인원	재범율(%)
1996	6,189	1,121	18.1
1997	6,947	1,328	19.1
1998	8,320	2,204	26.4
1999	10,589	2,951	27.9

◦ 계속적으로 재범율은 증가추세.

◦ 마약, 대마, 향정사범 중 향정사범이 가장 재범율이 높게 나타남.
(99년도의 경우 마약사범은 1.7%, 대마사범은 23.0%, 향정사범은 32.5%로 재범율을 보임)

2. 국외적 현황

1) 생산기지 및 유통경로의 다변화

◦ 국내 마약류 밀조사범에 대한 강력한 소탕으로 98년 이후에는 국내 필로폰 밀조사범이 급감하고 대신 외국으로부터의 필로폰 밀반입량 증가.

◦ 종래 아시아 지역 마약의 종주국, 원산지로는 태국이 손꼽혀 왔으나, 현재는 중국, 필리핀 그리고 북한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그 중심지역도 동남아권에서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전되는 경향을 보임.

◦ 전년도 메스암페타민 밀반입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중국이 17건 20,916g, 일본이 7건 827g, 필리핀이 6건 666.7g, 홍콩 2건 3,165g, 대만 2건 89g 등으로 나타남.

◦ 특히 중국은 메스암페타민 외에 헤로인 2건 100g, 생아판 3건 3,770g이 각 밀반입된 것으로 적발되는 등 모든 마약류의 주 수입처로 파악되고 있음.

2) 국제 폭력조직과의 연계 문제

◦ 1999. 4경 국내 폭력조직 「신상사 파」 조직원과 일본 야쿠자 「쓰미요시 파」 조직이 연계, 북한산 추정 메스암페타민 100Kg을 북한 홍남항에서 선적, 한국 묵호항을 경유 일본으로 밀수출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음(서울지검).

◦ 외국에 비하여 아직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나, 국내폭력조직과 외국 폭력조직이 연계하여 마약이 폭력조직의 자금원할 가능성이 늘 상존.

3)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증가.

◦ 99년도에 60명으로, 98년의 28명에 비하여 대폭 증가.
◦ 중국, 러시아 국적이 각 17명(각 28.4%), 필리핀 국적이 15명(25%)으로 분석됨.

Ⅲ. 마약류사범의 대책

1. 마약수사체제의 정비

1) 전문 마약수사반의 설치

◦ 95. 10부터 검찰 내 마약수사직렬을 신설하고,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직원을 확보, 전담체제 확립.
◦ 전국 13개 지검과 17개 지청에 마약수사반을 설치.
(전담 검사 63명, 마약수사직 233명)
- 전국 규모의 마약류 종합수사 지휘부로서 대검찰청에 '마약수사부'를 신설 운영할 예정임.
◦ 김포공항 등 4개 공항과 부산항 등 4개 항만에 '공·항만 마약수사분실'을 설치, 운영.

2) 과학수사체제 확립

◦ 대검찰청에 마약감식실을 개설. 소변, 모발, 압수된 마약류 등의 감정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고 있는 중임.
◦ 서울지검 등 7개 지검에 마약류사범에 대한 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며, 수사효율을 극대화.
◦ 차량추적장비, 휴대용 마약탐지기 등 첨단 수사장비를 확충.

2. 국내외 공조·협조체제 구성

1) 국내 협조체제

◦ '국가마약류 대책위원회' 설치 추진.
  -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종합대책 수립 시행 도모.
  -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련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편성.
  - 대검 강력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
◦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청, 관세청, 청소년보호위원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성.

2) 국제 협조체제

◦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의 창설.
  - 89년 창설이래 미국, 일본 등 13개 회원국과 유엔마약통제본부(UNDCP), 인터폴 관계관 참석하에 연1회 회의 개최.
  - 각국의 마약범죄 관련 정보 교환.
◦ '한일 마약대책회의' 개최.
  - 83년부터 양국의 검찰, 경찰, 세관내 마약관련 담당관이 참가하여 회를 구성.
◦ 기타 유엔마약위원회(UNCND), 아태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
  (HONLEA), 약물 단속회의(ADEC) 등 각종 국제회의 참가를 통해 국제협력활동 전개.

3. 예방활동의 전개

1) 대국민 홍보 활동

◦ '127 마약신고전화'운영.
  - 국민자진신고체제를 확립함과 아울러 신고전화운영에 대한 홍보로 마약류범죄 예방에도 도움.
◦ 신고, 제보자에 대한 마약류 보상금 지급제도 시행.
  - 99년도 총 1억 8,688만원 상당 지급.
  - 법령의 개정으로 수혜자 폭을 확대.
◦ 취약계층 중심의 집중적 예방교육 실시 추진.

2) 단속기관,예방활동단체와의 협조체제 강화.

◦ 보호관찰 마약사범에 대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적극 집행으로 재범방지 노력.
◦ 보호관찰 공무원에 대한 약물중독자 치료, 상담과정 교육강화.

4. 마약류사범의 치료·재활 지원

◦ 현재 국립 부곡정신병원 부설 마약류중독진료소를 비롯,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22개 전문치료기관이 있으나, 전문의 부족, 중독자 호송보호체제 미비 등 미흡한 부분이 산재.
◦ 교정시설내 마약류중독치료 전문의 확보 계획.

Ⅴ. 결 론

◦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처벌위주의 정책만으로는 한계.
◦ 결국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개발, 이에 필요한 인력확충 등 병행되어야 할 것.
◦ 정부기관과 민간단체간의 꾸준한 협력이 가장 절실히 요구됨.

학생 약물남용 예방 지도교사의 역할과 자세

정 하 배

교육부 학교정책과 장학관

1. 머리말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과 행동 차원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약물의 폐해가 생리적으로 작용하여 중독이라는 심각한 질병에 이를 수 있는 특수한 문제이므로 학교의 교사가 개입할 수 있는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다.

약물은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중독으로 진전되며,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장기적 치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다. 따라서 학교 교사는 청소년의 약물 사용의 원인, 약물 사용의 단계, 약물 사용자의 징후와 특성 등을 정확히 알고 체계적인 약물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물 예방교육 프로그램에는 약물 사용의 의미, 약물의 폐해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뿐만 아니라 약물의 사용이 인간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신체 및 정신 건강, 질병 예방 및 관리 등과 같은 내용까지 다룸으로서 약물 남용과 인간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도록 도와 줘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약물 남용의 실태와 원인

약물 남용 실태에 관하여 전문가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남용하는 약물이 술, 담배 이외에 각성제, 신경안정제·수면제, 흡입제, 진해 거담제의 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각성제와 수면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입시제도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연관지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자 중 술(72%), 담배(27%), 진해제(14%), 각성제(11%), 수면제(6%)의 순으로 경험하였다고 조사되고 있어 술, 담배 사용에 비해 기타 약물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약물 남용의 습관은 한번 시작되면 좀처럼 중단하기 어렵고, 신체 뿐 아니라 정신적 파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청소년기처럼 또래의 영향이 큰 시기에는 전파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현재의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상황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① 청소년기의 개인적 특성인 감정 조절 능력 부족, 자기애적 보호심리, 융통성 부족, 미숙한 방어 능력 등 자기 조절력의 미숙과 약물남용의 위험성 무시, 부정적 사고와 같은 현실 판단력의 결여 등이 주요 원인이 된다. 또한 우울증, 품행장애, 주의 결핍, 과잉행동, 불안 등과 같은 심리장애가 요인이 되기도 한다.
② 청소년이 속한 주변 집단의 인간관계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즉 가정의 경우 약물을 남용하는 가족 구성원, 대인관계의 폭이 좁은 가족, 서로의 정서적 상태에 무관

심하거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가정 분위기일 때 약물 남용의 위험이 높다.

또 친구의 경우 약물을 사용하는 친구가 있거나 정상적인 친구들로부터 고립되는 상황, 그리고 학교에 일탈적인 친구들이 많거나 적응 실패 등을 경험할 때 약물 남용을 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의 여건이다. 놀이 공간 부족, 약물 사용을 조장하는 대중매체의 영향, 약물 구입의 용이성 등이다.

3. 약물 사용·중독의 단계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약물사용의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실험적 사용 : 가까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호기심과 권유로 처음 사용하게 되는 단계이다. 모험과 재미, 약간의 저항감을 포함한 호기심이 작용한다.

② 사회·오락적 사용 : 기분을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단계이다. 아직은 가끔 사용하면서 오락적 요소가 강한 단계로, 약물로 기분을 좋게 바꿀 수 있다고 여기며, 약물 사용에 따른 심각한 폐해를 입을 수 있다고는 전혀 느끼지 않는 상태이다.

③ 상황적 사용 : 특정 상황에서 정서적 또는 정신적 자극이 필요해서 정기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며, 스스로도 약물에 의지하고 있다고 자각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④ 습관적 사용 : 약물을 상용하는 단계이다. 일상 문제나 스트레스, 기분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용하며, 약물사용이 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⑤ 강박적 사용 : 생활에서 약물을 구하고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정신적·사회적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더 이상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단계이다.

4. 약물 남용자의 징후와 특성

학생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징후들이 관찰되면 일단 약물 사용자로 진단할 수 있다.

① 함께 노는 친구들에 대해 뭔가 감추고 비밀이 있는 것 같다.

② 어울리는 친구나 선후배들 가운데 자취하거나 빈집에서 혼자 지내는 사람이 있어 그 집에 가서 지내는 일이 많다.

③ 늦게 귀가하거나 부모 또는 선생님과 마주칠 때 시선을 피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④ 가방에서 본드가 묻은 비닐 봉지가 발견되었다.

⑤ 검은 눈동자가 동그랗게 커져 있거나 작아져서 풀려 있다.

학생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면 약물 남용자로 판단할 수 있다.

① 용모가 단정치 못하고 개인 위생이 불결해 진다.

② 주의집중 지속시간이 짧아지고 집중에 어려움을 느낀다.

③ 호흡기 질환이 자주 발생하고, 눈의 초점이 흐려지고 항상 충혈이 되어 있으며, 말소리가 흐려진다.

④ 신체 부위간 기능의 협력과 응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생각에 일관성이 없어진다.

⑤ 결석이 잦아지고, 거짓말, 훔치기, 속이기, 감추기 등이 습관적으로 나타난다.

⑥ 취미나 과외 활동에 흥미를 잃는다.

⑦ 성취동기가 떨어지고, 자기관리가 소홀해 진다.

⑧ 뚜렷한 이유 없이 돈이나 소지품을 잃어버린다.

⑨ 성적이 평소 수준보다 형편없이 떨어진다.

약물 남용으로 인한 질병으로는 단기적으로 두통, 오심, 구토, 경련, 가슴통증, 호흡곤란, 환각, 청각장애, 안구의 빠른 운동, 과다한 타액 분비 등이 올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재생 불량성 빈혈, 간과 신장에 독성 유발, 신경 정신계의 손상, 기억·판단력의 감퇴, 생식능력의 저하, 심지어는 급성 심부전, 질식, 기도 부종, 폐수종, 후두경련 등으로 사망이 유발될 수도 있다.

5. 학교 지도교사의 역할과 자세

상담교사는 우선적으로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약물 학생들을 조기에 찾아내고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정도가 심한 학생은 지역사회 기관에서 운영하는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에 의뢰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학생과 상담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하여야 한다.

① 지도교사는 약물사용 학생과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대체로 약물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심한 갈등과 거부감을 경험한다. 다른 사람과 안정되고 신뢰로운 관계를 맺고 원만하게 대인관계를 맺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② 지도교사는 학생을 존중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표현함으로서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이 진실되고 따뜻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약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진지하게 할 수 있다.

③ 학생이 사용하는 약물에 대하여 자세히 묻고, 약물의 유해 정도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약물 사용의 심각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 약물, 사용 시간, 사용 횟수, 약물 사용 단계 등을 알아봐야 한다.

④ 약물 사용 중단을 위해 대안적 행동·방법 등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약물 사용 단계별로 차별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⑤ 유해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약물 남용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약물 남용 중증에 대하여는 전문 치료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⑥ 학생의 약물 남용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학생 개인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그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약물남용을 조장하는 가정, 친구, 사회환경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사법기관, 관련업체(약국, 유흥업소 등), 관련 전문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치관 명료화 과정
(Value Clarification Process)

김 세 호

이인자 심리상담 연구소 지도자

1. 가치의 개념 및 성격

개인의 인지 체계에서 가장 심층에 위치하면서, 어떤 특정 행동 양식이나 궁극적인 상태를 다른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으며, 일상 생활에서의 선택이나 의사 결정 시에 사용되는 판단의 준거가 되는 생각과 행동과 느낌간의 조화를 유지하게 하는 일관성 있고 통합된 신념체계이다.

2. 가치명료화

어떤 이는 사랑, 자유 등을 올바른 가치라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특정 종교나 정치적 신념이 옳은 가치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가치 교육 방식은 가르치는 사람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가치에만 초점을 맞출 뿐이지 정작 개인의 생각은 무시되기 쉽다.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거나, 일반적인 규칙이나 원칙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가치교육이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특정상황에서 각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나 자신의 가치로써 개개인의 가치관의 발달을 돕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Raths, Harmin, & Simon은(1978) 가치 지향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8가지 유형을 구분하였는데,

① 무관심한 사람
② 변덕스러운 사람
③ 극도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
④ 매우 일관성이 없는 사람
⑤ 방황하는 사람
⑥ 지나치게 순응하는 사람
⑦ 지나치게 반대하는 사람
⑧ 가식적인 사람 등이다.

따라서, 가치명료화의 목적은 사람들의 가치관 발달과정을 돕는 것으로, 각 사람들을 현재생활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현재의 사고(이성), 감정, 실제 행동을 더 적합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치명료화는 3가지 하위 목표를 둔다.

① 보다 많은 사실을 검토해 보고 선택하도록 한다.
② 그 사람이 존중하고 애착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인식하도록 한다.
③ 선택한 것과 그 선택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을 일상생활에서의 행동과 잘 통합하도록 한다.

지금까지의 가치명료화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Rath는 1960년에 학업성적이 부진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학업성적과 등수의 향상을 보였고, Lang은 1961년에 무관심하고 불평이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무관심, 불평 행동 빈도가 낮아졌으며, 약물 사용, 수업 태도, 사회적 적응, 대인 관계, 대인 가치, 동료와의 우애 증진에 효과가 있었다. 또한 강의나 토론식 수업과 가치명료화 과정을 이용하여 대인 가

치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연구한 결과, 가치명료화나 강의가 토론식 수업보다 대인가치의 동조성이나 인정성의 하위 영역에 변별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치 명료화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가 많이 있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치명료성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고(이인자, 1985), 학습동기, 학습 기술, 학업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조정현, 1986), 비행 학생 선도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폭력적 태도, 부정적 태도, 즉흥적 태도에서 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전병현 1995).

그 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 프로그램은 자아개념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이 밝혀졌다(박현선, 1933).

이러한 예를 볼 때, 이 가치명료화가 개인의 가치관 명료성과 자아개념, 대인 가치 발달, 학교에서의 학업 성취, 태도, 동기, 대인 관계, 사회 적응 면에서 많은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치명료화 과정

가치명료화 과정은 Dewey(1939), Alport(1955), Rogers(1961) 등에 의해 개발된 가치 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탐색하고, 내부통찰에 입각한 행동계획을 설정하도록 하는 학습과정이다. 이 이론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건설적이며, 인간의 행동은 과거 경험의 결과로 규정되므로 만일 학교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면 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가치는 바로 이러한 가치화 과정을 통한 내부 통찰에 의해서만 발견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Rath 등이 제안한 가치명료화 과정은 선택하기, 존중하기, 행동하기의 3가지 가치화 과정과 7가지 하위체계로 체계화하여 이 가치화 과정의 결과를 가치라 부른다. 즉, 가치는 어떤 특정 신념이나 문제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이 서로 일관성 있고 조화롭게 통합이 이루어질 때 형성되며, 이 7가지 하위체계를 다 만족시키지 않으면 가치라 부를 수 없다. 또, 목적, 포부, 태도, 관심, 감정, 믿음, 신념, 활동, 걱정 등과 같이 가치에 가까운 것을 '가치징표(values indicators)'라고 부르는데, 가치화 과정은 이 가치징표를 가치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치화 과정은 학생들이 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인 선택으로부터 개발하여 선택한 사람에 의해 존중되어야 하고, 선택의 결과가 분명하게 이해되었을 때, 선택한 사람에게 의미가 있고 행동화되어야 한다.

Rath가 제시한 가치명료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선택의 과정(Choosing): 인지적 측면
- **자유로운 선택**
- **여러가지 대안들 중에서 선택**
- **각 대안들의 결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후 선택**

2) 존중의 과정(Prizing): 정의적 측면
- **자신이 선택한 것을 자랑스럽고 소중히 여김**

·공적으로 기꺼이 확언

3) 행동의 과정(Acting): 행동적 측면

·선택한 가치에 따라 행동함

·반복해서 일관성 있게 생활양식으로 행동함.

이와 같은 3과정 7단계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을 가치라 부른다.

이어서 3과정을 자세히 풀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선택의 과정

매일 매순간마다 사람은 무엇을 해야할 지, 말아야할 지, 기다려야할 지, 뛰어들어야할 지, 또는 웃어 넘겨야할 지, 관심을 기울여야할 지를 결정해야 하고 선택해야 한다(이인자, 1997). 그 선택이 감언이설이나 강제적인 압력에 의한 것이거나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선택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가치관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가지 가능성 있는 대안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가치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며, 각 대안의 결과를 심사숙고해 본 후에 선택을 해야 충동적이고 경솔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즉, 선택의 과정에 의해서 형성된 가치관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선택은 자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자기가 한 선택을 의미있게 생각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성향을 갖게 된다.

2) 존중의 과정

정의적인 측면에 관한 영역으로서 자신이 심사숙고하여 자유롭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자랑스럽고 만족스럽게 여기고 자신이 선택한 것을 적절한 시기에 타인들 앞에서 기꺼이 발표할 수 있어야 하며,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내 놓을 수 있어야 한다.

가치있다고 선택한 바에 대해서 만족하고 좋게 여기며, 진실로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으로 문제 해결의 과정과 결과가 학습자의 내적 요소로 정착해 나감에 따라, 하나의 평가가 내면화되어, 그것이 자신의 실존과 통합된 일부로 생각하는 과정이다.

선택에 있어서 여지가 없이 불가피하게 된 선택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하게 되고, 또한 부끄러움이나 저항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자유롭게 다양한 가능성 속에서 심사숙고한 연후의 선택은 만족감을 주고 그 선택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만족감은 타인에게 공개적으로 확언하는 단계를 거친다. 선택하고 그 선택을 자랑스럽게 느낄 때, 그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있게 밝히고 싶어한다. 그것이 확언이다. 따라서 결과를 고려한 뒤에 자유롭게 선택했다면 공개적으로 확언할 수 있어야 하며, 떳떳이 밝힐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행동의 과정

가치를 갖게 되면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또는 행동에서 그 가치가 나타난다. 즉, 자신이 선택한 가치는 행동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가치 때문에 돈을 쓸 수도 있고 시간과 정력을 쏟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이인자, 1985).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반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단 한 번의 선택과 관련되는 몇 번의 행동만으로 어느 가치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고 옳다고 확인하고 판단하게 된 선택과 일관된 실천적 행동을 유사한 사태와 상황에서 계속 반복하여 나타나게 될 때, 초기에는 다소 막연한 기호, 흥미, 태도 등의 성향으로 형성되었던 것이 점차 가치관으로 굳어지게 되며, 이러한 지속적 반복을 통해서 그 가치관은 더욱 강화되고 감정, 인지, 행동간에 일관성과 통합성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4. 가치명료화 방법과 전략

1) 가치명료화의 방법: 기본규칙

첫째, 통과하기(passing)

집단원들은 항상 통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항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동시에 가진다. 이는 지도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통과하기의 권리는 집단원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지도자의 요구를 재해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지도자가 집단원들에게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 세 가지를 적으라고 했을 때, 집단원들은 아예 아무 것도 쓰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대로 한 가지나 네 가지 혹은 더 이상도 쓸 수 있다는 말이다. 통과할 권리가 있을 때 집단원들은 자유로움을 느끼고, 언제든지 싫을 때 싫다는 감정이 존중되어진다고 믿으면 안심을 하여, 오히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또한 여기서 사용하는 통과권을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하여 융통성을 발휘하게 된다.

둘째, 수용하기(accepting)

집단원들의 답변은 어떠한 것이라도 그 상황에서는 정답이며, 그 자체로 받아들여진다. 토론을 할 때나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대해 나누기를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가치 진술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유혹에 빠지곤 한다. 판단이나 평가를 받는 집단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누는데 강력한 억제요소로 작용한다. 내가 옳다는 말을 듣는 것조차도 내가 어떠한 판단을 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나의 가치 질문에 대해 칭찬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한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판단은 나 자신만이 내 가치들에 책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게 한다. 내 가치들이 판단 받았을 때, 나는 나를 위한 결정에 있어 판단자에게 의존하게 될 지도 모르며, 혹은 그 판단자에 대해 저항하게도 된다.

셋째, 참여하기(participating)

지도자는 집단의 한 멤버로서 모든 활동에 참여하며, 지도자의 참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① 지도자의 참여는 집단원들에게 가치관이 역동적이며 변화의 본질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해 준다.

② 지도자와 집단원들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줄여 준다.

③ 지도자도 대안 나누기의 한 부분으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④ 집단원들에게 지도자의 가치도 많은 대안들 중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

2) 가치명료화 전략

가치명료화 전략은 개인들이 가지는 목적 또는 목표나 포부, 태도, 관심, 감정, 믿음과 신념, 활동, 근심걱정, 문젯거리, 장애물 등에 대해 대화와 쓰기를 통한 활동과 나눔을 하도록 매개체 구실을 한다.

가. 명료화 반응

명료화 반응은 집단원들이 그들의 생각, 목표, 감정, 포부, 태도, 믿음 등을 명료화할 기회로 이용하기를 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집단원들의 마음에 의문을 불러 일으켜서 가치명료화의 7단계에 맞게 그들의 생활, 활동, 생각을 검토해 보도록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이 목적일 때 지도자가 나타내는 반응이다. 명료화 반응을 잘 하기 위하여 교화시키거나, 비판하거나, 가치를 부여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피하고 집단원들이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돌이켜 보고, 스스로 이것이 그가 원하는 식인지를 생각해 보고 결정하는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한다. 명료화 반응은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효과가 있으며,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무비판적인 태도를 보일 때 효과적이다.

나. 가치질문

가치질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견해, 태도, 신념, 느낌, 그리고 행동을 이해하게 해 준다. 가치질문은 될 수 있는 한 개방적이어야 하고, 비위협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왜'라고 하는 질문은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왜'로 시작되는 질문들은 방어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질문에 대해 통과할 권리와 어떤 대답도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무조건적이다.

다. 지금-여기 질문

지금 여기 질문은 개인의 상황, 느낌, 의향, 기타 여러가지 것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특별한 형식의 가치질문이다. 지금-여기 질문은 사용되고 있는 소재에 대해 집단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와 그룹의 숙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라. 미완성 문장

미완성 문장은 문장의 한 부분을 제공해 주고 집단원들이 적합한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문장의 일부분을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치질문의 대용으로 혹은 가치 질문에 부가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으며, 가능한 개방적이어야 하고 비위협적이어야 한다. 미완성 문장을 해 봄으로서 집단원들은 이제까지의 자신의 반응을 되돌아 볼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느낌을 확인하고 행동계획을 세움으로써 행동화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된다.

마. 연속선

연속선은 하나의 선의 양끝에 하나의 사실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 신념을 설정한다. 그리고 집단원들에게 선의 양쪽 끝 중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신념과 일치하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집단원들이 중간 위치를 선택하지 말고 양극단 중 어느 한 극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신념의 정도를 나타내도록 연속선의 어느 한 점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다. 이는 지도자가 문제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도할 수 있다.

바. 브레인 스토밍(Brain Storming)

집단원들은 할 수 있는 한 많이 반응함으로서 자발적으로 제안할 때 특별한 전략이 주어진다. 브레인 스토밍을 할 동안에 그 반응들은 평가되지 않는다. 브레인 스토밍은 판단을 보류하고, 성급함을 배제하며, 유일하고 특이하여 독창적이면서 둘 이상의 의견을 결합할 수 있고, 질을 따지지 않고 양적으로 풍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른 집단원이 평이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연상작용에 의해 그 의견을 듣는 순간 기발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으며, 중복된 의견이라도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집단원들은 자발성과 창의력이 개발된다.

사. 가치지(value sheets)

가치지란 집단원들이 성찰하고 쓰거나 이야기하도록 하는 가치 시사가 담긴, 사고를 자극하는 이야기, 진술, 또는 질문을 담은 종이이다. 이것을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집단원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쓰는 것이 좀 더 신중한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가치지 전부나 일부를 필수적으로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집단원들이 자유롭게 임의로 하게 하거나 또는 익명으로 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현명하다.

아. 편지 쓰기

가치명료화 편지 쓰기는 프로가피안 레터(progaffian letter)라고 하는 독특한 쓰기 전략을 활용한다. 이는 편지를 쓰면서, 지우지도 말고, 고치지도 말고, 오래 생각하지도 말고, 떠오르는 대로 막 써 내려가는 것으로서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한다. 만약, 편지를 쓰면서 오래 생각한다면 진실하고 솔직한 글이 나오기 힘들 수 있다. 왜냐하면, 매끄러운 글을 써야 한다거나, 남이 이 글을 보았을 때의 반응이 신경 쓰이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포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상처나 분노, 적개심 등에 대해 쓰기 활동과 나눔 활동을 통해 자신을 알고 이해하며, 상처가 되었던 부분들이 천천히 치유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혼자 써 보고, 둘씩 나누어 보고, 전체 앞에서 읽어 내려갈 때, 집단원들은 느낌의 강도가 점차 올라감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자. 긍정적 피드백 주고받기

가치명료화 과정에서는 비판, 판단, 충고, 설득, 강요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존중하며, 온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기본 규칙이다.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긍정적 피드백 주고받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 칭찬을 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나-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라는 말도 아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소신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아서 참 부럽다', '당신이 내 말을 경청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맙고 신뢰가 간다'와 같이 상대방의 어떤 점 때문에 나의 느낌이나 기분이 어떻다 라는 것을 진실되게 말해 주는 것이다.

“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뭘까?”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인생에 관한 선택이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하여 고안되었습니다. 매일 매순간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뛰어들어야 할 지 또는 웃어넘겨야 할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아마 당신은 이 프로그램이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보다 잘 해결하여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미래를 결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진실한 반응만이 정답입니다.

바로 지금

◈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지금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 당신이 이것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금 당신의 느낌은 어떠합니까?

◈ 얼마나 자주 이런 느낌을 가집니까?

◈ 다음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 당신은 그 일을 얼마나 즐깁니까?

화창한 날, 비오는 날

◈ 햇살은 눈부시게 비치고, 산들바람이 부는
아름다운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날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음산하고 쌀쌀한 구성지게 비가 오는 날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 어떤 날이 가장 즐거웠습니까?

◈ 화창한 날에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 비오는 날에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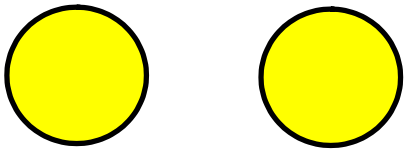
◈ 화창한 날에 당신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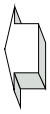
◈ 비오는 날에 당신은 어떤 음악을 들었습니까?

감정의 수레바퀴

여기 당신의 느낌을 나타내는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당신의 일생 중 어느 하루나, 한 주, 또는 인생전체를 통하여 당신이 좋은 느낌을 가졌던 만큼 아래 동그라미를 까맣게 칠해 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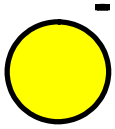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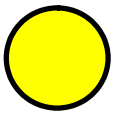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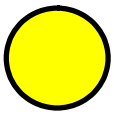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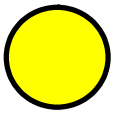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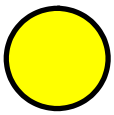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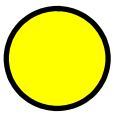
예를 들면 지난 일요일 오후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2주전 목요일이 정말
끔직한 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동안에 당신이 기분좋게 느낀 양만큼 까맣게 칠해 보시오.

어제 하루 종일		다른 때에도 당신의 느낌은 이와 같겠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이 학교에서 보낸 모든 시간들		
집에서 보낸 모든 시간들		
지난 토요일 오후		
내일은 어떨까?		

자신의 이름으로 상을 수여한다면…

대종상, 오스카상, 그래미상, 노벨상, 풀리쳐상, 효자·효부상, 신사임당상 등과 같이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공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마다 무수한 상들이 주어집니다.

◈ 만일 당신이 심사위원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상을 수여하겠습니까?

가장 훌륭한 영화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가장 훌륭한 책	이해 최고의 달
올해의 인물상	나를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
가장 좋아하는 영화배우	가장 우수한 가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우수한 노래
최고의 T.V 프로그램	하루 중 최고의 때
올해의 운동선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기타( )

나의 느낌

시시때때로 감정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즐거웠다고 생각하는 어느 하루를 선택하여 그 잘 하루동안에 느꼈던 당신의 감정들을 아래에 적어 보십시오.

기상(　　시)
9:00 A.M

10:00 A.M

11:00 A.M

12:00 A.M

1:00 P.M

2:00 P.M

3:00 P.M

4:00 P.M

5:00 P.M

6:00 P.M

7:00 P.M

8:00 P.M

9:00 P.M
.
.
.
취 침

※ 원하신다면 하루를 더 연장하여 당신의 느낌들을 기록해도 좋습니다.

느낌보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당신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상대방의 느낌을 알아내는 한 방법으로는 자신의 느낌을 먼저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그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몇몇 사람들에게 "지금 내 느낌은 _____다."라고 바로 그 순간의 느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먼저 _____안에 언젠가의 당신의 느낌을 쓰고 아래에 당신이 상상하는 사람의 반응들을 적어 보십시오.

혹 당신은 사람들에게 "지금의 느낌이 어떻습니까?"라고 직접 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만일 "느낌을 표현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쉬운지 또는 어려운지를 물어 본다면 그들은 무엇이라 대답할 것 같습니까?

◈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기가 쉽습니까?

◈ 당신이 느낀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당신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래 빈 칸에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과 언젠가 가지게 되리라고 생각되는 것, 그리고 앞으로 꼭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10가지 정도 적어 보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언젠가 가지게 될 것들	정말로 가지고 싶은 것들

물건을 가지려면 돈이 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난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들 것 같습니까? 각 항목별로 값을 적어 보십시오. 총합계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적어 보십시오.

총계 _____원

갑자기 모든 물건이 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포기할 목록위에 ×표를 하십시오. 또 당신이 기재한 목록에서 반정도를 포기해야만 한다면 어떤 것들을 포기하겠습니까? 그 목록 위에는 ××표를 하십시오.

당신이 앞에 적어 놓은 것을 다시 검토해 볼 때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아마도 오른쪽의 미완성 문장들은 당신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_____ _____ 을 느꼈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또한 내가 _____ _____ 을 배웠다. 나는 내가 _____ _____ 느꼈다는 것을 기억한다. _____이(가) _____ _____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무엇이 _____? 왜 _____? 나 는 _____이(가) 필요하다. 나는 앞으로 _____ _____할 것이다. 나는 _____ _____을 느낀다. 기타 : _____ _____

나에게 보내는 편지

받 는 이 : 나
보내는이 : 나
주 제 : 나와 물건들

외국의 효과적인 약물예방활동

김 용 석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청소년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음주 및 약물사용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층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물이 알코올임을 증명하고 있다(김용석, 1999; 서울 YMCA 동대문지회 청소년약물상담실, 1998; 윤혜미 등, 1999;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8). 최근의 조사(서울 YMCA 동대문지회 청소년약물상담실, 1998)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80% 이상이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가 청소년층에서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으며, 흡연을 경험한 학생비율보다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거의 매일 음주를 하는 경우도 2.1%에 이르고 있으며(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1998), 음주를 하는 학생들은 음주를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다른 약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용석, 1999). 청소년기의 음주 및 약물사용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인식되어져야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대책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1. 예방교육의 중요성

우리 나라 청소년의 음주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청소년의 약물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청소년 음주 및 약물남용 예방을 논의하는 것이 늦은 감은 있으나 청소년 음주를 포함한 사회문제에 대한 치료적 차원의 접근방법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청소년음주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정동장애자의 61%, 정서장애자의 69%, 약물중독자의 92%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장애를 가진 모든 개인들 중 단지 20%만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Klerman et al., 1992). 우리 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음주문제와 같은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팽배하여 개인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 전문적인 치료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여(Kim, 1993) 치료시설의 이용률은 미국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인의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더불어 개인치료를 위주로 하는 기존의 치료방식이 정신건강문제로 고통받는 대다수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입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2. 우리 나라 약물남용예방교육의 실태

본 절에서는 우리 나라 청소년음주와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성지연, 1998;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8;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1998)를 기초로 하여 우리 나라 청소년음주예방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부모와 교사의 청소년 음주에 대한 인식과 음주행태 및 청소년음주예방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욕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예방프로그램의 실태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예방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지 않고 실시방법에 있어서도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을 기존의 조사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97년 1년 동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예방프로그램은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남용예방프로그램으로서 약물남용이 신체에 미치는 폐해와 부작용을 알리고 현재의 약물선택이 미래에 미치는 결과를 깨닫게 함으로써 약물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8). 프로그램의 목적이 제시하는 것처럼 정보모델을 토대로 약물사용의 부정적인 결과를 청소년에게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시방법을 보더라도 대규모 학생(200명 내지 1700명)을 상대로 1일에 걸쳐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또는 프로그램 진행자)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한 예방교육이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에 한국대학생알코올예방협회(1998)가 청소년 음주 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의 일부로 교사를 상대로 청소년음주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67.4%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약물남용예방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교육방식으로는 학생과 교사의 토론 방식보다는 단순히 시청각 자료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교사의 강의와 더불어 학생과 교사간의 토론방식의 실행방법을 채택하는 경우는 1.7%에 불과하였다. 또한 대다수의 교사(75.3%)가 본 설문조사 이전에 약물남용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1> 약물남용예방교육방식

교육방식	%
강의	15.0%
시청각 교육	36.7%
강의 + 시청각 교육	18.3%
강의 + 시청각 교육 + 교육홍보자료배포	23.3%
강의 + 토론	1.7%
기타	5.0%

출처: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1998)

성지연(1998)은 서울에 거주하는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약물남용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학생을 상대로 약물예방교육횟수가 6개월에 1회 실시하였다고 응답한 교사가 51.4%로 가장 높았고, 1년에 1회인 경우가 22.5%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약물남용예방교육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정보모델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성지연, 1998).

2-2. 청소년 음주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욕구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1998)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음주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교사와 학부모가 찬성하고 있어 청소년음주예방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욕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교사가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약물남용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고, 약물남용예방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교사들은 예방교육의 정례화를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시청각 자료의 개발 및 확보와 외부 전문강사의 순회교육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2). 성지연(1998)의 연구에서도 약물남용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보건교육의 일부 혹은 약물남용교육으로 하여 정규 교과목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표 2> 예방교육의 활성화 방안

활성화 방안	%
예방교육의 정례화	53.4%
시청각 자료의 개발 및 확보	44.9%
약물남용예방을 위한 교사들의 전문교육이수	23.6%
외부 전문강사의 순회교육	50.6%

출처: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1998)

이상에서 언급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음주예방프로그램은 예방모델 중 그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정보모델이 아직까지 우리 나라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방식도 학생과 교사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방식보다는 교사가 학생에게 단순히 강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예방교육이 비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는 청소년음주예방을 위해 학생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와 교사가 청소년의 음주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교사의 20%가 청소년들의 적은 양의 음주를 허용한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결과라고 생각한다. 교사는 학생과의 접촉이 매우 잦고 교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사 중 20%가 비록 적은 양의 음주라 할지라도 학생 음주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음주에 대한 태도변화 없이 학생들의 음주에 대한 태도를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술과 음주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특히 청소년 음주의 폐해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음주습관이 청소년의 음주와 음주에 대한 태도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15%가 과음자라는 결과는 우리 나라 청소년의 상당수가 위험요인, 즉 부모의 과음 또는 폭음에 노출되어 있고 이

는 음주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형성에 악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3. 예방모델

3-1. 초기모델

1980년대 이전의 미국에서 실시된 대표적인 초기 청소년음주예방프로그램은 정보모델과 정서모델(affective model)에 기초하였다. 정보모델은 학생들이 음주의 폐해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면 음주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정보모델은 음주의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정보모델을 근거로 한 프로그램의 평가는 부정적이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음주를 감소시켰다고 보고한 연구가 전무하였다(Dielman, 1995). 단순히 술과 음주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지식의 축적은 청소년의 음주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모델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기술, 의사결정과 문제해결기술이 증가하면 청소년은 음주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McNeece et al., 1994). 또한 정서모델은 비행청소년이나 약물사용청소년이 종교행사나 지역사회활동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개발되어 약물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청소년의 여가활동, 지역사회봉사, 예술활동의 참여 등을 강조하였다(McNeece et al., 1994). 그러나 비행청소년과 약물남용 청소년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일반 청소년의 음주예방을 위해 일반화시키는데 실패하여(McNeece et al., 1994) 정보모델과 마찬가지로 정서모델도 청소년의 음주예방에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Hansen, 1993). 즉 초기모델을 채택한 예방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가 이론적 기반이 약했다는데 기인한다(Dielman, 1995).

3-2. 사회영향모델 (Social Influence Model)

초기예방모델이 청소년음주를 예방하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왔으며 그 결과 사회영향모델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모델은 주로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하고 있다(Gorman, 1997). Botvin(1996)에 따르면 청소년음주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많은 이론이 있지만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론은 사실 매우 드물다고 주장하면서 사회학습이론이 청소년음주의 원인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otvin(1996)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회적 영향에 대한 각기 다른 수준의 취약성(vulnerability)이 있어 자존감, 자기확신, 자치(autonomy)가 낮은 사람들은 사회적 영향에 쉽게 굴복하게 되고 그 결과 알코올이나 기타 약물을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은 사회적 영향(예; 또래압력)을 거부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영향모델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예방프로그램으로는 생활기술훈련(Life Skills Training)프로그램과 거부훈련(resistance training) 프로그램이 있다. 생활기술훈련과 거부훈련은 사회학습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술개발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두 프로그

램의 공통점이 있다. 두 프로그램의 차이점으로 거부훈련프로그램은 음주와 약물사용과 관련된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만을 교육시키는 반면, 생활기술훈련은 거부훈련에서 가르치는 내용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기술, 갈등해소기술, 자기주장훈련과 같은 일반적인 대인관계를 위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영향에 초점을 두는 프로그램은 이전의 예방프로그램에 비해서 청소년의 음주행태를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 있다. Hansen(1988, 재인용 USDHHS, 1993)은 거부훈련프로그램과 정서모델에 기초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거부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음주를 시작하는 비율이 낮았으나 정서모델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생활기술훈련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 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사용이 44%감소되었다(Botvin et al., 1995). Botvin의 또 다른 연구(1984, 재인용 Botvin, 1995)는 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연구를 통해서 연구하였는데 프로그램종결 후 6개월 후에 청소년의 음주를 측정한 결과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통제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음주율, 폭음율, 술 취한 경험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모델, 정서모델, 사회영향모델의 공통점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부모를 프로그램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청소년음주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모나 가족이 청소년음주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따라서 최근에 들어서는 청소년음주예방교육이 부모에 의해서 강화될 것이라는 관심이 대두되어(Donnermeyer et al., 1998) 부모를 청소년음주 예방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의 한 예로 Indiana Students Taught Awareness and Resistance(I-STAR)를 들 수 있는데 I-STAR은 총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한 요소가 부모교육으로서 부모는 자녀와 함께 과제를 하며, 의사소통기술을 배우고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내용이다. 청소년음주예방프로그램에 부모의 참여는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과 부적관계를 보여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Rohrbach et al., 1995).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할 경우 부모가 청소년음주예방프로그램에 참여도는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Pentz et al.(1989, 재인용 USDHHS, 1993)은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하는 과제만을 부여했을 때 부모의 참여도가 가장 높다고 보고하여 우리 나라에서 음주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4. 생활기술훈련(Life Skills Training)

생활기술훈련은 Botvin에 의해서 개발된 보편적 예방프로그램이다. 생활기술훈련은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사용의 시작을 촉진시키는 사회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알코올이나 약물에 대한 교육보다는 약물사용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일반적 사회기술(예; 자기주장훈련)과 약물거부기술의 학습을 강조한다. 생활기술훈련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할 때 효과성이 뛰어나다고 보고되고 있

다. 생활기술훈련은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해 개발되었고 오늘날에는 청소년의 음주와 대마초 사용 예방에 적용되고 있다.

4-1. 주요 프로그램 구성요소

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은 3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NIDA, 1997).

(1) 약물거부기술

사회영향 중 특히 음주나 약물상용과 관련된 또래압력을 인식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기술과 약물사용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교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자기관리기술

학생들의 독립심과 인지통제력 향상을 위한 기술을 포함한다. 사회복지학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해결과정, 자존감 증진,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대처하는 기술 등을 포함한다.

(3) 일반적 사회기술

대인관계 시에 필요한 기술의 교육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의사소통기술, 대인관계개발 등의 내용으로 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4-2 실행방법

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은 12개의 주제를 다루며 총 15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음주뿐만 아니라 흡연과 대마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 우리 나라 청소년의 흡연률도 높기 때문에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다루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대마초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다면 총 14회로 구성되게 된다. 일주일에 평균 1회 정도 실시할 경우 1학기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5회 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이 끝난 후 10회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다음 년도에 그리고 5회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그 다음 해에 실시되어 총 3년간 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결과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때 그 효과성이 뛰어나다고 보고하고 있다(재인용 Botvin et al., 1995).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일반 교사가 되며 교사는 하루 동안 실시되는 연수에 참가하거나 시청각 교재를 통해 프로그램 내용과 실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5. COPE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는 사회영향모델을 기초로 하여 COPE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COPE 프로그램은 음주와 관련된 또래압력을 거부하고, 문제상황을 적절히 처리하여 음주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인지적, 행동적 대처능력의 증진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5-1. COPE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청소년과 음주: 음주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과 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이해하도록 함.
· 또래압력 다루기: 청소년 음주와 관련된 또래압력의 상황을 밝히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기술 을 습득함.
· 감정 다루기: 동일한 문제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개인마다 다른 감정과 행동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이유를 학습함.
· 문제해결기술: 자신의 문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의사소통기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함.

5-2. 실시방법 및 평가

· 각 session은 학교 현실을 고려할 때 50분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함.

· 각 session마다 차이는 있으나 강의를 30분 정도로 하고 실습과 평가를 20분으로 함.

· 평가방법은 COPE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사전,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지식과 기술정도의 차이를 조사함.

5-3. 기대효과

· 술과 음주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인식 확산

· 또래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증진

· 문제해결기술과 능력의 증진

· 인지적 대처능력과 부정적 감정 조절능력 증진

· 학생 자신의 생각, 감정, 욕구를 전달하는 능력 증진

6. 결어

알코올이 우리 나라 청소년층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조사를 통해 살펴본 우리 나라의 청소년음주예방프로그램은 예방프로그램의 발달과정에 비추어 보면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도 않아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 일선 교사와 학부모들의 청소년음주예방교육에 대한 욕구는 상당하여 예방이론과 외국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제도를 고려한다면 빠른 시기에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고려되나 몇몇 학교에서 학교사회사업이 시범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본고에서 다룬 것처럼 예방프로그램은 주먹구구식으로 개발되고 운영되어서는 안되며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룬 내용을 토대로 학교에 기반을 둔 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여 본다.

첫째, 예방프로그램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론에 기초해야 한다. 청소년음주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통해 청소년음주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소들이 밝혀졌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예방은 위험요인을 밝혀내고 그 요인을 감소 또는 제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개발 시에 선행연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험요인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Hansen, 1993). 사회경제적 요인, 음주와 관련된 가족력 등도 청소년음주의 위험요인으로 밝혀졌지만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수정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정 불가능한 요인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둘째, 이론을 통해서 밝혀진 위험요인의 영향을 감소 또는 제거할 수 있는 보호요인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개입방법을 고려해야만 한다. 보호요인을 강화시키는 개입방법도 이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최근 예방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사회학습이론이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사회학습이론이 음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대처기술의 부족이 음주문제를 결정짓는 핵심요인이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음주와 관련된 또래집단의 압력, 잠재적 문제상황(또는 스트레스원)과 같은 위험요인의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음주거부기술 훈련, 인지재구조화작업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본고에서 세 가지 예방프로그램유형을 소개하였는데 그 중에서 보편적 예방프로그램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가 밝혔듯이 청소년의 경우 음주에 대한 태도가 그들이 실제로 음주를 시작하기 전에 형성된다. 그러나 음주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독특한 음주문화는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긍정적 태도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부모의 폭음이라는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도 상당하기 때문에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조기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예방프로그램의 지속기간과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방프로그램은 장기간 실시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음주 및 약물남용예방프로그램은 단기간에 실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하루 한두 시간동안 실시되는 경우도 많아 그 효과성이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부족이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위한 이론, 개입방법, 절차에 대한 이해는 많이 되어 있으나 예방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예방프로그램개발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앞서 예방이론과 선행프로그램의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운영방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보호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청소년 음주와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예방프로그램에 부모를 위한, 그리고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부모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며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부모의 참여가 저조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부모가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에서 주어진 과제를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동에 부모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처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나 부모의 음주습관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료를 개발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방식 등을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부모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많은 예방프로그램이 주입식 교육방식보다는 학생과 교사(또는 프로그램 진행자)간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학생들의 역할극 등을 활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집단보다는 소규모 예를 들면 1학급 정도의 규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를 상대로 프로그램 내용과 실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 학급의 교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학교 내 예방프로그램이 정착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학교측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차선책으로 학교사회사업가가 한 학급만을 대상으로 혹은 동아리 회원 등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효과성을 입증하여 음주예방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학교측에 전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집단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혹은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집단을 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음주율, 음주에 대한 태도, 음주거부기술 등이 프로그램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사전, 사후 조사를 실시, 비교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여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석 (1999).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 음주와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제39호. pp. 103-127.

김용석. 1999. “청소년의 문제성 음주와 정신증상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 7집. pp.27-45

김용석. 1999.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 음주와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제39호. pp. 103-127.

서울 YMCA 동대문지회 청소년약물상담실. 1998. <청소년 유해약물에 관한 연구>

성지연. (1998). “학교청소년 약물남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서울시 중·고등학교 양호교사 대상”.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가톨릭대학교.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1998).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알코올문제 예방 프로그램 개발최종보고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8.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 결과, 마약없는 밝은 사회. 제13호. pp. 6-8.

Abrams, D.B. & Niaura, R.S. (1987). Social learning theory. In H.T.Blane & K.E. Leonard (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pp.131-178). NY: Guildford Press.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Bulletin*, 80(4), 286-303.

Barnes, G. M., Farrell, M. P., & Banerjee, S. (1995). Family influences on alcohol abuse and other problem behaviors among black and white adolescents in a general population sample. In G. M. Boyd et al. (eds.) *Alcohol problems among adolescents: Current directions in prevention research*.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Botvin, G. J. (1996). *Life skills training: Teacher's manual for middle/junior high school*.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Health Press, Inc.

Coie, J. D., & Jacobs, M. R. (1993). The role of social context in the prevention of conduct disorder. *Developmental and Psychopathology, 4*, 261-273.

Cowen, E. L.(1981).Primary prevention research: Barriers, needs, and pportunities.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 131-137.

Dielman, T. E. (1995). School-based research on the prevention of adolescent alcohol use and misuse: Methological issues and advances. In G. M. Boyd et al. (eds.) *Alcohol problems among adolescents: Current directions in prevention research*.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Donnermeyer, J. F., & Davis, R. R. (1998). Cumulative effects of prevention education on substance use among 11th grade students in Ohio. *Journal of School Health*, 68(4), 151-158.

Hansen, W. B. (1993). School-based alcohol prevention programs. *Alcohol Health & Research World*, 17(1), 54-60.

Hussong, A. M., & Chassin, L. (1997). Substance use initiation among adolescent children of alcoholics: testing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8 (3), 272-279.

Institute of Medicine. (1994). *Reducing risk factors for mental disorders: Frontiers for preventive intervention research*.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Johnstone, B. M. (1994). Sociodemographic, environmental, and cultural influences on adolescent drinking behavior. In R. Zucker et al. (eds.), *The developmental of alcohol problems; Exploring the biopsychosocial matrix of risk*. National Institue of Health Research Monograph 26, Rockville, MD.

Kadden, R.M. (1994). Cognitive-Behavioral approaches to alcoholism treatment. *Alcohol Health & Research World*, 18(4), 279-286.

Kim, L. I. C. (1993). Psychiatric care of Korean Americans. In A. C. Gaw (Ed.), *Culture, ethnicity, and mental illness* (p.347-37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Klerman, G. L., Olfson, M., Leon, A. C., & Weissman, M. M. (1992). Measuring the need for mental health care. *Health Affairs, 1*, 23-33.

McNeece, C. A., & DiNitto, D. M. (1994). *Chemical dependency: A systems approac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1997). *Preventing drug use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 research-based guide*. National Institute on Health Publication No. 97-4212. U. S. Governemt Prining Office.

Reifman, A., Barnes, G. M., Farrell, M. P., & Uhteg, L. (1998). Parental and peer influences on the onset of heavier drinking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9(3), 311-317.

Rohrbach, L. A. et al. (1995). Parental participation in drug abuse prevention: Results from the midwestern prvention project. In G. M. Boyd et al. (eds.) *Alcohol problems among adolescents: Current directions in prevention research*.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Scheier, L. M., & Botvin, G. J. (1997).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s predictors of adolescent alcohol involvement and transitions in alcohol use: a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8(6), 652-668.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3). *Eighth special report to the U. S. Congress on alcohol and health*. DHHS Pub. No.(ADM)281-91-0003. Washington, D. C.: Supt of Docs., U. S. Govt. Print. Off.

학교예방활동의 사례

윤 현 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상담실장

들어가는 말

약물남용은 전염이 아주 강한 사회적 질환이다. 유아기 때의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아기들은 많은 예방접종을 한다. 이 예방접종은 아이들이 유행성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해준다. 유아기 때의 이러한 예방접종은 절대적이다.

약물남용예방 역시 일찍 시작 해야한다. 약물남용은 매우 복합적인 원인과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조기에 개입하여 약물남용의 폐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 “가래로 막을 것을 서리로 막는다”라는 옛말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미국의 경우도 그동안 약물중독치료, 재활 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 90년대 이후 예방교육활동으로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있으며 최근 모든 TV 채널이 한시간 간격으로 약물남용 방지 홍보 CF를 내보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역시 청소년 약물남용자 수가 증가되고 그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역시 적극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Ⅰ. 지역사회 통합적 접근방법

1. 통합접근의 필요성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은 크게 1차·2차·3차 예방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1차 예방은 불법적인 약물을 처음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도로, 이는 시작 예방(prevention initiation) 이라고도 한다. 2차 예방은 초기 단계의 문제 행동이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 내는 것으로, 상담과 치료를 통해 그들이 약물사용을 중단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약물사용으로 인한 나쁜 결과를 피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기 개입(early intervention)이라고 한다. 3차 예방은 강압적인 사용을 중단시키며 치료와 재활을 통해 부정적 영향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치료나 재활, 재발 방지라고 한다. 이러한 1차·2차·3차 예방운동은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다. 약물남용 청소년은 약물사용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문제의 성격에 부합되는 포괄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들의 경우 한가지 전략만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의 구성요인으로 포괄성과 강도를 말하는데 이는 어느 하나의 행동만을 변화시키려는 예방노력보다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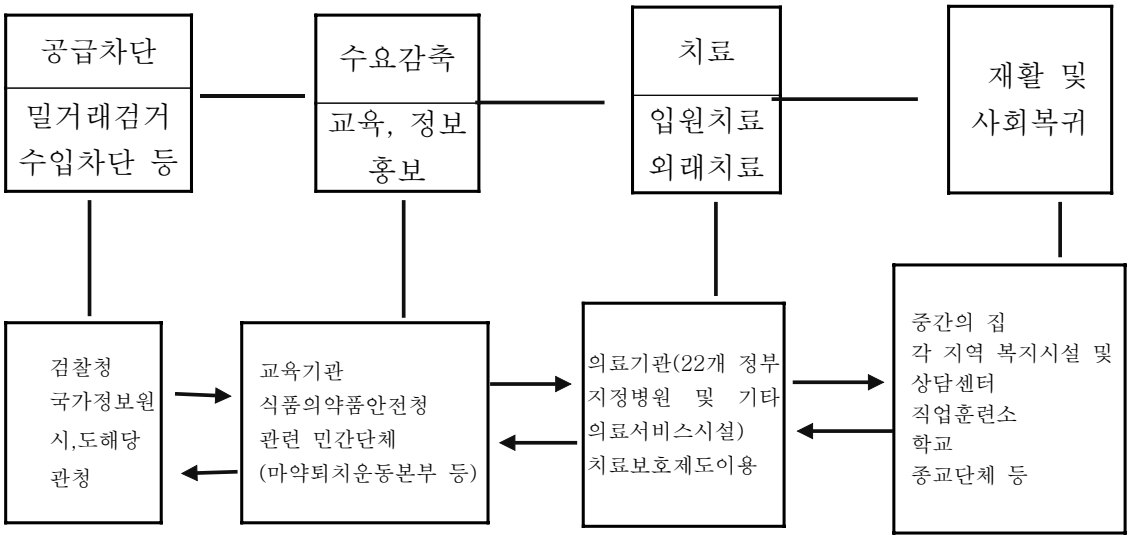
2.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접근 모델

약물 남용 청소년에 대한 접근 모델을 개발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약물 남용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한번 약물을 남용하기 시작하면 일정한 치료기간 외에 장기적인 회복기간이 필요하다. 현재 회복을 위한 중간거주시설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회복은 결국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청소년이 약물남용까지 발전하기 전 약물사용이나 오용단계에서 이들에 대한 조기개입이 필수적인데 이것도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완

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의 장시간동안 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바로 지역사회의 역할이 되야 한다.

두 번째는, 예방 노력에서부터 치료 및 회복기까지의 모든 접근이 단편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역에는 이들에 대한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기관이나 시설, 조직들이 있을 수 있다. 이들 사이에 의사소통이나 조정 장치가 없다면, 단편적인 접근이 될 뿐 아니라 서비스의 중복과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없으며, 장기적인 회복과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 특히, 약물 남용 청소년들은 청소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약물 남용의 문제 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발달과제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보다 건전한 생활방식을 습득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많은 기관들이 약물 남용 청소년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관, 시설, 조직, 또는 프로그램 사이에는 긴밀한 연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3. 통합 모델



약물남용 청소년 치료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사례관리가 필요하며, 개별적인 접근들을 통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동기를 극대화시켜, 집단적, 지역적 개입으로 완전한 회복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주어야할 것이다. 병원입원은 약물을 강제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접할 수 없도록 하는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심리적, 사회적 재활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개별상담, 집단상담을 병행하면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접근 할 때 자신의 정체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약물청소년의 경우 치료적인 접근이 재활 프로그램을 갖는 경우 더 좋은 결과들을 얻게된다. 검정고시 준비를 하면서, 미용학원을 하면서, 제빵기술을 배우면서 치료되어 간다는 것이다. 재활프로그램 속에서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통제 할 수 있다는 감정을 갖게 하고 유능감을 증진시켜 스스로의 권력강화(empowerment)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Ⅱ.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약물남용예방활동

청소년들은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호기심이나 또래 압력에 의해 약물 남용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약물남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대처 방안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는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약물남용예방교육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형편이지만 본 기관은 학교와 지역사회복지관 및 교정시설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약물예방교육, 상담, 및 사례관리를 하는 지역사회 약물남용교육·상담 전담기관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방활동내용을 각 분류별로 살펴보면

□교 정 시 설: 햇살교실 (보호관찰 약물대상자들 사례관리),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 마그미 캠프

□학교예방교육: 마퇴교실, 또래 상담자 교육, 양호교사를 위한 교육, 부모교육

□지역사회기관: 복지관, 보건소, 청소년 단체와의 연계 사업 및 약물남용예방 캠페인 및 홍보사업

1. 부모교육

우리 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매일 매스컴들은 술, 담배, 약물 등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예전보다 훨씬 더 부모와 어른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부모와 어른들은 술, 담배, 약물에 대해 청소년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약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적극적이고 건전한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와 어른들은 약물남용의 문제를 이야기할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는 때도 있고, 가정과 사회가 술, 담배가 주는 폐해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어른들이 하고 있는 술, 담배들을 청소년에게는 삼가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부모와 어른들을 도와주고 부모교육 참여자들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술, 담배, 약물문제를 적극적으로 여론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며, 자신의 가족성원과 친구들에게 건전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2. 양호교사를 위한 워크샵

1. 목 적 : 학교예방교육의 중요성은 청소년이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학생들의 행동기준을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 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양호선생님들을 교육시켜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예방교육을 할 수 있게 돕는다

2. 대 상 : 초, 중, 고 양호교사

3. 교육내용

회수	내 용
1	MBTI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교육 활용법
2	가치관 명료화 프로그램 (VCP)
3	자기 존중감 훈련
4	인간관계훈련을 위한 자발성 개발훈련 Ⅰ
5	자발성 개발훈련 Ⅱ(학교장면에서의 인간관계훈련)
6	심리극, 사회극의 이론적 이해
7	심리극, 사회극의 실제
8	인지 행동 치료기법(CBT)
9	미술치료기법
10	효과적인 약물오·남용예방교육방법

3. 보호관찰소 성인프로그램

성인햇살교실은 법원으로부터 치료, 교육을 명령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이들 집단의 성격은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자로부터 음주로 인한 교통질서위반자, 알콜 전문치료를 받아야하는 사례까지 매우 다양하다. 집단상담의 효과성을 높히기 위해 처음에 시도했던 집중식 상담보다는 일주일에 4시간 정도 10주를 지속적으로 하고 사이사이에 적절하게 개별상담을 같이 병행했을 때 집단원들의 feed-back이 더 긍정적이고 솔직하게 자신을 개방할 수 있었다. 집단상담을 통해 자신이 알콜중독자임을 인지하여 전문치료기관의 치료를 받겠다고 한 A씨, 필로폰 사용으로 부인과 이혼하여 가정이 파괴된 C씨, 음주시 항상 폭력적으로 변해 폭력으로 3번째 처벌을 받는 B씨등 알콜이나 약물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집단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게 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재교육을 시킨다. 성인프로그램의 경우 직업으로 인해 교육 참여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에는 그저 시간 때우는 식의 참가자들이 대부분이어서 리더와의 신뢰형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의견에도 불구하고 10주를 강행했을 때 집단원 중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물론 대상자의 개별성에 따라 어떻게 교육, 상담할 것인가가 달라진다. 교육 이후 계속적인 사후관리를 받게된다.

프로그램 내용

회수	집단발달단계	목 표	프로그램명	세 부 내 용	진행방법
1	오리엔테이션 단 계	관계형성 및 사정	오리엔테이션	-초기 개인 면접 및 프로그램 소개 -상담신청카드 작성	1. 개인면담 2. 자기보고 3. 하고 싶은 교육내용 건의
2	초기단계	자신과 타인 이해하기	나눔과 친교의 시간	-서약서 작성 -자기소개 및 별칭짓기 -인생그래프 -환상소개, social atom	1. 자기진술 2. 자기보고 3. 발 표 4. 활 동
3			MBTI검사해석	-자신의 성격 유형인지 -생활양식, 인간관계 이해하기	1. 강의 2. 활동 3. 토의 4. 비디오 교육
4	교육단계	약물의 전반적인 이 해	금연학교	-흡연폐해교육 -금연을 위한 여러 나라의 시민 운동소개	1. 외부강사교육 2. 생체실험 3. 토의
5			약물오·남용 교 육	-알콜중독의 의미 -대마초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환각흡입물질의 폐해 -향정신성의학품이란	1. 시청각교육 2. 회복 환자의 체험사례발표 3. 토의 4. 질의응답
6	탐색단계	재발요인과 위기상황인식	표현예술치료법	-지점토와 그림 -Dyad- drawing -만다라원형 -동작 -집단공동화 작업	1. 활동 2. 그림그리기 3. 토의, 나눔
7	문제해결단계	재발요인의식 및 대처기술습득	감수성 개발훈련	-감정 다루기 -역활극(분노조절) -상황에 대한 감정인지 -“나” 전달법 대화법	1. 외부강사 교육 2. 역활극 3. 모델링 4. 발표, 나눔
8			인지-행동치료 교육	-누가 나의 삶을 통제하는가? -ABC 의 인지 매개 가설 -인지오류 -갈망에 대처하는 기법	1. 외부강사교육 2. 활동 3. 토의 4. 이완훈련
9			가치관 명료화 자기존중훈련	- 가치관 경매 - Cool Seat - 사슬풀기	1. 활동 2. 자기발표 3. 나눔
10	종결단계	약물중단결심과 새로운 대처기술적용	서로칭찬해주기 상장주기 수료식	-나/타인에 대한 관계인식 -내가 받고 싶은 상장 -수료식	1. 발표 2. 나눔 3. 토의 4. 결의

4.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보호관찰소 대상 청소년의 햇살교실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약물남용 방지 수강교육을 명령 받은자와 보호관찰소 내의 본 상담센터 부설 상담실에서 개별상담 서비스를 받고있는 청소년들을 위주로 자기존중감이나 분노조절프로그램 등을 교육하기 위한 상대적으로 동기화된 집단이다. 하지만 매회 집단원들의 참여도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수강교육명령자들은 회기가 지날수록 태도가 적극적이었고, 동기화 되어진 집단은 잦은 결석률과 후반부로 갈수록 적극성이 떨어짐을 볼 수 있었다. 햇살교실은 이미 교정시설에 수감되어있는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 대상이기에 한 번의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지속적인 추후관리를 통해 관리 상담되어져야 한다. 이에 본 상담센터에서는 햇살교실에 참여한 사람들은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 될 때까지 계속적인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캠프, 다양한 활동들을 그들을 위해 기획(캠페인, 봉사활동 등)하여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검정고시를 보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야학이나 학원 등을 알선 소개하며, 군대문제, 구직문제를 의논할 수 있게 노동청 산하 인력은행과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

회수	프로그램단계	교육내용	세부계획
1	집단형성단계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	- 약속이행서 - 집단에서 최선을 다하기 - 별명만들기 및 별명기억하기 - 신체활동(신뢰형성게임) - 휴식 - 생활기록부 작성, - 약물고위험군척도 체크
2	자아발견단계	-신체활동(주의환기) -자아탐색단계	- 나는 어떤 사람인가? - 나의 소중한 사람 - 나의 갈등
3		-체육활동	- 볼링
4		- 자신의 성격탐색(장단점) - MBTI성격검사 및 인간관계 이해하기	- 자신의 장단점 찾기 - 비슷한 성격유형 그룹화 - 그룹이름짓기 - 그룹의 장단점 발표
5	자아수용단계	- 의사소통 훈련 - 갈등대처훈련	- 지구촌 최후의 생존자 - 가치관 경매 - 대화 시작하는 법 - 칭찬주고 받기
6		- 자원활동	- 기관자원봉사
7		- 오전:장보기 및 요리교실 - 오후: 야외활동	- 등산 및 물놀이(계곡)
8		- 분노조절 프로그램 - 성교육프로그램 - 감수성개발훈련	- 집단토의, 강의, 비디오 시청 - 역할극 - I-message등 - 상황에 대한 감정인지 - 감정다루기
9		- 체육활동	- 수영, 볼링, 등산, 농구 중에서
10	자아발전단계	- 흡연 음주 폐해 및 약물오남용예방교육 - 가치관 명료화프로그램 - 자기존중훈련	- 강의 및 비디오 방영, 토론 - 느낌나누기 - 생각바꾸기 - 휴 식
11		- 정리 및 수료식	- 내가 받고 싶은 상장 - 미래의 나 - 쿨시트 - 사후계획 - 수료식

회수	프로그램단계	교육내용	세부계획
1	집단형성단계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	- 약속이행서 - 집단에서 최선을 다하기 - 별명만들기 및 별명기억하기 - 신체활동(신뢰형성게임) - 휴식 - 생활기록부 작성, - 약물고위험군척도 체크
2	자아발견단계	-신체활동(주의환기) -자아탐색단계	- 나는 어떤 사람인가? - 나의 소중한 사람 - 나의 갈등
3		-체육활동	- 볼링
4		- 자신의 성격탐색(장단점) - MBTI성격검사 및 인간관계 이해하기	- 자신의 장단점 찾기 - 비슷한 성격유형 그룹화 - 그룹이름짓기 - 그룹의 장단점 발표
5	자아수용단계	- 의사소통 훈련 - 갈등대처훈련	- 지구촌 최후의 생존자 - 가치관 경매 - 대화 시작하는 법 - 칭찬주고 받기
6		- 자원활동	- 기관자원봉사
7		- 오전:장보기 및 요리교실 - 오후: 야외활동	- 등산 및 물놀이(계곡)
8		- 분노조절 프로그램 - 성교육프로그램 - 감수성개발훈련	- 집단토의, 강의, 비디오 시청 - 역할극 - I-message등 - 상황에 대한 감정인지 - 감정다루기
9		- 체육활동	- 수영, 볼링, 등산, 농구 중에서
10	자아발전단계	- 흡연 음주 폐해 및 약물오남용예방교육 - 가치관 명료화프로그램 - 자기존중훈련	- 강의 및 비디오 방영, 토론 - 느낌나누기 - 생각바꾸기 - 휴 식
11		- 정리 및 수료식	- 내가 받고 싶은 상장 - 미래의 나 - 쿨시트 - 사후계획 - 수료식

5. 소년분류심사원

참 가 인 원: 매기마다 평균 10명 참가
참가원 특 징: 집단원들은 폭력, 절도, 강도, 유해화학관리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의 집단이고 흡연이나 음주의 문제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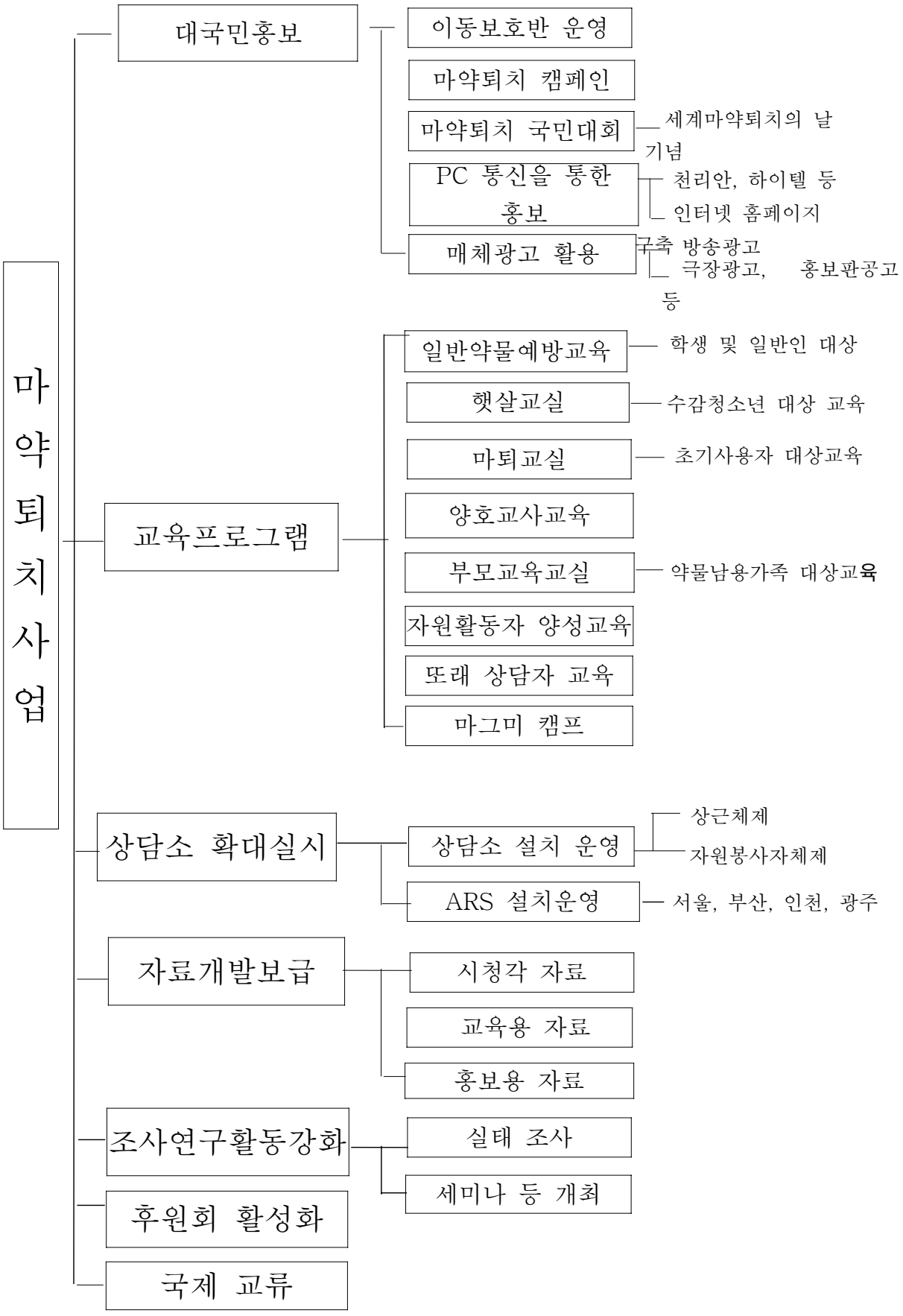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은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수용, 보호하고 그 자질을 분류심사하고 원생의 요보호성 여부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그 결과를 법원에 보내 조사, 심리에 참작하도록 하며 소년원, 보호관찰소에 교정처우 지침으로, 학교 및 가정(보호자)에 성행개선 및 진로지도의 자료로 제공함이 목적이다. 광주지부는 현재 약물 문제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 중이거나 다른 범죄로 수감되었지만 약물남용 고위험군인 청소년들에게 약물남용예방 집중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약물남용이 재발되지 않고 그들의 장점과 자존감을 고취시켜 가정, 학교,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햇살교실 전체의 프로그램의 특성은 집단원으로 하여금 햇살교실(집단상담)을 통해 약물 오·남용의 폐해를 바르게 인식시키며 생활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태도, 사고, 감정,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그들에게 “현재-여기에(here and now) 초점을 두고 자기 경험을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느낌 등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집단원 모두가 끊임없이 자기성장과 자기 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이며 대인관계의 개선을 도와 약물 없이도 자신의 생활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 내용

요일	월	화	수	목
단계	집단형성단계	자아발견단계	자기수용단계	자기발전단계
내용	- 프로그램 안내 - 자기 소개 - 별명 짓기 - 신뢰형성 게임 - 환상 소개 - 감정 다루기	- MBTI 성격유형도 검사 - 자신의 성격유형 인지	- 약물남용 폐해에 대한 집중교육 - 약물사용 충동 일기 - 5분 Speech - 가치관 경매	- 자기존중 기술 훈련 - 나의 장점 찾아보기 - 생각 바꾸기 - 나의 나무 - 나에게 상장주기 - 쿨 시트(Cool seat)
하위 목표	- 프로그램이해 - 긴장감 해소 및 친밀감 형성 - 긍정적인 자화상 확립 - 분명한 의사소통	- 나에 대한 이해 - 자아통찰의 기회 제공	- 약물에 대한 태도변화 - 약물없는 생활 - 의사결정학습을 통한 인간관계 기술 증진 - 자신의 선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력 기르기	- 자신의 장점 찾기 - 자존감 회복하기 - 미래를 설계해보고 자아실현의지 다지기 -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 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자기존중감을 향상

요사업내용개괄


마약퇴치사업
대국민홍보
이동보호반 운영
마약퇴치 캠페인
마약퇴치 국민대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
PC 통신을 통한 홍보
천리안, 하이텔 등
인터넷 홈페이지
매체광고 활용
구축 방송광고
극장광고, 홍보판공고 등
교육프로그램
일반약물예방교육
학생 및 일반인 대상
햇살교실
수감청소년 대상 교육
마퇴교실
초기사용자 대상교육
양호교사교육
부모교육교실
약물남용가족 대상교육
자원활동자 양성교육
또래 상담자 교육
마그미 캠프
상담소 확대실시
상담소 설치 운영
상근체제
자원봉사자체제
ARS 설치운영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자료개발보급
시청각 자료
교육용 자료
홍보용 자료
조사연구활동강화
실태 조사
세미나 등 개최
후원회 활성화
국제 교류

소시오드라마(Sociodrama)의 이해와 실제

박 희 석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실 전임상담원

1. 소시오드라마의 정의와 특징

최초의 소시오드라마는 1921년 비엔나에서 전쟁이후의 혼란한 사회를 재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모레노가 왕의 어릿광대로 분장하여 왕좌(빈의자)를 놓고서 관객이 왕의 역할을 탐색하도록 하게 한 것이다. 즉, 집단간의 관계, 집단 이데올로기를 취급하는 심도 있는 행위법이었다(Moreno, 1960). 이후에 사회적 역할들 사이의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연구되고 실시되고 있다.

소시오드라마는 참가자들이 동의한 사회적 문제들을 즉흥적으로 '행위화' 하는 집단 행동방법이다(Sternberg & Garcia, 19994). 소시오드라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고와 감정들을 표현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들의 가치들을 명료화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 문제나 주제들을 단순히 토론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의지를 갖게 하고,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행동상의 문제들을 탐색하게 한다. 이 때 역할극을 통해 그들 자신과 타인의 입장이 되어 보기 때문에 문제자체나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소시오드라마는 인간의 유사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Moreno(1960)는 각각의 개인들을 그들이 갖는 역할들의 복합체로 보았고 한 개인의 역할을 신체적 역할, 사회적 역할, 사이코드라마적 역할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신체적 역할이란 식사, 수면, 옷차림, 개인적 습관 등의 활동을 포함하고, 사회적 역할은 멋진 결혼이나 성공적인 직업이나 모험에의 꿈과 같은 환상 속에서 행해지는 역할들로서 개인의 태도들 및 행동들의 복합체와 같은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Moreno(1960)는 역할을 "문화적으로 승인되고 동의된 행동군"으로 정의하고 이들 각각의 역할들은 다시 공통된(공유된) 것과 사적인(개인적인) 구성요소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의 탐색을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고안되었는데 그 하나가 사적인 구성요소를 위한 사이코드라마이고 다른 하나는 공통적 구성요소를 위한 소시오드라마이다. 이렇게 "역할"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몇 가지 이점들을 갖고 있다. 역할이라는 용어를 써서 상호작용들과 태도들 및 기대들로 이루어진 복합체에 이름을 붙여줌으로서 존재 자체와 역할들을 구분하고 역할들이 객관화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역할들을 검토해 볼 수 있고 재조정할 수 있고 다른 역할 수행방식들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즉 "역할"개념은 안전하고 자유롭고 자신을 탐색하고 의식적이며 창조적으로 자신의 역할 수행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소시오드라마의 진정한 주체는 어떤 특정한 개인들의 모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집단자체이다(Sternberg & Garcia, 1994). 즉 모든 곳에 사는 인간들의 모임으로 적어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지배하는 어느 정도의 역할들로 특징지워지며 모든 문화는 그 구성원의 역할수행에 따라 특징 지워진다. 따라서 소시오드라마는 극적 방법으로 문화질서를 어떻게 조명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소시오드라마는 문화적 연관관계를 연구할 때 이상적이며 특히 두 문화가 양적으로 융합되어 있고 그 집단원들이 계속 서로 연관되어 상호작용할 때 아주 이상적이다. 사이코드라마적 방법으로서 인간의 갈등과 문제가 어디까지 해결되고 취급할 수 있는가 하는 의

문에 부딪히게 된다. 집합적 원인들은 개인적으로 해석되고 이해되는 차원으로 해결되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소시오드라마는 어떤 특별한 형태로서 이러한 집합적 요소에 눈을 돌려야하는 필요성에 의해 생겨났다(Moreno, 1960). 그러므로 소시오드라마는 다른 사람들과 관심과 역할을 공유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시오드라마는 거의 모든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소시오드라마의 과정

소시오드라마의 과정은 전반적으로 사이코드라마의 과정과 유사하게 준비단계, 행위화 단계, 공유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준비단계는 집단구성원이 집단 밖에서 일어났던 일로부터 관심을 거두어들이고 현재 이 순간 집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그들의 주의를 돌리는 단계이다. 집단원들이 서로 편안해지면 집단의 관심사가 주제로 떠오르면 사람들은 행위에 참여하기를 갈망할 것이다. 준비단계는 인지적이거나 정서적일 수 있고 연출자나 집단원들에 의해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구조적이거나 비구조적일 수도 있다. 준비단계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참여자들로 하여금 실연을 함께 하고 발전시키도록 준비하는데 필수적이다. 준비단계는 집단의 공유된 중심주제를 구체화시키고 표현되도록 해준다. 그리고 공유된 중심주제는 집단성원들이 특정시간에 공유한 긴장과 불확실성, 주요한 정서적 관심이다. 이 때 성원들은 그들이 관심을 끄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의 정서적인 사건들을 떠올리게 된다는 점에서 종종 개인적이다. 그러나 실연은 특수한 개인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탐색하는 집단문제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둘째, 행위화 단계는 집단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장면이나 그들이 선택한 장면을 행위화하는 시기이다. 실연은 직접적으로 공유된 중심문제를 발표하고 참가자들이 행위로 관심사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그 관심사를 더 잘 이해하고,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행위화는 단순히 문제를 토의하는 것보다 많은 장점이 있다. 우선 실연을 통해서 특별한 상황에 대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갖는다. 즉 보복의 위협없이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완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위험하고 댓가를 치르는 반면 소시오드라마는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토의할 때에는 말로 숨기기 쉽고 실제 시험해 보지 않아서 단지 가정할 뿐이지만 우리가 행위화 할 때는 더 많은 가능성을 향해 스스로를 개방하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우리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사고, 우리가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이 자발적으로 정직하게 나타난다.

셋째, 공유(나누기) 단계는 소시오드라마 실연의 종결부분으로 실연에서 활성화된 사고나 감정을 나눔으로서 재통합하는 시기가 된다. 구성원들은 실연되었던 감정, 통찰, 행동들이 자신의 생활 속의 경험들과 비슷한 점들을 함께 나눈다. 여기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경험들을 갖고 있고 비슷하게 반응하고 그들이 느끼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큰 위안이 되고, 특히 성원들이 불안이나 낮은 자존감을 표현할 때 도움이 된다. 또한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르게 느끼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에 대

해 관대해지게 된다. 공유단계에서는 이외에도 탐색된 문제들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들이 나타나는 시기로 다시 이것을 공연을 통해 검증해 볼 수도 있다. 집단성원들은 이러한 과정, 즉 느낌을 나누고 질문을 하고, 행위를 토의하고 새로운 행동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실연의 열기를 가라앉히고 인지적 구조를 변화시켜 스스로 세션의 마감을 준비한다.

소시오드라마의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 세 단계는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진행되며 계속 변증법적으로 진행된다. 즉 공유단계에서 워밍업이 된 문제는 다시 재정의되고 행위화 단계를 통해 탐색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진행도중에 집단원들이 원하는 문제와 상황이 제기되면 언제든지 합의를 통해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탐색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소시오드라마의 과정은 주변에서 중심으로 변화되고 다시 주변으로 변환된다. 준비단계에서는 주변 주제들을 다루면서 중심 주제를 찾아가고 실연에서는 주변적이고 다소 편안한 장면에서 점차 더 갈등적인 중심문제를 다루게 되고 주의력과 작업이 강렬해 진다. 종결이 가까워짐에 따라 공유단계에서 문제의 또 다른 주변으로 이동하면서 느슨하게 종결을 맞게 된다.

3. 소시오드라마의 목표

소시오드라마는 대개 카타르시스, 통찰 그리고 역할훈련을 목표로 하는데 연출자는 준비기간 동안에 이러한 목표들에 대한 욕구를 평가하고, 실연과 공유단계에서 집단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촉진한다.

1) 카타르시스는 집단성원들이 타인이나 자신에게조차 숨기고 있었던 감정들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이러한 억눌린 감정은 문제의 이해를 방해하고 그러한 문제나 감정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반응하는데 있어 자발성을 떨어뜨리고 왜곡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충분히 표현함으로서 비로소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보는 출발점을 제공한다.

2) 또 다른 소시오드라마적인 목표는 통찰인데,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의 참된 모습을 인식하는 것으로 “아하!”의 경험이다. 통찰의 가치는 새롭고 다른 방식으로 특수한 문제를 보게되는 것인데, 소시오드라마에서는 행위를 통해 이해의 도약이 일어난다. 행위통찰은 운동감각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 역할행위를 통해 통찰을 얻는 것은 변화의 강력한 추진력이 된다.

3) 세번째 역할훈련은 사람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역할과 상황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간단히 말하면, 역할훈련은 행동연습인데, Blatner(1979)는 행동연습을 안전한 맥락에서, 이러한 시행행동의 효율성에 관해 피드백이 주어지는, 어느 정도의 만족이 성취될 때까지 반복적인 시도의 기회를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행동들을 실험하는 것이라고 한다. 소시오드라마는 우리의 정서, 마음 그리고 신체에 관여한 감각 운동적인 방법으로 카타르시스는 근본적으로 정서를, 통찰은 마음을, 역할훈련은 신체에 변화의 힘이 된다(Sterberg & Garcia, 1994).

최헌진(1996)은 소시오드라마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개인문제가 아닌, 개인노출이 감소된 상황에서 집단적, 사회적 역할에 접근하기가 유리하다. 둘째, 교육

적인 면에서 학교, 역할갈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 비행청소년집단, 노사문제나 조직과 제도에 대한 갈등이 있는 산업체와 단체에 유용하다. 셋째, 사회적 역할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제적인 행동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현상에 대한 무관심과 그로 인한 다양한 감정적 요소들을 간접적으로 해소하고 사회적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다섯째, 집단문제의 노출, 갈등의 해결 등을 통한 집단의 변화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된다.

소시오드라마는 이상에서 보듯이 사이코드라마와 역할극의 중간쯤에 위치한 것으로 사이코드라마와 이론적 바탕과 기법들을 공유하면서 역할극의 집단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역할극의 형태로 연구되고 있는데 역할극은 사이코드라마의 한 파생물로서 피상적이고 문제지향적인 것으로 간주한다(Blatner, 1987). 흔히 깊은 내면적인 감정표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역할극은 적합하지 않고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과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는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현장이 아니면서 현장성 있게 역할극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장실습이라고도 불리운다(남세진, 1997). 현실의 책임이나 위험 부담없이 집단원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시도해 보고 연습할 수 있다. 역할놀이는 인간관계, 문제해결, 지도력 그리고 집단기능을 연구하려는 목적에 사용된다. 이러한 주제가 자유롭게 연구되어지고 그리고 역할놀이를 하고 이후에 토론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성공적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역할놀이는 가르치는 수단이므로 소집단이나 학급과 같은 곳에서 인간관계, 지도력, 집단발달을 훈련할 때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사이코드라마가 보다 치료적 장면에서 많은 연구가 된 반면 소시오드라마는 학교장면과 수업장면 그리고 직업훈련장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소시오드라마의 주된 방법은 역할극으로 이루어진다. 역할극은 각각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형태주의 집단, 교류분석, 합리적 정서치료, 그리고 행동주의적 집단에서 종종 사용되어져 왔다. Perls(1969)는 역할극에 대해 개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입장으로 역할을 바꾸어서 대화로 진행되는데, 이를 통해 두 개의 양면을 서로 이해하는 상호간의 학습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행동주의 집단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인관계 기술을 재연하는 것을 강조한다. Moreno(1993)에 의하면 역할극은 변화하는 어떤 역할의 훈련이나 발달, 실험, 탐구의 목적으로 어떤 선택된 장면에서 스스로 택하여 어떤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다. 사이코드라마와 소시오드라마에서 역할극은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학습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진행의 기본 수단이다. 단지, 사이코드라마에서는 연기되어지는 문제나 상황이 주인공의 의식에 근거한 것이라면, 소시오드라마에서는 집단 전체의 합의에 의해 주제나 상황도 선택되어지고 수정되어 연기하게 된다. 따라서 소시오드라마에서는 역할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문제를 선택하고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학습되어진다.

4. 소시오드라마의 기법

이 기법은 사이코드라마의 기법과 같다.

(1) 기본기법들

① **역할놀이(Role playing)** : 사이코드라마의 기본적 지주

② **이중자아(Double)** : 이는 자기의 감정을 확실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주인공에게 사용하는 기법으로 가장 깊숙한 심정을 밖으로 유도해 내는 기법이라는 점에서 심리극에서 핵심적인 기법이다. 보조자가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묘사하는데, 이 때 감정을 극대화하고,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언어화하고, 주인공의 태도에 진실성을 묻고, 주인공의 감정에 반대하고, 독백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인공으로 하여금 자신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순된 자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즉 타인의 심리적 쌍둥이가 되어 그의 내부 소리로 작용해서 숨겨진 생각, 관심, 감정 등을 드러내 그가 이를 다시 충분히 표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cf. 다중자아기법)

③ **역할교대(Role reversal)** : 진행중인 극의 상황에서 상대(보조자)와 서로 역을 맞바꾸어 그 장면을 다시 시도해 봄으로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따라서 자신이 어떤 행위를 취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 준다. 이는 정보의 제공, 지각상의 변화 유발, 사고와 행동의 교정과 확장, 주인공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확인, 내면의 또 다른 자아와의 불균형을 해소, 의문에 대한 해답과 행동결정의 책임을 고취시키며,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준다.

④ **거울기법(Mirroring)** : 비디오 효과와 같은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기법으로 심리세계의 거울로서 자아를 직면시켜 준다. 위축되어 있거나 워밍업이 불충분할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해, 혹은 그 영향을 모를 때, 타인과 적절히 상호작용하지 못할 때 이 기법이 적절하다.

⑤ **빈의자 기법(Empty chair)** : 이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하기 어려울 때 완화작용을 해주고, 상황을 스스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게 해 준다. 주인공을 선정할 때에는 "이 빈의자에 지금 누군가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눈으로 그려보세요. 그 사람이 선명히 떠오르면,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상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떠올렸으면 손을 들어보세요"라고 한다. 빈의자에 자신, 타인, 물건을 투사시켜 이야기할 수 있다.

⑥ **독백(soliloquy)** : 주인공 자신의 숨겨진 생각과 감정을 서술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이 외에도 Behind Your Back, Black out, 방백(Aside), 자아구축기법(building technique) 등 다양하다.

(2) 시간과 공간기법

① **미래투사기법(Future projection)** : 이는 불확실한 요소, 애매한 것들을 구체화시켜 주고 살아있게 한다. 예기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신감을 심어 주며 필요한 자질과 기술을 배우게 한다.

② **시간퇴행기법(Time regression)** : 이는 실제로 지금-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믿는 자세가 중요하다. 예컨대, 외상, 불쾌한 경험, 기타 과거의 경험으로 문제가 있을

때, 현재의 어려움이 과거의 경험과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지금-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로 다시 다룬다.

③ 공간기법 : 장애물(차기, 떼어내기, 던지기 등), 힘(밀고 당기기, 밀어내기, 쓰러뜨리기), 거리(spectrogram, sociogram), 크기(앉고 서기) 등.

(3) 상황기법

장애물 기법(억압된 분노, 욕구불만의 표현을 촉진), 편지기법(타인에 대한 감정 탐구), 전화기법(직접 대면을 회피하려 할 때), 모태기법(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이 세상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 거꾸리와 장다리기법(지배자, 자기 비하자), 집단서거기법(집단의 저항, 긴장, 불안 시 대표자 선정), 법정기법, 오케스트라(개방성과 감수성 촉진) 등 다양한 기법이 있다.

5. 학교 장면에서 소시오드라마 (학원폭력의 경우)

1) 문제를 탐색한다.

현재 학생들이 교실에서 함께 느끼고 있는 고민이 뭔지?
예컨대, 집단 폭력, 따돌림 등

2) 주제를 결정하고 상황을 설정한다.

집단 폭력이 교실에서 주요 문제로 등장했다면, 학생들에게 그 상황을 자세히 묻고 그 상황을 설정한다. ->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힘이 센 아이들이 집단으로 힘이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장면

3) 인물을 배정한다.

힘이 센 아이들이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장면을 만들 때 인물이 누가 좋은지 배역을 정한다. 이 때 피해를 당하는 아이의 역할을 할 때 실제의 인물이 아닌 다른 아이가 그 역할을 하게 한다. 그리고 가해자의 경우에는 무방하다.

4) 장면을 실연한다.

장면을 실연할 때는 집단 폭력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똑같이 재연하는 것이다. 재연한 다음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들에게 가해자로서의 기분, 피해자로서의 기분을 확인한다. 그리고 집단에게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기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묻는다.

그 다음 역할바꾸기를 하여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도록 한다. 이 때 그 동안 아이들을 괴롭힌 주동자를 가해자가 되도록 역할을 바꾸는 것이 좋다. 역할을 바꾼 다음, 다시 한번 같은 방식으로 폭력을 가하는 드라마를 실시한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묻는다.

5) 연출 상황에 대한 토론과 분석을 한다. 즉 실연을 다 한 후, 집단 전체에게 묻는다.

학교 폭력에 대해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는다. 이 때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아이들이 있고, 가해자의 입장에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장을 가장 잘 대표할 만한 학생과 가해자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만한 학

생을 선정해 논리적으로 소신껏 의견을 주장하도록 기회를 준다.

6) 새로운 행동을 실습하거나 계획을 세운다.

피해자가 다소 바보스럽게 행동했을 때 아이들이 폭력을 가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 때 가해자들이 폭력을 가하지 않고 다소 바보스러운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방법들을 학생들 전체가 의견을 나눈 다음, 새로운 방식으로 실습하도록 한다.

7) 소감 나누기

다 끝나고 나면 역할을 했던 아이들(배역)에게 역할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소감을 묻고, 관객으로 있던 학생들에게도 소감을 이야기하도록 기회를 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드라마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교훈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찾도록 하고 끝낸다.

6. 역할극을 활용한 상담활동

이는 현재 심리치료, 상담 및 사회교육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으로 개발되어 오고 있다. 즉 역할극은 지금-여기에서 의도적으로 개방된 만남의 장을 창출함으로서, 자칫 자기 주장에만 집착하게 되고 건강하지 못한 자기 안에 묻히게 되는 오류와 편견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성격을 극복하고 교정하며, 개인의 경험과 이해의 새로운 폭을 넓혀 준다. 다시 말해 자기가 처한 장면에서 어떤 역할을 선택하여 그것을 연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조사, 실험, 역할의 변화·개선·훈련을 목적으로 한다.

그 과정을 보면 1) 문제 규명, 2) 상황 설정, 3) 인물 배정, 4) 장면 실연(enactment), 5) 연출 상황에 대해 토론과 분석, 6) 새로운 행동을 실습하거나 계획을 세우기.

• 역할극의 개인상담에의 적용(청소년) •

역할극을 사용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라포가 중요하다. 상담자와의 아주 신뢰로운 관계가 바람직하며, 청소년의 경우에는 상호간에 존경하는 태도로 충분할 때도 있다. 처음 라포가 형성되면, 역할극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겠다.

1) 사회원자(social atom) 내의 의미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힌다. 청소년 내담자에게 간단히 질문함으로서 밝힐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 의미있는지 짧게 이야기하도록 권한다.

2) 역할연습의 기준을 한가지 정한다.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정보입수에 기본이 된다. 내담자의 사회적 기능, 가족 관계, 학업 성취정도 등은 모두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연습 시에는 한가지만으로 기준을 정한다. 중다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혼돈이 있게 된다.

3) 역할을 해보도록 돕는다. 청소년 내담자가 보여준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선택한다. 선택된 사람의 역을 하도록 내담자에게 지시한다. 마치 그 사람이 되어서 말하고 질문에 답하도록 한다. 청소년의 경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역할을 수행하고 하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되는”것에 대한 개념이 서지 않는 청소년 내담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에, 상담자는 그 개념을 보여줌으로서 도와줄 수 있다. 즉, 상담자는 자신의 부모나 친구의 역할을 하여 상담자 자신(내담자가 역할)에게 말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면 된

다. 이때에 상담자는 스스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약간 개인적인 질문들까지도 해 봄으로써 청소년의 흥미를 증진시킬 수도 있겠다. 내담자가 이 기회를 통해 상담자와 함께 역할을 해 봄으로서 라포를 빨리 만들 수도 있다는 이점이 있다.

4) 역할을 하는 청소년 내담자에게 질문하기. 청소년 내담자가 어떤 의미 있는 사람의 역할을 맡게 되면,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질문을 시작할 수 있다. 질문을 할 때에는 단답식의 질문보다는 자유롭게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의 질문을 던진다. 이야기를 서술하는 식이 되도록 질문을 할 때 방어가 적어진다. 따라서, "왜...?"라는 식의 질문보다는 "어떻게...?"라는 식의 질문이 효과적이다. 여기에서 상담자는 원하는 정보를 얻게 된다.

5) 상담자는 내담자의 패턴이나 또는 괴리가 있는지 유의한다. 내담자가 타인의 역할을 하면서 투사하는 자기지각 세계를 관찰한다. 그리고 자기 지각 세계와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지를 본다. 괴리가 있다는 것은 내담자가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 괴리는 내담자가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고, 현실을 왜곡한 것일 수도 있다. 역할극을 통해 알게 되는 정보는 내담자가 스스로 타인에 의해 어떻게 지각되는지 그의 믿는 바를 보여준다.

이 사례는 성 엘리자베스 병원내의 청소년 심리극 집단에서 적용된 것으로, 내담자(S)는 16세의 남자로, 집에서 공격적인 행동, 형제들과의 신체적인 싸움, 기물 파괴 등이 있었으며, 어머니에 의해 입원되었고, 어릴 때부터 신체적,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 왔다. 다음은 내담자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다.

Dr : S는 어떤 아이죠?
S(어머니 역할): 괜찮아요.
Dr : 무슨 뜻인가요?
S : 내가 하라는 대로 할 때에는 그리 나쁘지 않다는 말이죠.
Dr :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는 편인가요?
S : 그러고 싶을 때에는요.
Dr : 흠, S는 어떻게 입원하게 되었죠?
S : 제가 입원시켰어요. 집을 부수고 싸우고 난리였어요. 가끔 난폭해 질 때가 있거든요.
Dr : 왜 그럴까요?
S : 나쁜 애들이랑 몰려다녀요. 대마초도 피우고 제 정신이 아닌 채 집에 들어와요. 말을 시킬 수가 없을 정도예요.

내담자는 특히 명절 때 어머니가 자기에게 집에 있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였다. 상담자는 이 점을 좀 더 탐색하기로 했다.

Dr : 아들이 그러는데요. 어머니는 크리스마스 때에 그 애가 집에 안 왔으면 한다면서요?
S : 그래요.
Dr :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죠?
S : 가족이 모두 모이면 그 애는 언제나 집안을 난리를 만들어요. 저를 비롯해서 온 가족들이 너무 너무 힘들어해요.

Dr :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S : 제발 어른스럽게 굴어라.

위의 내용을 통해 상담자는 몇 가지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내담자는 자기가 집안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고 어머니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했으나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내담자는 자기의 행동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행동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요구, 즉 가족내의 위치를 갖기를 원하고 있는 점이다. 한편, 집단으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지각하고 있으며, 약물이 공격성을 자극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역할극을 통해 내담자의 주관적인 지각세계와 지각된 대인관계를 실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내담자의 라포형성에 도움이 되고 저항을 줄일 수 있어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에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이 역할극을 심리극의 초기에 사용하면 주인공의 선정과 함께 이러한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7. 소시오드라마의 실제

8. 조별로 역할극 활동

참 고 문 헌

김광운 (2000). **심리극의 효과와 실존적-현상학적 의미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박희석 (2000). **사이코드라마를 활용한 청소년 상담전략.** 전국청소년상담실협의회 세미나.

이정희 (1998). **비행청소년을 위한 심리극과 사회극 프로그램의 상담효과 요인 및 회기성과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 (1995-1997). 마음의 극장. 통권 제 1,2호.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 역 (1997). 사이코드라마의 토대. 서울: 중앙문화사.

Sternberg, P., & Garcia, A.(1994). Sociodrama: Who's in your shoes? [조성희, 김광운 역(1999). **사회극을 통한 우리들의 만남**. 서울:학지사)]

감수성(심성) 개발훈련

박 희 석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실 전임상담원

I. 감수성 훈련이란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이란 '나', '너'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에 관한 감수성을 개발함으로서 자기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과 조화를 기하고, 조직 속에서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협동적이고 생산적으로 발전시키는 특수한 소집단 훈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와 타인,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 이유는 피상적이거나 지적인 인식만으로는 결코 타인과 행복할 수 없고, 신뢰로운 인간관계나 집단 속에서의 지도자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나와 타인의 마음과 감정을 인식하고, 나와 타인과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감정 및 마음의 흐름을 예민하게 감지하여 상황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서 인간관계와 집단조직을 생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나 자신과 타인과의 인간관계적 차원의 심리교육은 교양강의나 각종 관련 참고서적의 연구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 일상생활 장면에서도 항상 나와 타인에 대한 감정의 탐색 및 교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일상적 감정경험은 극히 단편적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맥락에서 생산적인 감정교류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마음과 감정교류의 체험적 학습'을 경험적으로 실습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 특수교육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체험적 인간관계의 실습은 강의식 수업이나 대중적 교양강좌와 같은 일반교육 형태와는 달리, '실험실적 특수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소집단으로 구성된 피교육자들은 일상적 생활장면과는 분리된 장소에서 훈련자의 지도와 안내 하에 상호간의 마음과 감정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이를 교류하며 정리하게 된다. 따라서 정형화된 이론의 설명이나 토론은 가능한 한 배제되고 직관적인 생각이나 순간적인 감정의 탐색적 표현 및 상호반응이 강조된다. 이런 점에서 감수성 훈련은 특수한 '인간교육'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감정적 경험의 탐색과 표현, 그리고 정리를 통한 일종의 '정서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1. 감수성 훈련의 특징(방법)

1) **'학습방법을 학습'하는 것이다.** 감수성 훈련에서는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학습한다. 즉, 지식의 전달, 이해만으로 인간 및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를 보는 감각과 대처양식을 스스로 체험하여 정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2) **실험실적 학습이다**. 일상생활 장면에서 인간관계 및 개인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 및 조건들이 작용한다. 반면에 감수성 훈련에서는 실험실적 학습에 의하여 통제된 환경에서 집중적 관찰과 실습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감수성 훈련이 가정 및 직장 등 일상생활과 격리된 고립적 공간에서 실시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일상생활 장면에서는 집중적인 학습과 관찰의 어려움 등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훈련과정에서 단순노출에 대한 단순반응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탐색적이고 시도적인 표현과 아울러 결과의 확인, 그리고 보다 생산적인 반응

양식의 검증이라는 '실험적 자세'가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3) **자신에 대한 인식 및 타인에 대한 자기공개적 태도를 배운다.** 감수성 훈련은 자기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따른 감정양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타인도 나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자신과 타인에게 알려져 있는 마음의 영역이 확대될수록 보다 생산적인 인간관계와 행복한 개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본다.

4) **기존관념의 해빙과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가 재응고가 이루어진다.** 인간관계이든 생활방식이든 간에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일단 과거의 고정관념 및 감각을 무너뜨리고, 새로이 발견되고 체험한 감각과 행동양식을 용해하여 전보다 발전되고 통합된 형태로 다시 응고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해빙과 재응고의 과정이다.

감수성 훈련에서의 해빙작업은 집단의 심리적 안정감과 기존관념 및 감각을 검토하도록 유도하는 집단 내의 탐색적 자극 및 반응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진다. 즉 개인에 대한 인격적 위협이 배제된 집단 특유의 분위기 속에서 실험적인 자기탐색과 검토를 하고, 지지적인 동료들의 집중적 자극에 의해 고정관념이나 기존의 정서적 반응양식이 용해되는 것이다. 또한 재응고 작업도 일종의 인지구조화 과정으로서 해빙과정에서의 정서적 경험들을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에는 정서적 경험 및 인지적 관점들간의 연결 또는 집단에서 학습된 것을 현실 사회환경에서의 감각, 행동양식에 조정, 통합시키는 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재응고를 위한 인지적 조정과 통합은 주로 훈련과정의 중반 또는 후반에 도입하는 이론마당에서 더욱 촉진될 수 있다.

5) **지금과 여기에 초점을 맞춘 상호교류를 강조한다.** 참여자들은 과거, 미래 및 집단 밖에서의 일이 아니라, 훈련장면 중 '지금과 여기'에서 느끼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표현하고 이에 반응해야 한다. 즉각적으로 제기된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집단원들 간에 상호교류가 될 때에만 보다 정교한 인간관계의 태도와 기술이 정확하고 올바르게 학습되어지지 때문이다.

6) **느낌과 직관적인 반응을 우선적으로 표현하도록 권장한다.** 느낌과 직관적 생각이 아닌 인생철학이나 기존관점을 자기중심적으로 발언하고 반응하면, 바람직한 상호 의사소통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훈련의 목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드백이다. 이는 상대방의 발언에 대한 나의 형식적 반응이 아니라, 상대방의 발언 내용이 나에게 어떤 느낌과 자극을 주었는가 하는 점을 상대방에게 참고가 되도록 되돌려주는 반응을 말한다. 바로 이 피드백을 통해 참여자들의 느낌과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2. 감수성 훈련의 목표

1) 자아발견

① 자기의 생각, 느낌, 행동, 능력 등의 특징에 눈뜨게 한다.
② 묻혀 있고 왜곡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여 수용·개발한다.
③ 자신의 경험에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자신의 지각과 경험의 불일치에 대한 깊은 통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자신의 귀한 품성을 발견하여 독자성과 자율성을 성장시킨다.
⑤ 타인과의 견해의 차, 장단점 등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⑥ 인간의 성실성, 인내성, 관용성을 경험하고, 공동사회 속에서 자기 역할을 인식한다.

2) 타인이해

①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나와 다른 독창적인 존재임을 수용하게 한다.
② 타인을 신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는다.
③ 타인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고 공감의 폭을 넓힌다.

3) 관계개선

① 자기와 타인의 관계, 집단의 형성과 발전 등에 관심을 갖게 한다.
②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③ 자기표현의 유연성과 다른 사람의 발표를 경청하는 태도를 기른다.
④ 서로 신뢰하고 협동하며 상호관계를 좋게 한다.

4) 행동변화

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게 되므로 자기성장의 의욕이 일어나 자아실현의 동기가 높아진다.
② 협동하며, 규범을 지키는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다.
③ 개방적인 사회성이 발달하며 친숙한 대인관계가 형성된다.
④ 바람직한 가치관과 정체감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

여기서는 일선 초·중등학교 교사들에게 초등학생과 중등학생들에게 실시할 수 있는 구조화된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 학생들이 흔히 드러내는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예,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와 개인의 문제(예, 약물남용, 가출, 도벽, PC중독 등)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3. 리더가 가져야 할 기술

1) 관심기울이기
2) 경청하기
3) 반영하기
4) 명료화하기

5) 요약하기
6) 해석하기
7) 질문하기
8) 직면시켜주기
9) 심리적 지지해주기
10) 행동을 제한하기
11) 촉진하기
12) 공감하기
13) 자기 노출하기
14) 피드백 주고받기
15) 강화하기

4. 진행과정

1) 준비단계

① 대상모집 및 확인 : 동질집단, 이질집단, 남·여 혼성집단 등 학력 차이에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공통된 특색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들의 공통적 욕구는 어떤 것들인지 등에 대해서 사전에 알아보아야 한다.

② 인원편성 : 소집단은 한 집단을 10명 내외로 편성하는 것이 적당하다. 또 가능한 남·여의 비나 연령을 고려하여 집단을 편성한다. 물론 동질집단이나 이질집단의 경우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집단의 주제를 감안하고 그 효과성을 감안하여 집단에 대한 인원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집단의 크기는 집단의 역동이나 프로그램에서 각 개인의 발언의 양과 질을 관찰하고 탐색할 리더의 역량에 다소 좌우하기는 하지만 8-12명 정도가 적합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러한 소집단 몇 개가 어울려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으며, 중집단(50명 정도) 또는 대집단(100명 이상) 정도도 가능하다.

③ 장소 선정 : 장소는 실내 혹은 실외, 바닷가나 산 등 어느 곳이나 상관없지만 가능한 다른 사람들이나 자연환경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조용하고 아늑하고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모여 앉을 수 있는 아늑한 분위기의 장소가 좋다. 학교에서는 학교 생활관이나 특별교실, 수련원 등이 좋다.

④ 시간 및 프로그램 편성 : 원칙적으로 감수성 훈련 프로그램은 10개 안팎의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일 3시간 정도로 8-10회를 실시할 수도 있으나 가능한 숙박을 하는 집중적인 집단학습이 효과가 크다. 전체적으로는 2박 3일(20시간)이나 4박 5일, 또는 6박 7일이 좋다. 학습단위는 90분 정도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중간에 20분 정도 쉬는 시간을 둔다.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우선 집단원들의 욕구를 분석하거나 특색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선별한다. 2박 3일씩 이루어지는 수련과정에서는 감성적 경험으로나 사후평가(소간) 좋은 프로그램이 많으나, 여러 프로그램간의 연계성을 생각하여 전체 프로

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선택했다해도 각 프로그램의 특색과 장소적 여건, 시간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정표를 만들어야 한다. 즉, 저녁에 하면 더욱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아침에 실시할 때는 그만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 진행단계

① 참가 대상자들의 성격 및 특징, 또는 장소나 기후적 여건을 파악하고 참여자들의 '밑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인사말을 준비한다.

② 프로그램이나 장소의 성격에 따라 책상을 사용할 것인가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여 필요하다면 책상을 배열한다. 책상은 참여자 모두가 다 보이도록, 최소한 가깝게 탁자형으로 하는 것이 좋다.

③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참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도록 한다.

- ▸ 자신의 이야기든 남의 이야기든 관계없이 끝까지 열심히 듣는다.
- ▸ 자신의 지금-여기에서의 느낌을 열심히 말한다. 조그맣고 시시하거나 아주 미세한 느낌에 관한 이야기라도 한다.
- ▸ 다른 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느껴지거나 떠오르는 생각도 다 이야기한다.
- ▸ '그때-거기'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여기'의 느낌을 중심으로 말한다.
- ▸ 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에 해당하는 것도 많음을 유의하면서, 만약 그러한 것들을 서로 존중해 준다는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솔직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없음을 확인하며, 프로그램이 끝난 뒤 문을 열고 나가면 모두 다 잊기로 한다.
- ▸ 지금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에 비해 다른 참여자가 더욱 비중 있는 문제로 침묵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참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도록 기다려 주도록 한다. 물론 이 부분은 모두 자기 자신의 문제를 지각하는 상대적 문제임을 알려준다.

④ 모든 참여자들의 공감이 중요하지만 특히 리더의 공감은 더욱 더 중요하다. 또 그런 감정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도 참여자들이 모델이 된다.

⑤ 모든 프로그램은 특별히 기대되는 효과가 따로 있지 않다. 대체로 먼저 프로그램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러한 효과를 얻었다고 진술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리더는 참여자들에게 프로그램 실시에 앞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언급이 필요가 없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일반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요약하거나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언급하는 것은 유익하다.

⑥ 리더는 참여자 개개인이 프로그램의 경험과 내용을 발표할 때 다른 구성원들이 경청하는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⑦ 리더는 모든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기억해 두었다가 종합정리할 때 참고한다.

⑧ 각 프로그램의 경험 내용과 함께 발표 및 느낌 발표까지 과정을 모두 받아들이도록 한다. 여기서 가능한 모든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또 가능한 모든 것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집단 경험학습은 실험실적 학습이다.

Ⅱ. 감수성 훈련의 실제

1. 관계개선 (신뢰감과 집단응집력 향상)

1) 별칭 지어주기

◆ 목적 : 남에게 비추어진 자기의 첫인상을 알고, 평등한 관계를 맺기 위한 기초단계로, 자신을 여러 사람 앞에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동안 모두 다른 개성을 인정한다.

◆ 준비물 : 비닐명찰(인원수), 명찰용지(담당), 크레파스(24색) 또는 매직(12색)

◆ 진행방법 : 3명이 1조가 되도록 하여 마주보고 앉는다. 1명당 1장씩 명찰용지를 나누어주고 각자가 이번 훈련과정 동안 불리고 싶은 별칭 한가지를 한 장의 종이에 하나씩 적는다. 다음은 1명당 2장씩 명찰용지를 주고 자기 조 두 사람에게 느낀 분위기나 인상에 착안하여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별칭을 한가지씩 지어서 적어준다. 다 지어주었으면 그 별칭을 지어주게 된 동기와 별칭을 서로 설명해 준다. 자기별칭을 3가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게 그 선택의 동기를 설명하고 비닐케이스에 새롭게 적은 명찰용지를 넣어 달도록 한다. 전체가 모여 별칭을 소개하는데 리더부터 먼저 하여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전체가 한다. 지금까지 과정, 즉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별칭을 지어주는 동안에 느낀 기분이나 현재의 느낌을 2명씩 짝을 지어 주고받는다.

2) 인간 실타래 풀기 1

◆ 목적 : 이 방법은 집단원의 수에 관계없이 가능하며, 집단 초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집단원들이 서로 친밀해 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 준비물 : 없음

◆ 진행방법 : 집단원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몇 개의 소집단(5-8명)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고, 진행하면서 인원수를 점차 늘려가면서 실시할 수 있는데(예, 처음에는 5-8명, 두 번째는 10-16명 등), 마지막에는 집단 전체 혹은 30-40명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5명씩 짝을 지어,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왼손을 위로하고 오른손을 아래로 해서 양손을 교차시켜 보세요. 그런 다음 옆 사람의 손을 잡으세요. 이러면 모두 하나가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손을 절대 놓지 말고 교차된 손을 풀어보는데, 중요한 것은 밖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서로 안쪽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풀어보세요."

이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두 사람이 손을 위로 올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차례로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한바퀴 돌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 몇 개의 집단으로 할 경우 가장 늦게 풀거나 풀지 못한 집단은 잠시 벌칙을 주는 것도 좋다. 그리고 집단이 인간 실타래를 다 풀고 나면 몇 개의 소집단으로 다시 묶어 조금 더 큰 집단을 만들어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집단 전체에 실시한다.

3) 인간 실타래 풀기 2

◆ 목적 : 이 방법 역시 초기에 집단원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

으로써 집단원들이 서로 친밀해 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 준비물 : 흥겨운 음악 (없으면 집단원들이 함께 노래부르면서)

◆ 진행방법 : 집단원 전체가 서로 손을 잡고 한 줄로 선다. 그런 다음 집단원들은 모두 손을 잡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혹은 노래를 부르면서 맨 앞에 있는 사람(대장)이 이끄는 대로 따라 다닌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집단 원들 사이사이로 돌아다니는데, 나중에는 집단이 엉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될 때 중지한다. 이 때 리더는 엉켜진 인간실타래를 풀도록 한다. 이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집단원 중에 한 명(맨 앞에 혹은 뒤에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게 좋다)을 선정해서 차근차근 풀도록 한다. 푸는 방법은 집단원들을 모두 앉게 한 다음, 차례로 한사람씩 일어나 이동해서 풀도록 하는 게 좋다.

4) 종이 눈싸움

◆ 목적 : 이 방법은 집단원들이 활동을 통해 친숙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집단 초기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눈싸움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집단의 참여동기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준비물 : 사람 수 보다 많은 신문지나 종이

◆ 방법 : 우선 리더는 집단을 두 집단으로 나눈 다음, 신문지나 종이를 나누어주고 적당한 양의 눈을 만들도록 한다. 그리고 두 집단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무대 양편에 배치시킨 다음, 자신들이 만든 눈을 상대편에 던져 맞추게 한다. 이 때 몸에 맞은 사람은 '아웃'으로 간주하고 주어진 시간까지 많이 남아 있는 팀이 이긴 것으로 해도 좋다.

5) 바닷속으로

◆ 목적 :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집단원들이 친밀해 지도록 하며, 집단 초기에 참여동기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학급 내에서 학생들간의 응집력이 낮을 때 전체를 대상으로 응집력을 높일 수 있다.

◆ 준비물 : 의자, 자유스럽게 뛰어 다닐 수 있는 공간

◆ 진행방법 : 집단원들을 2인 1조가 되게 하고, 각 조원들은 언제나 손을 잡고 있도록 한다. 그리고 놀이가 진행되는 방(무대)을 바다라고 가정한다. 각 조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로 정하게 한 뒤, 의자를 사람 수보다 2개 부족하게 준비하고 2개씩 쌍을 방안에 흩어 놓는다.

술래조를 제외한 모든 조원들을 의자에 앉게 한 다음 술래는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각 물고기의 이름을 부른다. 호명 받은 조는 의자에서 일어나 술래조 뒤에 꼬리를 이어 꼬불꼬불 방안을 다니다가 꼬리가 어느 정도 길게 되었을 때 술래조가 갑자기 "바다 깊은 곳으로"라고 외치면 조원들은 쌍쌍이 의자를 찾아서 자리에 앉는다. 이 때 마지막까지 자리를 찾지 못한 조가 술래가 된다. 중요한 것은 조원들은 언제나 손을 잡고 다녀야 한다.

6) 벽뚫고 탈출

◆ 목적 : 이 게임은 집단원 전체가 서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집단의 응집력이나 친밀감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 준비물 : 없음
◆ 진행방법 : 집단의 수는 10-15명 내외로 하되, 많으면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 6-7명 정도가 되게 한다. 집단원들은 원을 만들어 팔짱을 낀다. 팔짱 사이로 사람이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만든다. 한 사람씩 술래가 되어 원 안에 들어가 원 밖으로 빠져 나오는데,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들은 원 안에 있는 술래가 쉽게 빠져 나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전 집단원이 한번씩 술래를 경험하고 원 밖으로 빠져 나온다.

7) 인간사슬 끊기

◆ 목적 : 이 방법도 집단프로그램 초기에 집단원들에게 친밀감과 신뢰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된다.
◆ 준비물 : 안전하고 넓은 장소
◆ 진행방법 : 먼저 집단을 두 집단으로 나눈다. 집단의 수는 대개 10-20여 명이 되게 한다. 이 때 한 집단은 인간사슬이 되고, 한 집단은 이를 완전히 헤체시키는 해체반이 된다. 사슬이 된 집단은 일렬로 앉아 떨어지지 않도록 양팔로 앞사람을 단단히 붙잡는다. 해체반이 이 인간사슬을 해체할 때는 집단원들 전체가 낱낱이 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전부가 완전히 끊어져야 한다. 두 집단 모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리더는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여 더 빨리 끝난 집단이 승리한 것으로 한다. 진 집단에게는 적절한 벌칙은 주는 것이 더 흥미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심으로 자칫 과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집단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

8)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 목적 : 이 게임은 집단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집단의 응집력을 높이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또한 집단원들이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앉아 있을 때 자리를 새롭게 배치함으로써 다른 집단원들과 빨리 친숙해지게 한다.
◆ 준비물 : 전 집단원보다 하나 적은 수의 의자
◆ 방법 : 우선, 집단원들은 원을 만들어 의자에 앉게 한다. 이 때 술래가 앉을 의자를 하나 빼고 술래를 정한다. 그 다음, 술래는 원으로 앉아 있는 집단원 중의 한 사람을 정해 그 앞에 서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라고 묻는다. 이 때 지목 받은 사람은 “예” 혹은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데, “예”라고 답변하면, 지목 받은 사람 양옆에 앉은 두 사람이 재빨리 서로 자리를 바꿔 앉아야 한다. 그 사이에 술래가 먼저 앉게 되면 앉지 못한 사람이 그 다음 술래가 된다.

그러나 지목 받은 사람이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술래는 “그럼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라고 다시 묻는다. 이 때 술래가 어떤 특정한 인물(예컨대, “안경을 쓴 사람”, “아침밥을 먹은 사람, 화장을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집단원들 가운데, 그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자리를 바꿔 앉아야 한다. 이 때도 술래는 재빨리 자

리에 앉아야 한다. 역시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이 다음 술래가 된다.

몇 번 시도하여 술래가 4-5명 정도 잡히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칙을 주는 것도 집단의 응집력과 참여 동기를 더 높일 수 있다.

◆ 변형 1 : 집단원의 수가 비교적 적을 때(10-20명 내외)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술래가 한 사람을 지목하여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라고 묻고, 지목 받은 사람이 "예"라고 하면, 양 쪽 사람이 바꿔 앉는 것은 같으나, "아니오"라고 했을 때 술래가 "그럼 어떤 이웃을 사랑하죠?"라고 묻고, 지목 받은 사람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요"라고 했다면, 술래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에게 가서 사랑의 포옹을 해 주고 그 자리에 앉는다. 물론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술래는 그 중 한 사람을 선정해 사랑의 포옹을 하면 된다. 일단 포옹을 받은 사람은 다음 술래가 되는 것이다.

◆ 변형 2 : 둥그렇게 앉을 수 없는 상황일 때(극장식 의자) 자리 배치방법

1) 위와 같은 방식과 똑같이 술래는 관객석에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지목하여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라는 질문한다. 위에서처럼 "예"하게 되면, 지목 받은 사람 양옆에 있는 사람이 서로 자리를 바꿔 앉는 사이에 술래가 앉으면 된다. 그러나 지목 받은 사람이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같은 방식으로 "그럼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라고 질문한 다음, 특정한 인물을 이야기하면 그 사이에 술래가 앉으면 된다. 이 때는 가장 늦게 앉는 사람이 다음 술래가 된다.

2) 객석에 사람들이 밀집되지 않았거나 극장식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 술래 한 사람을 정해 술래가 어떤 특정한 사실(예컨대, "나는 오늘 이빨을 닦았습니다",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팬티를 안 입었습니다")을 이야기하면 그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와 같이 다른 자리에 앉는다. 이 때는 가장 늦게 앉는 사람이 술래가 된다.

9) 원 안에서 넘어지기

◆ 목적 : 이 방법은 집단원들에게 서로 신뢰감을 갖도록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 준비물 : 없음

◆ 진행방법 : 집단의 수는 10명 내외가 적당하다.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몇 개의 집단으로 만들어 진행해도 좋다. 집단원들은 서로 어깨가 닿지 않도록 하고 작은 원을 만든다. 차례로 술래가 되어 원 안 중심에 들어가 눈을 감은 상태로 뻣뻣한 자세로 발을 모으고 선다. 술래가 마음대로 이곳 저곳으로 넘어지면 다른 집단원들은 그가 땅에 닿지 않도록 잘 받쳐줘야 한다. 술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받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몸이 일직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중력의 법칙에 따라 아무런 저항이 없이 그대로 쓰러져야 한다. 이 때 신뢰감이 낮은 사람은 처음에 주저하게 되지만, 이렇게 몇 번 되풀이하여 넘어지면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질 수 있다. 집단원들이 전부 경험하고 나면 서로 소감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

10) 공통점 찾아 소개하기

◆ 목적 : 소집단에서 뿐 아니라 대집단에서도 소개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대집단

에서 한사람씩 소개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칫 지루해질 우려가 있다. 대체로 집단에서 소개가 핵심적인 활동이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략히 하고 지나가야 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공통점 찾아 소개하기이다.

◆ 준비물 : 없음

◆ 진행방법 : 집단원들은 둥글게 앉는다. 지도자가 앞으로 나와서 짝짓기 게임을 몇 번 하다가 5명씩 짝을 지으라고 한다. 짝을 지은 사람들끼리 공통점을 2-3개 찾아보라고 한다. 이때 공통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게 하면 집단원들끼리 상호작용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 다음, 짝지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통점을 전체집단에게 소개한다.

11) 신뢰의 산책

◆ 목적 : 자신을 상대방에게 맡김으로써, 또 도움이 필요한 상대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함으로써 신뢰를 경험하도록 한다.

◆ 준비물 : 손수건이나 눈가리개

◆ 진행방법 : 집단성원이 모두 두 사람씩 짝을 짓도록 한다. 한 사람은 인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장님이 된다. 인도자는 장님의 손을 잡고 방안을, 혹은 실외를 산책하게 한다. 인도자는 장님의 시력만 제외하고는 모든 다른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최대한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도록 한다. 15분 정도 지난 후 역할을 바꾸어 실시한다.

이 때 끝난 다음, 장님이 된 기분? 인도자가 인도해 준 최선의 경험은 무엇인지? 인도자에 관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장님에 관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인도자가 된 기분은? 지금 짝을 지었던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한 느낌은? 등을 나눈다.

2. 자아발견

1) 시원한 자리(Cool seat)

◆ 목적 : 이 방법은 집단원들간의 진정한 만남과 자존감을 충족시켜줌으로써 집단원들간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다양한 장점들을 찾을 수 있게 된다.

◆ 준비물 :

◆ 진행방법 : 먼저 2인 1조가 되게 하여 두 사람이 서로의 장점을 상대방에게 공개한다. 이렇게 먼저 두 사람씩 서로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하게 한 다음, 집단원 전체가 다시 모인다. 이 때 한 사람씩 짝을 뒤돌아보게 하고(Behind your back), 자기 짝의 장점을 소개해 주면 집단원들도 함께 그 사람의 장점을 돌아가면서 이야기 해 준다.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10-15명 내외로 집단을 나누어 실시하는 게 좋다.

2) 나는 왕이로소이다

◆ 목적 : 집단원들에게 힘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여, 매사에 자신감과 자발성을 높여준다. 인원은 30-40명 내외가 적당하며, 많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 준비물 : 왕의 역할이 앉을 수 있는 편안한 의자

◆ 진행방법 : 집단을 원으로 둘러앉게 한 다음, 원 안에 의자를 하나 놓는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왕이 되어보는 겁니다. 아마 평생 처음 있는 일이겠죠. 평소에 이런 무대가 불편하고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은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자 의자가 보이죠. 누구든 나와서 이 의자에 앉으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뭐냐, 바로 신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신하는 머리를 조아리고 왕을 찬양해야겠지요. 예컨대, 왕이 '여봐라-'하면, 신하는 '네-이'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의자에 앉은 왕께서는 신하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절대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자- 누구든 이 자리에 앉아 왕이 되어보십시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전하! 하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무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며, 집단원 모두에게는 웃음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영웅되기

◆ 목적 : 집단원들 개인이 가장 좋아하는 영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또한 그 영웅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이해하게 한다.

◆ 준비물 : 없음

◆ 진행방법 : 집단원들에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영웅(혹은 스타)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상적인 면을 떠올리도록 하고, 그 사람이 되어보게 하게 한다. 그런 다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간단히 소개하게 한다. 이 때 집단원이 많을 경우에는 4-5명씩 짝을 짓도록 하여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좋다.

"여러분들은 방금 소개한대로 선택받은 영웅들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영웅들의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분들의 모임이겠죠? 이제 그 영웅이 되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마음껏 해보는 겁니다."

이 때 처음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영웅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영웅되기'는 집단원들이 다른 놀이를 통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실시하는 것이 좋다. 영웅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리더는 다시 집단원들에게 질문한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웅의 역할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3명씩(혹은 4-5명 가능) 짝을 지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왜 그 사람을 영웅처럼 좋아하는지 돌아가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이렇게 선택한 영웅이 자신의 힘(power)의 욕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서로 이야기하게 한다.

4) 종이로 자기표현하기

◆ 목적 :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은 언어적이고 직접적인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물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일종의 투사적 방법으로서 자신의 특성이나 내면세계를 종이에 투사함으로써 표현한다. 이 방법은 집단 초기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중기나 후기에 자기노출을 하기 위한 단계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 준비물 : 1인당 1매의 A4 용지

◆ 방법 : 리더는 집단원들에게 깨끗한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준다. 연필이나 가위 등 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찢거나 접거나 구겨 자신을 표현한다. 만들어진 종이 작품 하나에 연상되는 느낌을 자유롭게 말한다. 마지막으로 각 집단원은 그 종이 작품을 통해 자신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을 설명한다. 이 방법은 자신에 대한 사실적 정보가 아닌 감정적 세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개인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5) 인생그래프

◆ 목적 : 인생그래프는 생애도표라고 불리기도 한다. 인생그래프는 집단원 스스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디로 향해 나가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진로지도나 생애발달 과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생그래프를 자기노출을 시키는 방법에 포함시켰는데, 그 이유는 인생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과거의 힘들었던 상황, 좋았던 상황, 앞으로의 기대 등이 한꺼번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노출을 시키는 효과가 더 강한 것 같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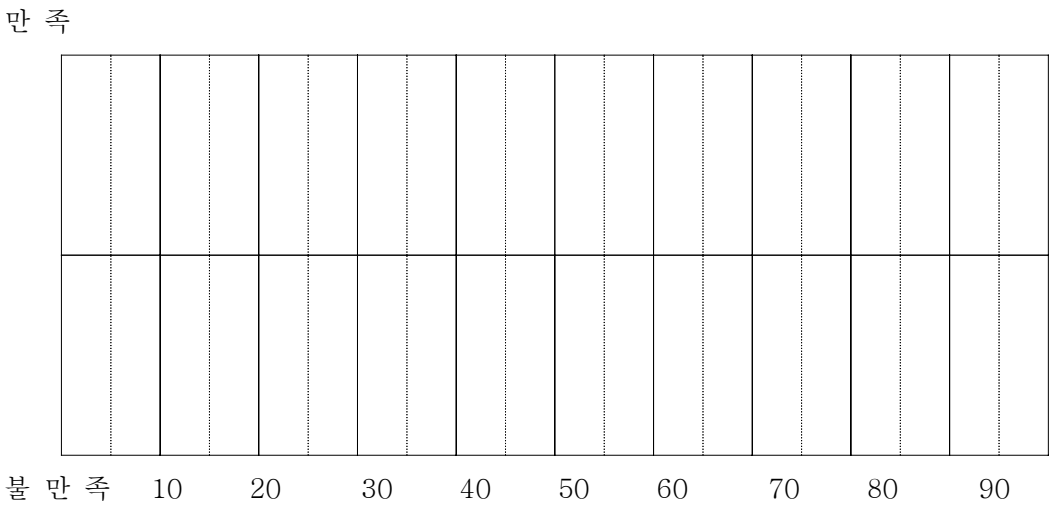
◆ 준비물 : 필기도구, 인생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표

◆ 진행방법 :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명상에 잠기게 한다. “태어나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나간 순간순간 애써서 살아온 나는 기뻤던 일, 슬펐던 일, 방황했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을 겪으면서도 최선을 다하여 지내왔습니다. 힘들었을 때 그 누가 건네준 말 한마디, 고통스러웠을 때 손 한번의 잡아줌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내가 슬퍼할 때 같이 해준 친구 등 모든 이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들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날들에 대해 기대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제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 - 가정에서 가족들,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 이웃에서 어른들과 형, 아우들 - 을 생각하며 학교에 들어가기 전 시절,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시절), 첫 직장생활, 결혼 등의 각 상황에 머물러 보기로 합시다.”

지나온 세월을 5년 단위로 구분해서 일직선상에 점을 찍어 표시한다. 좌측에 출생점 1개를 찍는다. 직선을 그린 다음 중간부분을 현재로 점을 찍고, 끝부분을 죽는 시점으로 찍는다. 자신이 돌이켜 느끼기에 아주 만족스러웠을 때 나이를 표시하고, 상향곡선 점으로, 좀 불만스러웠을 때는 하향곡선 점으로 그래프를 연결하여 그린다. 상향곡선 때의 대표 한 개 지점, 하향곡선 지점의 상황을 상세히 회상하여 그때의 심정에 머무르면서 지금의 나 자신과 연결하여 생각해본다. 즉, 가장 영향을 준 사건, 가장 영향을 준 사람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어떤 의미로 이해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 본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를 서술하고 그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기억한다. 서술한 것을 진지하게 서서히 한 사람씩 발표하고 느낌을 교환한다. 현재를 지나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기대를 발표한다. 앞으로의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 같이 인생의 길을 같이 갈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발표한다.

※ 인생 그래프



6) 문장완성

◆ 목적 : 집단에서 처음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래의 문장을 완성시키는 활동이다. 리더가 먼저 예를 들어주면 이해가 빨라지므로 도움이 된다. 이때 암시적이 되지 않도록 중립적인 예를 드는 것이 좋다. 아래에 제시된 문항들의 대상은 집단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집단원들이기 때문에 집단원들에게는 하기 어려운 직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단계를 잘 넘기면 훨씬 가깝고 신뢰로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 준비물 : 필기도구, 완성되지 않은 문장의 목록

◆ 진행방법 : 아래의 문장을 집단원들에게 알려주고 그 문장을 완성시키라고 한다.

“당신이 나를 정말 아신다면.....”
“당신은 나에게.....”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나는 당신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리고 완성된 문장을 돌아가면서 발표한다. 발표한 후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눈다. 이 때 집단원 가운데는 자신의 동기를 갖추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대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 타인이해

1) 당신을 알고 싶어요

◆ 목적 : 이 방법은 집단 초기에 실시하는 게 좋으며, 집단 초기에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을 때 서로에 대해 이해할 기회를 준다.

◆ 준비물 : 공

◆ 진행방법 : 리더는 공을 하나 준비한다. 집단원들은 둥글게 원으로 앉게 한 다음,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제 손에 공이 하나 있죠? 제가 이 공을 어떤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받으신 분은 자기 소개를 잠시 해 주시고, 이 공을 드린 제가 궁금한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공을 받으신 분은 저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다 끝나면 궁금한 분을 찾아 제가 지금 드린 것처럼 이 공을 드리면 됩니다. 또 받는 사람은 자신을 간단히 소개하고 공을 준 사람이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2) 감사한 마음 나누기

◆ 목적 : 이 방법은 급변하는 생활 속에서 주변에 감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 또 작은 고마움은 무심하게 지나치곤 한다. 이 활동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일깨움으로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 역시 자기개방, 타인들이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기, 긍정적 사고 기르기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준비물 : 종이, 필기도구

◆ 진행방법 : 잠시 둘러앉아 조용한 가운데 눈을 감게 한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명상한다.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생활에 도움을 준 한 사람을 떠올리도록 한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서 지금 여기 있게 해 준 사람을 각각 어떤 의미에서 고맙게 생각하는지 적어본다. 하루하루를 마음놓고 살아가게 도와주는 분들을 생각해 본다. 위의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하고 발표한다. 기술하면서 생각한 점과 발표하면서 느낀 점들을 교환한다.

3) 친한 사람들

◆ 목적 : 살아온 삶을 주변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려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자기공개가 되고, 자신을 중심으로 연결된 사회적 고리에 대하여 다시 느껴보는 시간이 된다.

◆ 준비물 : 16절지 1장, 크레파스

◆ 진행방법 : "종이에 크레파스로 도형을 그립니다. 눈을 감고 태어나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봅니다. 가장 친한 사람을 두 사람에서 열 사람까지 표현해도 됩니다." 자기 생에서 깊게 사귄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남자는 세모로, 여자는 동그라미로 그리는데, 그 크기와 위치는 자유롭게 한다. 먼저 자신을 표시하고 친한 사람들을 한사람씩 그린다. 크게, 작게, 가깝게, 멀리, 위로, 아래로, 나란히 배치하고 겹쳐 그려도 된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느껴보면서 천천히 그려본다. 색깔은 서로 다르게 한다.

다 그린 다음, 자기의 것을 들고 설명하면서 활동느낌도 발표한다. 즉 나의 위치는 어디에? 겹쳐진 것, 붙어있는 것, 떨어져 있는 것의 의미는? 위, 아래, 나란히 있는지? 색깔의 의미는? 크기의 의미는?

4) 방석 초대

- ◆ 목적 : 인간의 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사회적 동물이다. 출생, 성장, 사망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간은 서로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인생에서 여러 번 가치를 선택하고 보완하고 바꾸며 자기 가치를 재설정한다. 이를 재점검함으로써 자기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공통되는 부분, 다른 부분을 느끼고 평가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 ◆ 준비물 : 없음
- ◆ 진행방법 : 잠시 눈을 감고 나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다.(여러 사람을 한 번에 만나는 것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만나는 장면을 생각해 본다) “태어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오랜 기간 만나지 않았는데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배움을 준 사람, 고마웠던 사람, 의미 있던 사람, 내 옆에 있던 것만으로도 고마운 사람) 집단원들 가운데 5명을 선택하여 앞으로 초대한 다음, 다섯 명 각자에게 아까 떠올린 인물을 설정해 준다. 그리고 집단원들 앞에 그 인물을 설명해 주고 왜 그 사람이 자기 삶에 중요하고 고마운 사람인지를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전 집단원이 다 경험하게 한다.

참고문헌

김창대 편저 (2000). 집단상담활동 자료집. 계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미발행).
방기연 외 (1998). 심성수련-지도지침과 프로그램. 서울: 도서출판 한국인성개발.
박희석 (2000). 자발성 극장(웜업북). 서울: 학지사(출판 중).
이장호와 김정희. (1992). 집단상담의 원리와 실제. 서울: 법문사.

관 련 기 관 목 록

♣ 치료병원 및 상담관련기관

소 속	정부지정 치료병원	전화번호	주 소
국 립	국립부곡정신병원	055) 536-6440/3, 520-2518	경남 창녕군 부곡면 70 부곡리 70
	국립서울정신병원	02) 2204-0114, 0154	서울 광진구 중곡3동 30-1
	국립나주정신병원	061) 330-4114, 4107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501
서울특별시	서울시립은평병원	02) 303-9111/3	서울 은평구 응암2동산6
부산광역시	부산의료원	051) 866-9031, 850-0114	부산 연제구 연산4동 605-37
	부산시립정신병원	051) 324-2227/8, 601-7723	부산 사상구 학장동 164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053) 560-7575	대구 서구 중리동 1162
인천광역시	인천의료원	032) 580-6000, 580-6446	인천 동구 송림4동 318-1
	은혜병원(서천재단)	032)562-5101~7	인천 서구 심곡동 산 27-2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062)944-4005, 220-5114	광주 광산구 삼거동 산66-2
대전광역시	대전신생정신과병원	042) 823-4401/4	대전 유성구 학하동 682
울산광역시	큰빛병원	052) 272-2505	울산시 남구 신정2동 1650-9
경 기 도	의정부의료원	031) 828-5000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2동 433
	계요병원(청소년의료센터)	031) 55-3333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280-1
	용인정신병원	031) 288-0114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상하리 4
강 원 도	강원대학교병원(춘천의료원)	033) 254-6844/7, 258-2356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17-1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043) 279-2300, 220-532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4-6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041) 630-6260, 630-6114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72-3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063) 441-1114	전북 군산시 금동 14-1
전라남도	목포의료원	061) 272-2101/2, 270-6110	전남 목포시 용해동 133-1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054) 247-0551/7	경북 포항시 용흥 1동 315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055) 745-8000/7	경남 진주시 중앙동 4
제 주 도	제주의료원	064) 750-1234	제주시 삼도1동 154
민간 치료병원			
김경빈신경정신과의원		02) 2201-8258/9	서울 광진구 중곡2동
진태원신경정신과의원		02) 508-8700	서울 송파구 송파동
천주의성요한의원		062) 510-3114	전남 광주시 북구 유동
약물상담실 및 관련기관			
동대문YMCA청소년상담실		02) 2248-5662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밀알복지회 상담실		02) 527-3210/1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울시립동부아동상담소		02) 2248-4567/9	동대문구 장안2동 (일시보호시설)
나우리정신건강센터		02) 508-8700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약물상담실		02) 3411-5881	서울 강남구 수서동
청소년새샘터		02) 790-4287	서울 용산구 (중간시설)

한 국 마 약 퇴 치 운 동 본 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관련 종합전문민간기구로서 마약류에 대한 정보제공, 홍보, 교육, 상담, 치료재활사업 등을 통해 학교, 지역사회로 예방운동을 확산시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마약없는 밝은 사회 구현을 목표로 대국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 교육활동

♡ 교육내용
-마퇴교실 : 약물남용 위험집단을 대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 진행
-햇살교실 : 약물남용으로 수감시설에 보호중인 청소년이나 성인교육
-또래상담자교육
-부모교실
-자원봉사자교육
-지도교사교육
-전문가양성교육 등

♡ 교육신청 (교육신청서는 15일전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팩 스
서울	02-587-5115	02-587-5116
인천	032-873-7740	032-437-7916
부산	051-462-1022	051-462-1835
광주	062-225-2226	062-225-2855
전주	063-232-5112	063-287-5119

● 상담활동

전화상담, 면접상담, 집단상담, 사이버상담, ARS상담운영

망설이지 말고 전화를...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 상담센터

	무료상담전화	ARS
서울	080-022-5115	02-598-5115
인천	080-031-5115	032-862-5115
부산	080-522-5115	051-462-5114
광주	080-767-5115	062-223-3663
전주	063-232-5112	

인터넷의 지름길로...

http://www.drugfree.or.kr
E-mail : drugfree@drugfree.or.kr (상담전용 coun@drugfree.or.kr)

● 치료재활

'중간의 집(Half-way)'은 교정, 보호시설 및 치료시설에서 퇴원한 사람들이 사회로 복귀하기 전에 전문관리자와 함께 한 가정에서 생활함으로서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하도록 전문적으로 돕는 과정입니다.

-'중간의 집' 지원

● 후원활동

한 순간의 판단부족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마약류와 약물에 중독되어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과 형제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치료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마약퇴치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후원회 가입문의 : 02-586-7803

♡ 후원회원구좌는?
-개인 회원 : 매월 3,000원 이상, 매년 30,000원 이상
-단체 회원 : 매월 30,000원 이상, 매년 300,000원 이상
-청소년회원 : 매월 1,000원 이상, 매년 10,000원 이상

♡ 후원금 납입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C M C :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 없이 자동이체로 후원
지로 납부 : 지로로 은행에 직접 납부
온라인송금 : 온라인송금 (송금 후 전화연락 요망)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기업은행	327-001666-04-029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후원회지원팀
국민은행	086-01-0333-264	
외환은행	107-22-01507-5	
하나은행	138-006203-00204	
♡ ARS모금전화	**♡ 700-1318**	**♡ 1통화당 2,000원**

"전자신용카드결재도 가능합니다."

♡ 후원회원이 되시면....
-본부에서 제작된 홍보자료를 무료로 배부(별도신청)
-운동본부 후원회원의 작은 모임 진행
-운동본부 후원회원을 위한 세미나 개최
-법인세법 규칙 제18조 1항 32조 규정에 의거하여 손비처리 됩니다.

● 홍보활동

이동홍보차량운영, 캠페인, 국민대회, 포스터전시회, 대중매체 및 PC통신 등을 통해 마약류의 폐해, 예방, 대응방안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관련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캠페인에 필요한 각종 전단, 리플렛, 소책자, 스티커
- 교육에 필요한 자료, 만화교재, 예방교육교재, 괘도, 포스터
- 기타 마퇴본부 소식지,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등

♡ 자료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시간 9:00 ~ 18:00
-열람만 가능하며, 복사비는 본인부담

♡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활동합시다"

● 기 타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자료개발, 실태조사, 관련 연구, 이벤트전개

2000년 약물남용예방 지도교사 연수

발행일 : 2000. 8
발행인 : 민관식
발　행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　소 : 137-850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02-6
전　화 : 02)586-4466　　FAX : 02)586-7805

** 교재용 별지 2장 입니다.

2000년 약물남용예방지도교사 연수 평 가 서

연수에 참가하신 소감을 적어주시면 다음 프로그램 마련에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교육에 참가하신 소감과 느낌을 점수로 표시(∨)하신다면?

척도	① 매우불만족	②	③	④ 그저그렇다	⑤	⑥	⑦ 매우만족
종합적인 평가							
발표 내용							
일시							
장소							

◘ ①~④ 로 응답하신 분은 강의, 일시, 장소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발표 내용	
일시	
장소	

◘ 본 교육에 참여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운동본부가 다음 교육의 주제로 진행했으면 하는 내용을 제안하신다면?

◘ 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다음 보수교육에도 참가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반드시 참가 ② 가능하면 참가 ③ 올 것 같지않음 ④ 절대로 안오겠음

◘ 본부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요망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다함께 하는 마약퇴치, 더불어 사는 건강사회 2000. 8.

마약퇴치후원회 가입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성 명
(단체명)</td><td>한 글</td><td></td><td rowspan="2">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td><td rowspan="2">(회원증 발급시 꼭 필요)</td></tr>
<tr><td>영 문</td><td></td></tr>
<tr><td rowspan="3">주 소</td><td>자 택</td><td></td><td rowspan="3">전화
번호</td><td>자 택</td><td></td></tr>
<tr><td>직 장</td><td></td><td>직 장</td><td></td></tr>
<tr><td>우편물
발송</td><td>자택 ( ) / 직장 ( )</td><td>기타전화</td><td></td></tr>
<tr><td colspan="2">생년월일
(창립기념일)</td><td>년 월 일</td><td>결혼기념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E-mail</td><td></td><td>Homepage주소</td><td></td></tr>
<tr><td colspan="2">회 비
납 부
방 법</td><td colspan="3">○ 지로
○ CMS(자동이체)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 온라인송금
○ 신용카드
카드종류( ) 카드번호 ( )</td></tr>
<tr><td colspan="2" rowspan="3">회원구분</td><td colspan="2">○ 일 반 회 원 월 3,000원 이상 (원)납입
년 30,000원 이상 (원)납입</td><td>(직 업)</td></tr>
<tr><td colspan="2">○ 단 체 회 원 월 30,000원 이상 (원)납입
년 300,000원 이상 (원)납입</td><td>(대표자)
(담당자)</td></tr>
<tr><td colspan="2">○ 청소년 회원 월 1,000원 이상 (원)납입
년 10,000원 이상 (원)납입</td><td>(학 교)
(학 년)</td></tr>
<tr><td colspan="2">가입동기</td><td colspan="3">○ 방송을 통해 ○ 예방교육을 통해 ○ 인터넷을 통해
○캠페인을 통해 ○ 주변의 권유로 ○ 기 타 _____</td></tr>
<tr><td colspan="2" rowspan="2">동 아 리
참석여부</td><td>여행동아리○</td><td>전국 각지 여행 및 캠페인</td><td>통신동아리○</td><td>인터넷 사이버 여행</td></tr>
<tr><td>출판동아리○</td><td>후원회 소식지 제작</td><td>문화동아리○</td><td>영화·연극 등 관람 등</td></tr>
<tr><td colspan="2">마약퇴치운동에
대한 한마디</td><td colspan="3"></td></tr>
</table>